

## 통성경학교의 성경기도와 통전적 영성 형성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이광렬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Kwang Lyel Lee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BIBLE PRAYER AND HOLISTIC SPIRITUAL FORMATION AT TONG BIBLE SCHOOL**

Kwang Lyel Lee

Naedong Church, Bucheon

This project studied the application of Byoung-ho-Zoh's Tong Bible School to the Naedong Methodist Church. Through the Tong Bible Study's Biblical Prayer, which integrated the Bible and prayer, I attempted to unify the Bible and prayer and verified and evaluated the influence of two crucial elements of spiritual 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how the Bible and prayer have influenced the spiritual formation of Korean Christianity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In the early days of the mission in Korea, the Bible and prayer that shaped Korean Christian spirituality were biased by the spirit of the times, which was driven by the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national policies of that time. If the spirit of the age is the guiding spirit of that time, spirituality is a constant that can add value or transform the spirit of that time. However, it is rather degraded. The reason for this was the separation of the Bible and prayer, which formed an integral part of spiritual formation. This pattern of contradictory spiritual formation has been well illustrated in the Korean church history. Korean Christian spirituality was gradually bias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War. And due to the national policies for post-war recovery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s, Korean Christian spirituality has been submerged in materialism and prosperity. As a result, Korean Christian spirituality became individual, subjective, and mystical.

In preparing this project, I realized the need to re-establish a balanced, holistic spirituality from a biblical, theological, and community perspective to overcome the biased spiritual formation of the past years. It is possible when two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spiritual formation, the Bible and prayer, are unified and not separated.

Through this project, we aim to globalize Tong Bible School as an alternative to Christian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which combines the two keys to spiritual formation, the Bible and prayer, to prevent bias. I hope to establish a generation of Tong Bible followers who confidently proclaim that “one Bible is enough.”

국문초록

## 통성경학교의 성경기도와 통전적 영성 형성

이광렬

내동교회, 부천

본 논문은 조병호의 통성경학교의 내동교회 적용 사례를 탐구하였다. 영성 형성의 중요한 두 요소인 성경과 기도를 통합한 통성경학교 성경기도를 통하여 성경과 기도의 일원화를 시도하였고 통전적 영성 형성의 영향력에 대해 평가하고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동기는 성경과 기도가 한국 기독교의 영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국 기독교사를 통해 밝혀냈기 때문이다. 선교초기 한국 기독교의 영성을 주도했던 성경과 기도는 당시 사회, 경제, 문화와 국가의 정책에 따라 주도된 시대 정신에 의해 좌우되었다. 시대 정신이 그 세상의 흐름을 지배하는 정신이라면 영성은 그 시대 정신에 가치를 부여하고 변혁시킬 수 있는 상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변질된 것이다. 이유는 통전적 영성 형성을 이루는 성경과 기도가 이원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 잘못된 영성 형성은 한국 교회사에 잘 나타나 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조금씩 편향되어 갔고 전후 복구를 위한 국가정책과 경제개발계획에 맞물린 시대정신에 의해 기독교 영성은 물질주의와 기복적 신앙에 함몰되어 개인적, 주관적, 신비적 영성으로 퇴락

하였다.

본 논문을 준비하며, 지난날의 편향된 영성 형성을 극복하기 위해 성서적, 신학적, 공동체적 관점 속에서 균형 잡힌 통전적 영성을 다시 형성해야 됨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영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 성경과 기도를 이원화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통전성을 유지할 때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성 형성의 두 핵에 해당하는 성경과 기도가 편향되지 않도록 통으로 묶어낼 21세기 기독교교육의 대안인 통성경학교가 세계화를 이루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라고 고백하는 통성경세대가 세워지길 기대한다.

## 목 차

표 목차 .....	x
그림 목차 .....	vi
감사의 글 .....	vii
1. 서론 .....	1
1.1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	1
1.2 연구의 방향성 .....	4
2. 기독교 영성에 대한 고찰 .....	7
2.1 기독교 영성과 영성 형성의 이해 .....	7
2.2 기독교 영성과 영성 형성의 의미 .....	9
2.3 한국 개신교 영성 형성에 따른 교회의 부흥과 쇠퇴 .....	13
2.4 포스트모던시대 한국 개신교 영성의 다원화와 통전적 영성 형성의 부재..	20
3.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통성경학교 고찰 .....	27
3.1 통전적이란 무엇인가? .....	28
3.2 통성경(TB)이란 무엇인가? .....	34
3.3 통성경학교(TBS)란 무엇인가? .....	38
3.3.1 통성경학교의 성서적 근거 .....	40
3.3.2 통성경학교의 신학적 근거 .....	52
3.3.3 통성경학교의 공동체적 근거 .....	55
4.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기도 .....	61
4.1 한국교회 영성 형성의 두 핵: 말씀과 기도 .....	61

4.2 통전적 영성 회복을 위한 도전과 한계 .....	62
4.2.1 통전적 영성 형성: 초대교회와 교부시대 .....	63
4.2.2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도전: 렉티오 디비나 .....	63
4.2.3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도전: 예수기도 .....	68
4.2.4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도전: 성경통독원의 통성경과 영성 .....	70
4.2.5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도전: 내동교회 성경기도 .....	74
4.3 성경통독원의 통성경운동과 성경기도 .....	91
4.3.1 통성경화를 위한 통성경학교 .....	95
4.3.2 통성경학교 통프레임 .....	96
4.3.3 통성경학교 이해를 위한 6가지 핵심 주제이해 .....	101
4.3.4 통성경학교 성경기도의 도전과 한계 .....	117
<b>5. 통전적 영성 회복을 위한 적용 .....</b>	<b>120</b>
5.1 통성경학교(TBS)를 통한 통전적 영성 형성 .....	120
5.1.1 통성경학교 교육을 통한 통전적 사고 형성 .....	122
5.1.2 통성경학교의 운영과 실제 .....	126
5.1.3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기도의 실례: 내동교회 사례 .....	134
<b>6. 통성경학교의 성경기도가 영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b>	<b>137</b>
6.1 설문조사 및 인터뷰 .....	137
6.2 조사 결과보고 .....	138
6.3 종합 평가 .....	157
<b>7. 결론 .....</b>	<b>159</b>
7.1 연구의 요약과 의의 .....	159
7.2 연구의 적용의 영향력과 한계 제언 .....	161



참고문헌 .....	165
부록 .....	169

.

## 표 목차

〈표 1〉 내동교회 성경기도 수요특강 .....	79
〈표 2〉 통성경학교 성경기도와 내동교회 성경기도 비교 .....	87
〈표 3〉 성경기도 특강 출석 현황, 월별 통계 (2022년 7월 - 9월) .....	88
〈표 4〉 통성경 7트랙 구분 .....	104
〈표 5〉 내동교회 통성경학교 운영결과 .....	135
〈표 6〉 내동교회 성경기도 특강운영 .....	135
〈표 7〉 주관식 설문응답 항목별 결과분석 .....	151

## 그림 목차

〈그림 1〉 통성경학교 통트랙 물고기 모양 .....	97
〈그림 2〉 통성경학교 주제 .....	97
〈그림 3〉 통통성경 7트랙 .....	103
〈그림 4〉 통통성경 7개 분위기 .....	105
〈그림 5〉 통통성경 7개 질문 .....	106
〈그림 6〉 통통성경 노래 .....	106
〈그림 7〉 엘리에셀의 성경기도 패턴 .....	113
〈그림 8〉 엘리에셀의 성경기도 .....	113
〈그림 9〉 바울의 성경기도 패턴 .....	115
〈그림 10〉 바울의 성경기도 .....	115
〈그림 11〉 통통성경 성경기도 5단계 .....	116

## 감사의 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COVID -19와 개인 사정으로 학위 시작 1년 후 휴학하며 모든 것을 내려 놓았을 때 재도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지도해 주신 천성환 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학위를 마치기 까지 재정적 지원과 기도로 섬겨주신 내동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동역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성경과 신학, 미래목회에 대한 새로운 학문의 길로 초대하여 선견자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조병호 박사님과 레너드 스윗 박사님 그리고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조언과 격려로 지도해 주신 김영래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무엇보다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사랑해주고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처럼 다가와 아빠를 격려해주는 큰 딸 한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과묵하지만 아빠보다 속이 깊은 큰 아들 후민이와 고 3의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아빠의 기쁨이 되어준 막내 후찬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목사 되려면 좋은 목사 되라’ 말씀해 주시며 어린 시절부터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신 조부모님께 감사 드리며 이 영예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이광렬

# 1. 서론

## 1.1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시대 정신이 그 세상의 흐름을 지배하는 정신이라면 영성은 그 시대 정신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변혁시킬 수 있는 상수라 할 수 있다. 어떤 영성이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며 그 미래도 예측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협의회 G20에 속할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 경제규모 10위(2020년 GDP 기준)이지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낮다. OECD 국가로만 따질 경우 최하위권에 속한다(2022년 세계행복 보고서, 38개 회원국 중 36위). 행복지수를 통계적 분석기법을 통해 정할 때 대표적으로 6가지 항목(GDP, 사회적 지지, 건강 기대수명, 자유, 관용, 부패)들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이런 요소를 중심으로 물었을 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22년 146개국 중에서 59위(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로 보고 되었다. 6개 항목 중 GDP나 기대수명은 높은 편으로 나왔지만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의 항목에서는 그 수치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방증하는 것은 현재 한국 기독교 영성 형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6가지 요인들 모두가 교회가 추구하는 삶이 되 낮게 평가된 4가지 영역은 특별히 공동체적 삶과 관련된 기독교 신앙의 영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은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무엇이 다른가?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와 기대수명이 높다 할지라도 나머지 4가지 요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정신적,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 오래 산다면 더 불행은 가중 될 것이다.

필자는 그 동안 기독교 신앙의 영역가운데 영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사회현상을 바라보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그 근본 원인을 찾고 앞으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초대교회의 영성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살았고, 오직 성경 한 권이면 행복한 삶을 살았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물질적 축복과 기대수명이 길어진 건강의 복이 아니라 내면 깊숙히 자리 잡고 있는 잘 못된 영성을 깨우쳐 거듭나는 것이다. 필자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서 한국교회의 영성의 흐름을 재 조명해 보고 진단하여 다시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 개신교는 선교 130년의 짧은 역사 속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며 나라에서 행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기독교 영성 형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가 추구해온 영성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그 원인을 잘 못된 시대정신에 대해 변혁시키지 못하고 기독교 영성마저 그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 잘못된 영성이 형성된 것에 기인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본래 선교 130년의 한국 교회 영성 형성은 건강한 영성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선교 초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이미 조선 땅에는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이런 일은 기독교 선교역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특별한 은총이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1903년을 시작으로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동인(動因)이 되었다.

바로 1907년 대부흥운동의 뿌리에는 성경이 있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경회(査經會)<sup>1</sup>기간 성경이 역사하여 영적 각성의 회개운동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산되며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뿌리를 둔 영성은 일제식민통치와 한국전쟁(1950-53)을 겪으며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후 복구를 위한 국가정책으로서의 경제개발과 맞물려 한국 교회의 영성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신비주의와 함께 경제회복을 위한 물질주의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 중 군부통치의 권력유지를 위한 세뇌정치에 따라 보수와 진보이념으로 양극화 되었고, 기독교 영성도 이에 편향적 영성으로 반응하여 ‘잘못된 기독교 영성 형성’을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교회의 교세가 확장되는 부흥의 시기였으며 한국의 경제 또한 성장을 위한 과도기적 시기였다. 이 시기의 영성은 이런 시대정신의 요구에 따라 기복신앙과 무분별한 은사 사용의 신비주의로 변향(變向)되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초월적’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영성은 오순절 운동과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등을 들 수 있다. 전후(戰後) 복구 시기의 어렵고 힘들고 절망 중에 있는 현실 속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영성이었지만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에 와서 돌아볼 때 이는 기독교 영성을 병들게 하는 ‘독’으로 작용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영성을 바른 영성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독교 영성 형성을 이룰 수 있을까?

종교개혁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sup>1</sup> 사경회(査經會)는 기독교에서 성서강해와 연구를 목적으로 모인 집회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Underwood, H, G)가 1890년 본인의 집 사랑방에서 교인 7명을 모아 놓고 성경공부를 시작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때 모임을 사경반(査經班)이라 불렀다. 이렇게 시작된 성경연구 운동은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것이었던 바른 영성 또한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기보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바른 기독교 영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복음의 경전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독교 복음에서 영성 형성을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신앙적이며 영적인 기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잘못된 시대정신에 의해 기독교 영성이 편향적이 되어 개인적, 주관적, 초월적으로 잘못 형성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서적, 신학적, 공동체적으로 균형 잡힌 통전적 영성 형성을 회복하여 21세기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는데 있다.

## 1.2 연구의 방향성

본 연구의 관심은 건강한 통전적 영성 형성에 있다. 특별히 ‘통전적’이라는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통전이 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다.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 좋은 음식이 상에 가득 차려 있어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밥상이 된다. 만약 내 구미에 맞는 음식만 찾아서 편식하게 되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통합과 균형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통전의 문제이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그리스도이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뜻대로 살수 있을까? 또 그 뜻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기도에 있다. 마치 숨쉬고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먹고 기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경과 기도인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전적 영성 형성을 이루는 두 요소인 성경과 기도를 이원화하지 않고 통전적으로 묶어 내는데 있다. 그리고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한국교회의 영성의 편향성이 왜 생겨났는지 성경과 기도에 대한 관점 속에서 그 원인을 다룰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 교회 영성의 가장 큰 문제는 통전적이지 않음을 밝혀내고 통의 의미를 서술할 것이다. 특별히 통의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전 즉 統, holistic의 의미가 아니라 조병호가 주장한 通, Tong의 의미로 논할 것이다. 그리고 통(通, Tong)을 위하여 영성의 원천자료(primary source)인 성경에 대해 통의 관점으로 논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도 서구와 동양의 해석학이 아닌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通, Tong의 의미를 통통신학의 입장에서 해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검증된 통성경학교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것이 영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성경기도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목회현장에서 적용한 내동교회의 통성경학교와 성경기도의 영향력에 대해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검증 후 균형 잡힌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기도가 보편화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서 통성경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기도가 통전적 영성 형성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믿음의 자산인지를 밝히고 아울러 조병호에 의해 성경통독원에서 시작한 통성경학교가 21세기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신앙교육의 자산임과 도구임을 소개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잘못된 시대정신의 사조에 떠밀리거나 분별없이 이끌려 사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밝힌 리처드 니버의 말처럼 세상 속의 교회로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기독교 영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다.

## 2. 기독교 영성 형성에 대한 고찰

### 2.1 기독교 영성과 영성 형성의 이해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과학시대라 말하지 않고 영성 시대라고 정의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역사 물결시리즈 중에서 ‘제 5의 물결’은 영성이라고 하였다.<sup>2</sup> 엘빈 토플러가 보편적으로 말한 영성은 기독교 영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갈망을 말한다. 본 연구는 제 5의 물결로 소개된 보편적 영성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 가운데 통전적 영성 형성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

기독교 영성은 성서에 그 뿌리를 둔다. 성서에 ‘영성’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이라는 말과 연결된다. 성경에서 ‘영’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한다(요 4:24). 또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영을 불어넣었다(창 2:7). 영의 의미는 구약성서에서 ‘바람’, ‘숨’,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루아흐(ruah)라 부르며 신약성서에서는 육(sarx)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퓨뉴마( $\pi\nu\epsilon\upsilon\mu\alpha$ )라 한다. 영성(spirituality)을 가리키는 라틴어 ‘spiritualitas’는 ‘영’이라는 단어 ‘spiritus’와 ‘영’적이라는 말인 ‘spiritalis’ 또는 ‘spiritualis’에서 비롯된 말이다.<sup>3</sup> 이 용어는 터툴리안(약 160-220)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터툴리안은 라틴어를 사용한 처음 신학자로서 그 당시 헬라어로만 쓰여 왔던

<sup>2</sup> 이성희, “혼탁한 영성시대, 올바른 영성의 길,” 「목회와 신학」 177 (2004년 3월), 55.

<sup>3</sup> 정용석, “기독교 영성과 영성학(1),” 「기독교 사상」 (1993년 2월호), 90.

많은 용어들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spiritualis’ 이다.<sup>4</sup> 이런 표현들이 더 발전되어 ‘영성’ 이라는 용어로 쓰였으며 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5세기 초에 리에츠라는 지방의 감독이었던 파우스투스(Faustus)다. 그는 “영성의 발전을 위하여 행동하라” (Age ut in spiritualitate proficias)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영성을 뜻하는 라틴어 ‘spiritualitas’ 는 사도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한 영성으로 “성령을 따르라” 는 뜻으로 사용되었다.<sup>5</sup> 사도바울이 언급한 영적이란 의미는 물질과 대립의 개념으로서의 영이 아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음’ 과 ‘성령을 거스린 자신의 의지나 욕심’ 을 욕적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사도바울이 말한 영적이라는 것은 곧 ‘성령의 따름’ 에 강조를 둔 말이다(고전 2:14, 롬 8:5, 갈 5:16-18).<sup>6</sup>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성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달라져 갔다. 9세기 풀다(Fulda)의 수도사인 칸디두스(Candidus)는 ‘spiritualitas’ 를 ‘corporalitas’ 또는 ‘materialitas’ 즉, 육체성과 물질성 두 개념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로부터 영성의 의미는 육체성 또는 물질성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전초가 되었다.<sup>7</sup> 이후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이 개념은 더욱 강화된다.

이렇게 성서적, 교회사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 영성이라는 말은 가톨릭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다. 반면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은 영성을 가톨릭 용어로 간주했으며 중세적 영성의 특징인 수덕주의, 신비주의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펠라기우스적인 것으로 보았고 더 나아가 열정주의,

<sup>4</sup> 협성신학 연구소, 『기독교 신학과 영성』 (서울: 솔로몬, 1995), 21.

<sup>5</sup> 정용석, “기독교 영성 연구,” 『대학과 선교』 15 (한국대학선교학회, 2008년 12월), 14.

<sup>6</sup> 정용석 외 5인, 『기독교 영성의 역사』 (서울: 은성 출판사, 2007), 22.

<sup>7</sup> Ibid., 25.

도덕폐기론(antiomianism), 정적주의(Quietism)<sup>8</sup>로 이해하며 세속을 벗어난 현실도피로 인식하여 가톨릭 영성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런 배경 하에 개신교 전통에서는 영성의 용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꺼려했다.

이런 이유로 개신교는 영성이란 용어를 경건(piety), 헌신(devotion), 완성(perfection)이란 말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개신교에서도 영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다.<sup>9</sup>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들어와서 영성은 더욱 포괄적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life itself)를 포괄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10</sup>

## 2.2 기독교 영성과 영성 형성의 의미

이렇게 기독교 영성은 성서적 바탕 위에 세워져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기까지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 영성 형성은 다르게 이루어졌다. 영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같이 우리 사고와 정신 그리고 삶 안에 총체적으로 내면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재경은 영성 형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며 형성(Formation)은 마음의 형태를 갖추는 것(shaping), 마음을 주조하는 것(molding)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sup>8</sup> 다음백과사전 - “정적주의란 인간의 능동적인 의지를 최대한 억제하고 권위적인 신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수동적 사상. 좁은 의미로는 17세기에 에스파냐의 몰리노스(Miguel de Molinos) 등이 주창한 가톨릭 내의 한 사조를 이른다”

<sup>9</sup> 협성신학 연구소, 『기독교 신학과 영성』, 25.

<sup>10</sup> 정용석, 『기독교 영성 연구』, 17.

마음을 새롭게 함, 가치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스타일의 변화, 성령과 동행, 마음의 이끌림이라 하였다.<sup>11</sup> 유재경은 기독교 영성 형성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존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였다.<sup>12</sup>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sup>13</sup>

로버트 멀홀랜드(M. Robert Mulholland)는 영성 형성은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는(일치되어가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하였다.<sup>14</sup> 이강학은 영성 형성을 ‘제자도(discipleship)’와 동의어로 말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정체성을 지니고 살며, 제자로서 성장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였다. 그리고 영성 형성은 성경에서 변화(transformation), 일치(conformation), 성장(growth)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말하며 영성 형성의 성서적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sup>15</sup>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those who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sup>16</sup>

<sup>11</sup> 유재경, “기독교 영성 형성 관점에서 본 영성일기” 2016년 7월 18일, 선한목자교회에서 강연

<sup>12</sup> Ibid., 영성일기 컨퍼런스 발제 문 인용

<sup>13</sup> 개역개정, 골로새서 3장 9절~10절.

<sup>14</sup> M. Robert Mulholland, 『영성 형성을 위한 거룩한 독서』 최대형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15), 31.

<sup>15</sup> 이강학, “영성 형성과 영성지도: 이그나티우스 로올라와 에반 하워드를 중심으로,” 『예수동행일기』 (성남: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2020), 113-114.

<sup>16</sup> 로마서 8장 29절. (한글: 개역개정, 영문: NIV)

여기에서 영성 형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것(conformed)이며 이것은 바로 일치(conformation)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헤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My dear children, for whom I am again in the pains of childbirth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sup>17</sup>

여기에서 영성 형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formed)것, 즉 영성 형성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며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 s will is -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sup>18</sup>

여기에서 영성 형성은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큰 ‘변형’ (transformation)을 경험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바로 죄인이 의인되는 변형을 말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in all things **grew** up into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sup>19</sup>

여기에서 영성 형성은 성장(growth), 곧 ‘자라는’ 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창국은 몸과 영성 형성에 대해 논하며 영성 형성을 특정 영적 행위,

<sup>17</sup>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글: 개역개정, 영문: NIV)

<sup>18</sup> 로마서 12장 2절. (한글: 개역개정, 영문: NIV)

<sup>19</sup> 에베소서 4장 15절. (한글: 개역개정, 영문: NIV)

종교행위로 국한시키는 경향 즉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이원적으로 보는 잘못된 기독교 인간관을 논하며 몸과 영성 형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체적 관계임을 논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종교에서 우리의 육체를 제외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종교를 제외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만 성취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삶이다.<sup>20</sup>

최창국은 몸과 영성 형성에 대한 부분을 논하며 인간의 몸에 대해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전인성의 한 국면으로서의 몸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소개 하였다.<sup>21</sup>

...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지라” 라고 했다. 개역성경에는 “생령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바른 번역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루아흐, 네페쉬)을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 있는 영” 이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 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만 살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인(whole person)이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가 되게 하셨다. “살아 있는 영” 이라고 번역하면 자칫 이원론적인 인간관에 빠지게 된다. 즉 영만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관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인 몸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sup>22</sup>

리처드 포스터와 게일 비비는 ‘영성을 살다’ 라는 책에서 기독교 영성 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sup>20</sup> 최창국, 『기독교 영성 신학』 (서울: 대서, 2010), 161. 이 부분을 최창국은 Dallas Willard의 *The Spirit of Disciplines* 라는 저서의 32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

<sup>21</sup> Ibid., 163.

<sup>22</sup> Ibid., 163-164.



기독교 영성 형성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존재 자체를 지나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이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마음을 열고 반응한다면, 이 내적 형성은 외적 삶으로 표현될 것이다. 영성 형성은 모든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숨겨진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그 곳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다.<sup>23</sup>

이제까지 나열한 설명을 종합해볼 때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관계성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성 형성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뤄진 영성이 제한된 육신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삶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전인적인 생명체가 되는 과정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 형성은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인간의 몸과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삶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3 한국 개신교 영성 형성에 따른 교회의 부흥과 쇠퇴

초기 한국 개신교회의 영성 형성과 부흥은 성경과 기도에 기반하여 시작되었다. 가톨릭의 경우 18-19세기 신비신학(mystical theology)과 수덕신학(ascetical theology)<sup>24</sup>으로 나뉘어졌던 것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로

<sup>23</sup> 리처드 포스터, 게일 비비, 『영성을 살다』 김명희 역 (서울: IVP, 2009), 19.

<sup>24</sup>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두산 백과 인용 - 수덕신학(theologia ascetica, 修德神學)은 가톨릭 실천신학의 한 부분으로, 수덕(修德)의 이론과 그 실천방안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영성(靈性)신학이라고도 한다. 17~18세기에 신학의 각 분과가 독립될 때 분류되었다. 이 학문의 주 목표는 완덕(完德), 즉 자유의사에 의한 신과의 일치를 도모하는 수단으로서의 개개인의 구체적 · 능동적인 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실천적이기는 하나 원리적인 고찰에만 그치는 윤리신학과, 구체적이기는 하나 신의 작용에 완전히 수동적으로 응하는 신비적 일치를 도모하는 신비신학과의 중간에 위치한다. 에스파냐 출신의 D. 알바레스와 A. 로드리게스가 대표적인 수덕신학자이다.

통합되어 ‘영성신학’ 또는 ‘영성’의 개념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sup>25</sup> 초기 한국 개신교의 영성은 서양에서 형성된 기독교 영성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조선의 상황에 따라 토착화가 이뤄지며 기독교 영성은 다르게 형성되었다.

한국 개신교회의 영성 형성은 20세기 초의 부흥운동 속에서 태동하였다. 조선왕조의 붕괴에 따른 정치적 절망 속에서 서구의 교육과 의료선교는 조선백성에게 희망이 되었고 교회는 그 희망의 원천적 그릇이 되어 조선민족을 품게 되었다. 이 시기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아직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지만 선교사들의 헌신에 의해 변화를 요구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날 만큼 복음에 대한 영적 민감성이 나타났다. 토론토대학에서 의료선교사로 내한한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는 1903년 원산지역에서 자신의 선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조선인을 대했던 것에 대해 통회하며 철저한 회개를 하였다. 이 회개의 불씨가 부흥을 이루는 성령의 불로 번져 나갔다. 이 불씨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지퍼졌고 길선주 목사는 사경회 기간 자신의 죄를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대폭발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 부흥운동으로 인해 조선 개신교는 교회사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 부흥운동의 중심에는 참된 회개의 영성이 들어 있었다. 사경회에 참여한 회중들은 큰 소리로 자신의 지은 죄를 자복하며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였다.<sup>26</sup>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개신교의 영성 형성의 기반은 바로 성경을

<sup>25</sup> 한인철, “새 천년 기독교 영성,” 『세계의 신학』 (1999년 12월호), 56.

<sup>26</sup> 최재건, “LID(Leadership is Discipleship),” 『리더십 저널』 6 (2020년), 12-23.

읽고 기도하는 사경회(查經會)<sup>27</sup>라는 점이다. 조병호도 ‘통이다 렛츠 통’이란 저서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초기 부흥의 핵심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경회에 있다고 보았다.<sup>28</sup> 초기 한국 개신교는 사경회를 통해 성경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나갔고, 이 무렵 신구약 성경도 완역되어 출간되었다. 이렇게 출간한 성경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토대를 둔 성도들은 매일 여는 새벽기도회를 교회의 공적인 모임으로 제도화 하여 한국교회 특유의 기도의 영성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초기 한국교회는 사경회를 통한 성경을 공부하여 이를 바탕으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복음주의적인 영성 형성을 이루었다.<sup>29</sup>

초기 한국 개신교회의 영성 형성과 부흥은 공동체적 영성을 추구하였다. 기독교 영성 형성의 특징은 고난의 시기에 형성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의 시기 속에서 개신교 영성은 자리를 잡아갔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한 터툴리안<sup>30</sup>의 말처럼 고난은 개신교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다. 로드니 스타크는 사회학적 관점 속에서 기독교의 발흥에 대한 원인을 조목조목 밝히며 초기 기독교 AD40년부터 350년 시기까지 기독교 인구 성장을 도표화

<sup>27</sup> 다음백과사전 인용 - 사경회는 한국 초대 교회 부흥의 기틀로서,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의 집에서 7명의 교인이 모여 성서공부를 시작한 것이 처음으로 당시에는 사경반이라고 불렸다.

다음국어사전 - 사경회는 한데 모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이는 교인들의 모임

<sup>28</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서울: 통독원, 2009), 160.

<sup>29</sup> 최재건, “LID(Leadership is Discipleship),” 『리더십 저널』 6 (2020년), 12-23.

<sup>30</sup> 다음백과 검색 - 터툴리안(150-215?)은 최초의 라틴 교부로서 그 뒤 1,000년 동안 서방 그리스도교의 어휘 및 사상 형성의 기초를 이룩했다.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한 세기 뒤의 사람들이 쓴 문서들과 본인의 저서에 나오는 모호한 언급들에 의존한다. 당시 서방 세계의 문화 및 교육 중심지인 카르타고에서 태어났다. 로마에 있을 때 그리스도교 운동에 관심을 갖기는 했으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은 2세기말경 카르타고로 돌아간 뒤의 일이다. 초기 저서들인 <순교자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등에서 일부 그리스도교도들의 태도와 신앙, 순교자들의 용기와 결단, 엄격한 도덕성, 유일신에 대한 타협 없는 신앙 등에 감명을 받았다고 적어 놓았다. 그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초신자들과 기성 신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저술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행을 변호하는 변증가로서 재능을 발휘하여 아프리카 교회의 지도자로 떠올랐다.

하였다.<sup>31</sup>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의 원인들을 밝히며 특히 박해와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한 것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두 번째 큰 역병이 절정에 다다랐던 260년경, 디오니시우스는 역병으로부터의 생존율에 대해 기독교의 황금률을 언급하며 기독교인과 이교도 사이에 나타나는 차별 사망률(mortality differential)에 관해 말하였다.<sup>32</sup> 즉 역병가운데 기독교 공동체는 병자와 죽어가는 자를 간호했고 제대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시신처리에 드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이교도들의 행동과 기독교인의 행동이 차이가 있었음을 증거하였다. 이에 대해 실제 이교도인 율리아누스 황제(저스틴)는 기독교와 견줄 만한 이교도 구제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AD 362년 갈라디아의 대제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최근의 기독교 성장은 “비록 가식적이라고 해도 기독교인의 도덕성”과 “나그네에 대한 너그러움과 죽은 자의 무덤을 잘 관리” 하는 것에 힘입었다고 언급하며 이교도들을 향해 기독교인의 미덕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sup>33</sup>

<sup>31</sup>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2016), 23.

연 도	기독교인 수	인구 가운데 비율(퍼센트)*
40	1,000	0.0017
50	1,400	0.0023
100	7,350	0.0126
150	40,496	0.07
200	217,795	0.36
250	1,171,356	1.9
300	6,299,832	10.5
350	33,882,008	56.5

\* 전체 인구 추정치 6천만을 기준으로 함

<sup>32</sup> Ibid., 130.

<sup>33</sup> Ibid., 131.

초대 교부 터틀리안은 이렇게 주장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한 번만 보라” 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sup>34</sup> 이렇게 박해와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교도와 차별된 개인주의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적 영성 형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 역시 고난의 시기에 이뤄졌으며 로드니 스타크의 사회학적 입장에서 조명한 기독교의 발흥처럼 한국 기독교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영성에서 그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은 공동체적 영성에 기반을 두며 성장하였다. 한국개신교의 시작은 풀 뿌리 같은 민초들로 구성되었지만 선교사들과 깨어있는 의식인 들을 통해 조선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영성을 형성한 것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공동체 영성에서 기인되었다. 새사람이 되는 중생의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자 성도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윤리적인 삶을 살았고 교회도 부흥했다. 블래어 선교사(William N. Blair, 방위량, 1876-1979)는 이 때의 일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오순절 역사와 흡사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송재근은 그의 저서에서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공동체 영성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가 공동체 내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죄의 공유, 둘째는 개인 소유의 공유, 셋째는 비전의 공유다” 라고 하였다.<sup>35</sup> 이 세 가지 요소가 만족될 때 공동체적 영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초기 한국 개신교회의 부흥은 이 세 요소를 만족시키며 대부흥의 역사로 이어졌다. 사경회 기간 말씀을 배우며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였고 삶

<sup>34</sup> Ibid., 136.

<sup>35</sup> 송재근, “혼탁한 영성시대, 올바른 영성의 길,” 「목회와 신학」 177 (2004년 3월), 150.

속에서는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누었다. 당시 이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꿈꾸며 공동체 영성을 가지고 대부흥을 이루어 갔다.

한국 개신교는 선교초기부터 성경과 기도를 바탕으로 영성이 형성되어 교회는 부흥하며 사회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것은 근대교육을 받아들이게 하였고 반봉건, 반식민운동과 개화운동으로 이어지며 신분철폐까지 일어났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이런 실 예로 한국교회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곤당골 교회<sup>36</sup>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개신교회의 공동체성을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교회는 현재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승동 교회로서 갑오개혁이 시작되기 한해 전인 1893년 백정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려 앓아 눕자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당시 고종황제의 주치의인 시의 에비슨을 청하여 백정 박씨를 치료한다. 살아난 박씨는 양반들이 다니고 있던 곤당골 교회에 신분을 속이고 출석하여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였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양반과 백정이 함께 있을 수 없다 하여 양반들은 교회를 나갔고 백정들을 중심으로 모인 곤당골 교회는 성장해 갔다. 하지만 반상제도로 인한 신분갈등은 여전하여 서로 하나되지 못하였다. 무어 선교사는 백정들을 측은히 여겨 고종황제에게 사정을 올려 이 사람들도 갓을 쓸 수 있도록 청하였고 바로 이시기에 갑오개혁이 일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뒤따르며 문벌과 반상제도의 혁파, 공사노비법의 혁파 천인의 면천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개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백정들도 평민처럼 갓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무어 선교사는 그들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했다. “박성춘을 비롯한 곤당골 교회 백정들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밤에 잘 때도 갓을 벗지 않았다,

<sup>36</sup> 대한예수교 장로회, 1893,06 선교사 사무엘 무어(S.F.Moore) 목사가 곤당골에 교회를 설립- 승동교회 홈페이지 ([www.seungdong.or.kr](http://www.seungdong.or.kr))에서 인용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을 들은 흑인들도 갓을 쓸 수 있게 된 조선 백정들처럼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37</sup> 당시 민족 지도자 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 1886-1947)은 이 교회의 조사(組師)로 시무했고(1908-1913), 우국지사 이동녕(1869-1940), 노백린(1875-1926)도 교회에 나와 활동했고 고종의 재종형제 이재형과 심지어 척화를 내세웠던 대원군의 외손자 조남복도 신실한 신자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당시 지도자들은 교회의 영향력을 직간접으로 받으며 신분과 사회구조의 개혁을 주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개척하였다. 이것은 신앙공동체가 추구하는 영성이다.

조병호도 초기 한국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 말하며 교회가 성도 개인만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사회와 나라의 구원까지 아우르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였다. 당시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성경의 영향을 받았으며 성경은 한국 기독교 초기부터 많은 영향을 주었다.<sup>38</sup> 이처럼 한국초기 기독교 영성은 성경과 기도를 바탕으로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는 공동체 영성으로 발전하였다.

근대 한국 개신교의 ‘영성’의 변화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약화되기 시작된다. 특별히 신사참배와 같은 기독교 탄압을 당하며 한국기독교 대부분의 영성은 폐쇄해져 갔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오순절 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의 혼란함과 1950년대 한국전쟁의 결과로 이어진 민족적 아픔과 이념갈등 등의 현실 속에서 교회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오순절 계열의 은사주의가 일어났다. 이단시비가 있지만 박태선 장로, 나운몽 장로, 양도천 목사 등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 1960년부터 순복음 교회 조용기

<sup>37</sup> <https://100.daum.net/> 백과사전 승동교회 검색하여 인용

<sup>38</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서울: 통독원, 2009), 160.

목사를 중심으로 오순절 운동은 더욱 확산되었다. 오순절 운동의 문제는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한국기독교가 말씀보다 체험, 성결보다 능력, 고난보다 영광에 몰두하여 일부 교단에서는 극단적 열광주의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전후 복구시기로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경제적 성장과 발전이 목표가 되었기에 교회의 부흥운동의 영성은 자연적으로 물질 축복과 관련된 기복적 영성과 육신 치유와 신유, 기적 등 은사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경제번영과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를 이루었기에 기독교 영성의 흐름은 다시 수도원주의(Monasticism) 영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한국개신교는 도심에서 벗어나 깊은 산속에 수양관과 기도원을 세우고 영성 생활을 하였다.

이렇듯 한국개신교는 한 세기를 지나는 동안 타 기독교 국가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아픔과 함께 성장을 이루며 영성 형성이 이루어져갔다. 이렇게 부흥을 이룬 한국 개신교는 세계선교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외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안타깝게도 질적인 면에서 복음의 영향력과 영성은 쇠퇴(衰退)하였다. 쇠퇴의 원인은 성경보다 현실적 상황과 인본주의적 시대정신이 영성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조는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한국교회의 영성은 마치 사사 시대처럼 영적 혼란함의 시기에 빠지게 되었다.

#### 2.4 포스트모던시대 한국 개신교 영성 형성의 다원화와 통전적 영성의 부재

한국 개신교 영성은 성경과 기도가 중심인 사경회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 폐쇄적이고 봉건적인 나라를 새롭게 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 개신교의 영성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에 대해 조병호는 성경읽기의 편향성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즉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읽어오며 시대적 상황에 맞춰 구미에 맞는 말씀을 취해 읽으며 개신교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양극화는 사상, 이념과 관련된 보수와 진보진영이다. 보수진영은 기독교의 사회적 비판보다는 복음의 선포에 초점을 맞추며 복음서와 서신서를 중요시 여겼고 진보진영은 인권, 복지, 노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배층을 비판하는 아모스나 미가 같은 예언서에 치중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군부 체제 속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의 읽기범위와 이해의 방향이 편향적으로 결정되어 성경을 부분으로 보는 습관으로 굳어졌다.<sup>39</sup> 편향적 성경이해는 시대가 흘러가며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찾았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개신교 영성은 다원화되었다.

조병호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 삶의 전반적인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인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티의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모더니티는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권위로 삼았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탈신비화 작업이 이뤄졌고 17, 18세기에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현상과 인간 존재의 문제 및 사회적 논의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졌다. 그러나 1,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 이성의 한계를 드러내며 합리주의와 이성론에 큰 회의를 갖게 되었고, 자동적으로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로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sup>40</sup>고 보고 있다.

<sup>39</sup> Ibid., 160-161.

<sup>40</sup> Ibid., 123-124. 조병호는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약간 정도의 차이를 인정할 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정석은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 원인에 대해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sup>41</sup> 첫째, 근대에 일어난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가 기독교 신앙을 대체 혹은 수정하고 과학 시대를 열면서 절대 진리가 약화되었고 종교는 세속화되어 결국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불러 일으킨 것, 둘째, 근대 이성주의의 낙관론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철저히 와해되었고 대신 절대주의가 전쟁과 분쟁의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절대 진리에 대한 회의가 확산된 것, 셋째, 식민통치의 종식으로 인해 서구사회의 통치와 우월성이 약화되어 각각의 독립된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들의 민족주의와 전통문화를 부흥 시킨 것, 넷째, 획일적인 절대주의 대신 다원주의적 사고와 문화를 지향하고 다양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 말하였다.

이렇게 태어난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탈근대화 운동으로 먼저 이성의 능력을 거부한다. 이성은 불완전하여 객관적 진리라는 것을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말한다. 또한 권위를 거부하며 과거에 성스러운 것을 속된 것으로 치부한다. 존경과 권위가 상실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미키마우스가 피카소의 작품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판단할 기준(권위)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은 도덕적 상대주의에 따라 행동한다. 그 누구도 개인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며 지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이 도덕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종교적 다원화를 낳았다.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경우 이것은 우상의 복귀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종교는 버릴 수 있어도 종교성은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시대가 더욱 발달되며 영적인 갈증의 공허함은 커지고 자기의 영적 공허함을 채워 줄 수 있는 자신만의 종교를

<sup>41</sup>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서울: 이레서원, 2001), 43-44.

받아들인다. 소위 뉴에이지를 추종한다.<sup>42</sup> 이와 같이 절대적 기준의 상실, 가치의 혼돈, 상황화, 상대화에 따라 행동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고 속에서 기독교 영성 또한 다원화가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종교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sup>43</sup>가 발생하여 종교 간의 일치를 주장하지만 복음주의적 기독교와 대치되었다. 모던시대를 지나 포스트모던시대의 가장 큰 종교적 충격은 ‘절대적 진리의 상실’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교다원주의 사조가 뿌리를 내린 것에 둘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기독교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통전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기독교 신학조류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경재는 종교다원주의를 소박한 종교적 상대주의나 무책임한 종교 혼합주의, 관용성과 종교 사이의 평화를 강조하는 종교적 휴머니즘과는 구별된 것으로 보되 종교적 대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궁극적 실재’에 대하여 반응하고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인간의 신비와 다양성에 근거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sup>44</sup>

이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져 가며 기독교 복음의 통전적 영성은 부재되기 시작했다. 이에 이정석은 포스트모더니즘시대 종교 다원주의 병폐를 지적하며 기독교 복음의 통전적 영성 회복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공하였다.<sup>45</sup> 이정석의 논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기독교 복음의 통전적 영성의 부재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통전적 영성 회복을 위해 첫

<sup>42</sup> 제람 바즈(Jerram Barrs), 『현대문화 속의 전도』 한국라브리번역위원회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2), 18-21.

<sup>43</sup> 다음 위키백과 인용 -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란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를 말한다. 절대적인 진리의 배타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종교철학이다.

•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의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 상호 배타적인 진리가 있음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다.

<sup>44</sup> 김경재, “종교적 갈등 사회와 종교 다원주의,” 『사회이론』 13 (한국사회이론학회, 1995), 17.

<sup>45</sup> 이정석, 『현대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8), 73-75.

번째로 모더니즘이 잃어버린 초월세계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통전적 영성의 부재는 초월성의 부재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사회 현상적인 부분을 강조함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절대자인 초월성을 멀리 한

것이다. 초월성의 부재는 현상과 초월, 자연과 신비, 이성과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여 곧 통전의 영성을 깨뜨린다. 두 번째로 이정석은 성령의 부재에

대해 언급하였다. 모더니즘으로 시작되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연결될 때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에 의한 공동체보다 교리와 제도에 이끌리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 속에 다원화된 기독교는 교회의 태동의

주체인 성령을 소외시켜 통전적 영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의 영역을 약화

시켰다. 성령은 현상세계와 초월세계를 연결하는 하나님이며 교회의 유일한

지도자다. 그런데 이런 성령을 부재시킨 것은 교회의 존재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통전적 영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의 부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셋째 이정석은 이성이 주는 유토피아의 세속적 환상을 버리고 성경적

역사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통전적 영성의 부재 가운데 가장

객관적인 성서적 사고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성서야 말로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가장 균형 잡힌 통전적 영성 형성의 도구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구속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지표가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성경은 인간 이성에 의해

편집된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초월자에 의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경전이다.

따라서 기록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통전적 영성형성을 이루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조 속에

성경을 대하는 신학계의 흐름은 성경을 인류 문화의 산물 중의 하나로 여기며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 개신교의 통전적 영성의

부재 역시 지나온 역사 속에서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시기를 보내며 드러났다. 한국 개신교 선교 약 130년의 역사 속에 개신교 영성 형성의 출발은 번역된 성경에 기반을 두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경제적 풍요와 가치의 변화에 따라 한국개신교는 영성의 기반인 성경의 통전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 결과 현재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이미 상실되었고 한국교회 영성 역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김희권은 통전적 영성을 잃어버린 한국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한국의 생각 깊은 시민 대다수가 한국 교회를 정통 기독교에서 한참 이탈한 이단적·내세적 구원의 기독교 혹은 현세적 기복 기독교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나온 사람들에게 내세구원, 영혼구원, 삼박자축복, 오중복음이라는 애매모호한 마술적 구호를 걸어 집단 최면을 걸어 버림으로써 도덕감, 사회정의감, 측은지심, 수오지심에 민감한 국민의식을 박탈해 버린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반인륜적·반도덕적 확신범에 가깝게 변질된다. 사회정의, 자비정의, 정의한국, 공평한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모든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이 그토록 싸워 몰아낸 영지주의 이단 기독교, 구원과 기독교, 심령주술적 조작 기독교의 후예들이다. . . . 이런 이단적 소종파 교회의 특징은 교회 밖의 더 큰 인류 생존 공동체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삶에 공평과 정의, 자비와 인애의 덕을 고취시켜 세계를 변혁시킬 기상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sup>46</sup>

초기한국교회는 성경과 기도를 통한 통전적 영성으로 개인과 가정을 구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영성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맞물리며 세상의 관심은 물질적 부에 집중하게 되었고 부하게 되는 것을 신앙적으로도 복 받는 삶으로 규정하며 물질 축복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빠른 경제성장과 맞물린 한국교회의

<sup>46</sup> 김민웅 외 4인, 『헤아려본 세월』 (서울: 포이에마, 2015), 187-188.

번영신학은 기독교 영성을 왜곡시켰다.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해온 통전적 영성의 변질과 부재는 교회의 영향력을 상실하며 결국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 3. 통전적 영성 회복을 위한 통성경학교 고찰

조은하는 기독교 영성에 대해 말하며 통전적 영성이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기독교적 삶과 신앙적 삶이 하나가 되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영성, 한 개인의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이 통합되는 영성을 통전적 영성 ‘(Holistic spirituality)이라고 정의한다.<sup>47</sup>

이렇듯 통전적 영성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영성을 의미한다. 21세기 기독교의 발흥을 위해서 필요한 영성은 통전적 영성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 초대교회 기독교의 부흥을 이뤄낸 통전적 영성과 중세 천 년의 마침표를 찍은 종교개혁의 통전적 영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부흥의 통전적 원천으로서의 공통점은 성서에 기반을 둔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e)은 사실 기독교 영성의 원천에 해당한다.

이성희는 “목회는 기술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라는 글에서 현대 목회에 있어서 영성 회복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공통점은 본질을 재형성되는 것이다. 16세기에 일어난 르네상스는 중세시대의 사고로부터 벗어나 본질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다. 이런 이유로 르네상스를 일컬어 근원으로 돌아가는 ‘아드 폰테스’ 운동이라

---

<sup>47</sup> 조은하,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0), 7-8.

고 한다.<sup>48</sup> 이와 동일하게 종교개혁 역시 중세의 시대정신을 끊고 신앙의 근원을 알 수 있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아드 비빌리아’ 운동인 것이다. 르네상스가 인문주의적 시도였다면 종교개혁은 영적 시도였다. 결국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중세의 세상과 단절된 방주 안의 구원에 만족하고 율타리 안에서 고행과 도덕률을 강조하여, 내용보다 교리에 치중했던 당시 중세 풍의 경건의 탈을 벗어버리고 교리로부터 탈출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훈련을 하는 새로운 경건으로 전환하게 했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탈을 벗고 형식의 탈을 벗는 운동이며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영성운동이었다.<sup>49</sup>

기독교 영성 회복을 위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로 성경이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근거와 출처를 두며 성경은 영성의 원천적 자료(primary source)가 된다.<sup>50</sup> 류기중 역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 형성과 증진을 이루는 기독교 영성의 근거라고 하였다.<sup>51</sup> 이처럼 기독교 영성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통전성이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3.1 통전적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영성 형성은 통전적인 의미에서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 동안 개신교의 영성 형성의 문제점은 통전성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통전적 영성 형성이란 정의에 앞서 ‘통전’이란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sup>48</sup> 이성희, “혼탁한 영성시대, 올바른 영성의 길,” 『목회와 신학』 177 (2004년 3월), 55.

<sup>49</sup> Ibid., 55-56.

<sup>50</sup> Leonard Doohan, “Current Trends: Scripture and Contemporary Spirituality,” *Spirituality Today* (Spring 1990) 42/1: 62-74.; Bill J. Leonard, ed., *Becoming Christian: Dimensions of Spirituality Form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32.

<sup>51</sup> 류기중, 『기독교 영성』 (서울: 은성, 1997), 11.



통에 대한 표현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첫째 통(統, Holism)과 둘째 통(通, Tong)이다. 두 통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 차이가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그동안 동과 서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실제 학문적 용어로 쓰이는 통은 첫 번째 의미의 통(統, Holism)이다. 이 이런 의미에 통전이라는 말로 학문화 하였다.

조병호는 그의 저서 ‘통이다 랫츠 통’에서 홀리즘(Holism)의 용어의 시작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홀리즘은 스마츠가 1926년 “홀리즘과 진화(Holism and Evolution)”라는 저서에서 언급한 내용임을 밝히며 그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체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생명현상의 전체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스마츠에 의하면 부분은 아무리 모아도 결국 전체에 도달 할 수 없다.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총합으로서 설명할 수 없으며, 전체는 부분에 선행하고 부분의 상호 관계에 의존하는 동시에 부분을 통제한다고 본다. 화학적으로 비유하자면 홀리즘은 혼합이 아니라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물질이 특정한 화학 반응을 통하여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 3의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 화합과도 같다. 섞이는 물질들을 각각 부분이라고 보고 섞여 있는 상태의 물질을 전체로 본다면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각각의 부분이 모이면 산술적인 합 이상의 전체가 나오게 된다.<sup>52</sup>라고 하였다. 먼저 통전(統全, wholistic, holistic)이라는 용어를 한국 신학계에서 처음 사용한 학자는 이종성이다. 그는 「조직신학대계」 제1권 「신학서론」 제1부 서론과 「통전적 신학」 제1장 “통전적 신학 서설,”에서 ‘통전적 신학(holistic theology)’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였다.<sup>53</sup> 윤철호는 통전(統全, holistic)의 의미를 전체를 아우르고 조화시키고

<sup>52</sup> 조병호, 『통이다 랫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75-76.

<sup>53</sup> 윤철호, “통전적 신학방법론 - 춘계 이종성의 신학 방법론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7 1 (2015,3), 128.

통합한다는 뜻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였다.<sup>54</sup>

‘통전’은 좌와 우, 아래와 위, 긍정과 부정, 개별자와 보편자, 부분과 전체, 특수성과 일반성, 그리고 믿음과 지식과 실천의 해석학적 순환과 변증법적 통합 안에서 구현되는 과정적, 관계적, 역동적 실재이다. 여기에서 통전적이라는 말은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하면서도 획일성(uniformity)을 강조하지 않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의미로서의 통전을 의미한다.<sup>55</sup>

반면 조병호는 통전의 의미를 그의 통신학에서 윤철호가 제시한 통전의 의미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두고 정의하였다. 윤철호는

‘통전’의 의미 속에서 통을 統, holistic로 정의 했지만 조병호는 2006년 12월 차이나 네트워크 연구소(CNI) 1주년 기념 포럼에서 통의 개념을 ‘通, Tong’로 발표하였다.<sup>56</sup> 조병호는 통독성경을 소개하며 통(通, Tong)의 개념을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조병호에 의하면 통(通)이라는 말의 개념은 새로운 사고의 방법을 지칭하기에 번역이 불가능한 용어로서 통(通)은 통(通)이라고 하였다.<sup>57</sup>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은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로써, 하나의 사유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접근 경로를 섭렵하는 인식의 방법이라고 하였다.<sup>58</sup>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 Tong)은 Total, whole 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조병호는 Total과 whole과 Tong의 개념을 비교하며 Total은 통보다는 합에 가까운

<sup>54</sup> Ibid., 128.

<sup>55</sup> 김정훈,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통전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2005), 307.

<sup>56</sup> 이동철, 「통전적 교육이 새 가족 정착에 미치는 영향 연구」(메디슨, 뉴저지: 드루대학교, 2018), 26.

<sup>57</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서울: 통독원, 2007), 69.

<sup>58</sup> Ibid., 44.

개념이므로 Tong의 의미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하였다. 반면 whole의 경우는 부분이 전체 안에서 의미를 가지며, 전체의 의미가 강조된다는 점에서는 Tong과 유사하다고 보았지만 동일시 하지는 않았다.<sup>59</sup> 조병호는 통(通)에 대해 말하길 대상의 속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어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라 하였다. 즉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성, 지식과 실천, 부분과 전체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봄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한다고 하였다.<sup>60</sup>

조병호가 말하는 통의 개념은 ‘통하다’라는 한국적 개념의 인식 속에 사람과 사물,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 혹은 그 말의 대상이 복수도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어떤 특정한 대상 또는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 전 문화적인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한다.<sup>61</sup> 조병호는 통의 개념을 동서양의 사고 구조 이해 속에서 동양의 전체적인 사고와 서양의 분석적인 사고를 유기체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라고 했다.<sup>62</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도 통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며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스위트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야기<sup>63</sup>를 꺼냈다. 교황은 동양과 서양을 폐로 비유하며 반드시 두 개의 폐로서 숨을 쉬어야 건강하듯 동양과 서양이 하나로 묶여져야 한다고 하였다. 레너드 스위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sup>59</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서울: 통독원, 2007), 70.

<sup>60</sup> Ibid., 85.

<sup>61</sup> Ibid., 26.

<sup>62</sup> Ibid., 55-57.

<sup>63</sup> John Elya, “May They Be One; When the Two Strong Men MeetQ,” [http://sites.silaspartners.com/partner/ArticleDisplay page/0, PTID5339%7CCHID28%7CCIID158364,00,html](http://sites.silaspartners.com/partner/ArticleDisplay/page/0,PTID5339%7CCHID28%7CCIID158364,00,html), (2006년 4월 5일 접속) - 김영래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교회의 재정향 “영적 CPR” 글에서 재인용함, 247페이지 각주

만약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하나의 페로서의 정체성, 즉 서구 문명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 왔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두 개의 종이 동시에 소리를 내는 것처럼 감성적이고 영적인 즉, 통진적인 성향을 가진 동양으로부터 또 하나의 페를 가져와 완전한 호흡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sup>64</sup>

이것이 조병호가 말하는 통이다. 중심성이 해체되고 모든 대상을 상대화하여 파편화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서로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나뉘지고 특성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묶어내는 방법을 통(通)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通)은 ‘서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로 묶어내는 방법’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조병호는 통(通)이 바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묶어낼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조병호는 통(通)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상수’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65</sup>

조병호는 통(通)의 방법론을 그의 저서 ‘통이다 렛츠 통’에서 5가지로 설명하였다.<sup>66</sup>

첫째,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것’ 즉 전체와 부분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해해야 하며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것처럼 봐야 됨을 의미한다.

둘째, ‘분리된 개체 속에 부여할 수 있는 공통특성을 찾는 것’으로 여기에서 분리된 개체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일컬어지는 파편화된 존재양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파편화된 존재양식들이 존재하지만 통의 방법으로 공통된 특징을

<sup>64</sup>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245-246.

<sup>65</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서울: 통독원, 2007), 85.

<sup>66</sup> Ibid., 89-99.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양한 악기의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음악을 내기 위해서는 ‘기준 음’이 필요한 것과 같다. 바로 이 ‘기준 음’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것이 통(通)의 기반이 된다.

셋째, ‘극단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것’으로 모더니즘 사고에서는 양극단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인 영역이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통의 방법은 양극단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연관성, 상보성, 상호작용성을 발견하고 창조적으로 발전하도록 아울러 내는 것이다.

넷째, ‘하나의 현상에 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어떤 하나의 존재는 여러 각도에서 인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각도는 방향, 관점, 방식 등의 인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꽃 한송이를 보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보면 꽃의 존재를 획일성이 아닌 총체적으로 꽃 한송이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다섯째로 ‘Text와 Context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 Text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 요소이지만 Context의 상황 속에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꽃이 Text라면 Context의 상황마다 꽃의 향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계를 통(通)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의 개념에서 유출된 통전적이라는 말은 윤철호와 조병호가 언급한 두 개념을 모두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전적이라는 말은 부분적이 아니라 우리 삶과 관계된 전 영역(text, context)의 총체적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개념의 포괄적 의미로 모든 것을 품고 아우를 수 있는 조병호의 통(通, Tong)으로 통합하여 통전적(通全的) 영성형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통전적 영성형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원천적 자료는 이미 성경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중심주제에 해당하는 원천자료(primary

source)인 성경을 통(通, Tong)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통진적 영성형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3.2 통성경(TB)이란 무엇인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 비텐베르크 대회에서 아시아 대표 강연자로 나선 조병호는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통통성경(TONG BIBLE)을 소개하여 다음과 말했다.<sup>67</sup> “우리는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물론 성경으로!” 그리고 강연을 마칠 때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와우~”의 탄성과 박수를 함께 보냈다. 그 시간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위대한 선언을 하였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금 21세기 종교개혁자들인 우리는 이렇게 다시 외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오직 모든 성경을, 오직 모든 민족이, 오직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부터, 오직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sup>68</sup>

조병호가 말하는 통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통(通)신학을 이해해야 한다. 조병호는 ‘통신학’에 대해 말하길 ‘통(通)’과 ‘통(通)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해석의 새로운 방법론임을 자처하며 여러 가지 관점(상보성, 유기성, 계열성)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성경의 진리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 통(通)신학이라 하였다.<sup>69</sup>

<sup>67</sup> 조병호, 『통통 바이블』 (서울: 통독원, 2017), 44.

<sup>68</sup> Ibid., 67-68.

<sup>69</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2), 48.

조병호는 통(通)신학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전체적 사고’와 ‘부분적 사고’ 혹은 ‘종합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조화뿐만 아니라 부분과 전체는 물론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정, 지식과 실천, 등의 양립하는 두 영역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sup>70</sup>

기독교의 통전적 영성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영성의 원천자료(primary source)인 성경을 통(通)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일명 통성경(Tong Bible)이다. 이런 조병호의 통 신학(Tong Theology)은 그 동안의 신학적인 성경해석학과 달리 통(通)의 방법으로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해석하는 새로운 성경해석학이다. 이런 차원에서 조병호의 통성경과 통신학은 세계적인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을 통의 관점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로 보기 위해 통성경 해석을 위한 3가지 통의 방법을 제시하였다.<sup>71</sup>

첫째, 시간 · 공간 · 인간을 통(通)으로  
 둘째,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通)으로  
 셋째, 제사장나라 · 5대제국 · 하나님나라를 통(通)으로

먼저 시간 · 공간 · 인간을 통(通)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모든 존재는 이 세 영역을 떠나 홀로 존재 할 수 없다. 이 세 영역은 서로 상보적, 필연적 관계 속에 총체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 세 영역을 통으로 해석하기 위해선 역사, 문화, 언어와 과학 등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성경에 대해서도 역사적, 해석학적

<sup>70</sup> Ibid., 50.

<sup>71</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서울: 통독원, 2020), 10-11.

지식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시간의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그의 통신학에서 제시하고 있듯 성경의 중요 개념인 날(안식일, 안식년, 희년), 절기(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의 성경의 핵심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성경의 시간 속에 그에 맞는 공간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과 공간의 총체적 의미를 알고 해석해야 한다. 이런 구조 속에 성경사건을 3차원적으로 입체화시키는 성경해석이 통성경 해석법이다.

마찬가지로 개인·가정·나라 이야기와 제사장 나라·5대제국·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 연관하여 통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을 통(通)신학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의 갈대상자 이야기’를 조병호가 언급한 통성경 해석으로 예를 들어 인용해 본다.

모세가 태어난지 3개월째 되던 시점에 갈대상자에 놓은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며 망을 봄으로써 완벽하게 뜻이 잘 맞는 화목한(?) 모세의 가정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렇다면 문제 없는 가정에서 어린 모세가 죽을 확률 99,9%인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 강에 띄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히브리 민족이라 불릴 만큼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sup>72</sup> 우리는 단순히 ‘모세의 갈대상자’를 생각할 때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한다. 즉 아기를 태운 갈대상자가 나일강에

---

<sup>72</sup> Ibid., 11.



떠내려갈 때 최종 악어 밥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며 아슬아슬한 장면만을 연상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고정관념에 묶인 해석이다. 모세의 갈대상자 이야기는 시간·공간·인간 이야기, 개인·가정·나라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 나라·5대제국·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큰 틀에서 통합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 세 관점을 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통성경이다. 조병호는 통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쉽게 풀어 가르치기 위해서 그 동안 연구한 모든 것을 집대성(集大成) 하여 통성경 포플러(formula)<sup>73</sup>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선포하였다. 성경전체의 이야기를 통의 관점으로 원 스토리로 볼 수 있고 다음세대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식화(圖式化)시킨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통전적 영성회복을 위해 통성경의 의미와 이를 전달하는 통성경교육 즉 통성경학교의 영향력에 주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성경의 의미는 한마디로 통전적 성경해석을 통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라는 고백을 다음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세대와 만나세대가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세대가 있었다. 그리고 에스라 시절 포로귀환세대가 있었다. 하나님이 쓰신 세대의 특징은 ‘제사장나라와 하나님나라’ 를 아우르는 통전적 영성이 형성된 세대들이다.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세대의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해 21세기엔 ‘통성경세대’ 가 필요하다. 바로 통성경은 성경회복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가장 건강한 영성 형성의 원천이 된다.

<sup>73</sup> 조병호는 1989년부터 시작한 성경통독 방법론과 아울러 통성경학교 운영을 위한 지도자 양성 과정인 렉처리코스 강사 교육법을 통(通)으로 묶어 수학이나 화학의 공식처럼 도식화하여 통성경 교육 방법론인 통성경 포플러를 만들었다. 이에 2014년 11월 27일 경기도 가평 통독원에서 창립 25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통성경 포플러를 하나님께 봉헌하며 선포식을 가졌다.

통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다음세대에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영성을 회복시켜 인간의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삶의 지침이다. 성경의 회복은 곧 인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김영래 교수 역시 성경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래교회 부흥, 교사 신실한 사역에 달려’라는 제 4회 성결교사대회에서 교회의 미래를 위한 목회와 교육에 대한 강연에서 “인간의 회복, 즉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을 회복하는 핵심적 목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sup>74</sup>

어떻게 하면 성경회복을 위해 단편적, 획일적, 파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통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을 통으로 볼 때 가능해진다.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포물러화 하여 배우는 과정이 조병호의 통성경학교이다.

### 3.3 통성경학교(TBS)란 무엇인가?<sup>75</sup>

조병호는 성경 66권을 파편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담아내어 공부하는 것을 통성경학교라 하였다. 그리고 통성경 학교의 미션<sup>76</sup>을 이루기 위해 통전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다. 조병호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sup>74</sup> 김영래, 『미래교회부흥, 교사 신실한 사역에 달려』(기독교 헤럴드, 2012),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제4회 성결교사대회에서 강의한 내용을 기독교 헤럴드 신문(www.cherald.co.kr)에서 인용

<sup>75</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서울: 통독원, 2020), 4-5.

<sup>76</sup> 조병호는 통성경학교의 미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통성경학교 미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

통성경학교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통성경학교의 비전은, 모든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성경을 체험하고 성경으로 행복해지는 패밀리 스쿨이 되는 것입니다.”<sup>77</sup>

조병호는 통성경학교의 방법론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 동안 연구해온 통성경을 학습하기 좋게 포뮬러(formula)화 하였다. 포뮬러화한 통성경을 바탕으로 성경말씀을 요절이나 구절이 아닌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내어 그 하나의 이야기를 7개의 주제로 공부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체계화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십자가 원 스토리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가르칩니다.
- 둘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 셋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 넷째, 성경을 통통한 기도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 다섯째, 성경을 통통한 전도 이야기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 여섯째, 성경을 통통하게 하며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르칩니다.<sup>78</sup>

조병호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방법론을 체계화하여 교육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66권을 파편화하지 않고 말할 수 있고, 부모들은 가정에서 통성경 학교를 통해 자녀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주는 통성경 스토리텔러가 되며, 이를 통해 자라난 자녀들은 ‘모든 성경은 언제나 굿 뉴스(The Whole Bible is always Good News)’ 입을 고백하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

하여 광야 40년 로스쿨을 이루어 만나세대를 가르친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알고 자녀에게 계시의 책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통성경학교 패밀리 스쿨이라 하였다. 이를 통해 5세부터 20세까지 부모에게 성경을 배운 자녀들이 20세가 되어 각계 각층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sup>77</sup> Ibid., 4.

<sup>78</sup> Ibid., 5.

통성경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아울러 이 꿈이 모든 나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통성경세계화’를 위해 학계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독일 비텐베르크 대회 강연<sup>79</sup>과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Global Church Network)<sup>80</sup>를 들 수 있다.

### 3.3.1 통성경학교의 성서적 근거

통성성경학교의 성서적 근거를 논하기 앞서 통성경학교의 역사는 성서와 함께 살아온 유대인의 교육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시각을 따라 살아온 민족이 아니라 청각에 집중하여 살아온 민족이다. 랍비 조너선 섉스<sup>81</sup>는 기원을 다루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의 기록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근원을 들음의 감각을 잃고 보암직하게 보여지는 시력에 이끌려 행동한 것에서 죄의 개념을 규정하며 타락의 근원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설명하였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것은 인간의 원형적 선택, 즉 그들의 눈이 본 것(선악과나무와 열매)과 그들의 귀가 들은 것(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고 그들은 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것은

<sup>79</sup>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아시아 대표 강연자로 세워져 성경에 대한 주제를 강연하며 통성경을 선언(Declaring Tong Bible)과 통성경학교를 소개하였다.

<sup>80</sup> 글로벌 처치네트워크(Global Church Network)는 2002년 세계 유력한 신학자들이 모여 교회 회복을 위해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현재 2,400개 이상의 교단들과 56만여 개의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7개 사역훈련 트랙으로 구성(7개트랙 - 설교, 가르침, 치유, 이야기, 예술과 상상력, 그리스도인의 형성, 문맥 기호학, Gcds tv(Global church divinity school), 최근 2022년 11월 8일(화)-10일(목) 필리핀 Word of Hope 교회(데이빗 소브레피나 목사)에서 아시아 대회가 열렸다. 이곳에서 조병호는 세계최초로 성경전체를 10분에 말할 수 있는 “10 minutes Movement” 선언을 통해 신선한 충격과 함께 통성경 세계화를 현실화 시켰다. (<https://blog.naver.com/shallom2778/222989535740>) 기사인용

<sup>81</sup> 랍비 조더선 섉스(Jonathan Sacks, 1948-2020), 철학자이며 성서주석가로서 영국연방 연합히브리회중의 최고랍비(1991-2013)와 랍비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고 2016년에 템플턴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5년에는 영국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죄의식’ 이 아니라 ‘수치심’ 이라 말하며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의 한 형태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잘못된 형태의 지식이라고 하였다. 유다이즘은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이고 유다이즘의 윤리는 외면, 명예, 수치심의 윤리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윤리라고 하였다. 그는 “유대인의 영성은 귀를 기울이는 기술이다.” 라고 하였다.<sup>82</sup>

이런 유다이즘에 근거해 그들의 교육은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

유대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겠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 고백을 자식들에게 교육한다. 바로 구약성서에서 소개된 쉘마(신 6:4-9, 11:13-21, 민 15:37-41)를 가르친다. 랍비 조너선 섉스는 유다이즘에서 가장 유명한 명령은 “들어라 이스라엘”(Shema Yisrael)이라고 하였다.<sup>83</sup>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경건한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이 말을 하자마자 이 쉘마의 노랫말을 가르친다. 쉘마는 고대 이스라엘부터 현재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유대 신앙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왔다.<sup>84</sup>이 위대한 여섯 마디 쉘마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유대인의 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알려진 쉘마’의 가르침은 모세오경의 신명기와 민수기가 중심이 된다. 특히 신명기 6장 4-9절<sup>85</sup>과 신명기 6장 13-21절<sup>86</sup>과

<sup>82</sup> 랍비 조너선 섉스, 『매주 오경읽기 영성 강론』 김준우 역 (경기: 한국기독교연구원, 2022), 31-37.

<sup>83</sup> Ibid., 36.

<sup>84</sup> 로이스 티어베르그, 『랍비 예수』 손현석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8), 39-41.

<sup>85</sup> 개역개정 성경 신명기 6장 4-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계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sup>86</sup> 개역개정 성경 신명기 6장 13-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진노하시라 너를 지면에서

민수기 15장 37-41절<sup>87</sup>은 유대인 교육의 성서적 근거가 된다.

유대인들은 이런 성서적 근거를 근본으로 하여 자녀에게 부지런히 토라를 가르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영성)을 심어주었다. 이런 성서에 바탕을 둔 유대인의 교육은 잘 훈련된 랍비들에 의해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의해 실시된다. 주로 유대 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여성은 집에서 배움) 연령에 따라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었다. 5-6세부터 10세까지는 Bet Sefer(벵 세페르)과정으로 토라(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한다. 다음단계로 10세부터 13세까지는 Bet Talmud(벵 탈무드)과정 벵 세페르에서 선발된 아이들이 토라와 히브리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공부하되 암기와 토론(질문)의 방식으로 학습하였다, 소위 하브루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13세에서 16세/18세를 대상으로 Bet Midrach 과정의 심화 연구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교육받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일 경우 18세가 되면 결혼을 하거나 가업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이들 중 뛰어난 아이들은 랍비의 개인지도를 받게 된다. 이 과정은 18세에서 30세의 연령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마쳤을 경우 약 30세가 되면 랍비가 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때 랍비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sup>88</sup>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관된 교육방식이며 구약성서의 모세에 의해

---

떨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sup>87</sup> 개역개정성경 민수기 15장 37-4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sup>88</sup> 2022년 드루 디민 과정 가을학기 중 ‘예수 회복’ 에 대한 김영래 교수 강의에서 인용(2021년 7월

교육된 로스쿨과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며 회당교육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다.

모세에 의해 주도된 로스쿨(law school)<sup>89</sup>인 성경교육은 부모와 선지자들에 의해 전수되었고 포로기 이후 회당<sup>90</sup>이 세워지며 랍비들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교육이 이어졌다. 포로기에 만들어진 회당은 희생제사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고심해야 했다. 그래서 형성된 곳이 회당이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남자 10명이 구성되면 세울 수 있었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회당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고국에 수 많은 회당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의 기능을 하게 하였다. 예수님도 이런 배경 속에 유대교육을 받으며 랍비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아 제자를 불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으며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였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살아남아 세계역사의 흐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교육을 들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는데 이런 선견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유대인 학자 중 랍비 예호슈아 벤 감라의 통찰로서

---

27일 강의 내용)

<sup>89</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33.

조병호 박사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쉼교육을 아래와 같이 ‘모세의 로스쿨’ 이라고 불렀다.

“모세의 로스쿨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직 20세를 넘기지 않는 청소년들, 그리고 사막에서 새로 태어난 아가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자신이 직접 쓴 책을 교과서로 하여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로스쿨을 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교육시켰습니다.”

<sup>90</sup> George Foot Moore, *Judaism in the First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a*, 283. 권혁승,

“회당의 기원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13 (2002년), 100에서 재인용.

하진영 박사는 ‘지역교회에서 통통성경학교의 목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미국 드루 디민 논문, 2018)에서 회당에 대한 무어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회당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포로 된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비롯한 그 외의 다른 포로지에서 안식일이나 중요한 명절, 혹은 금식일 등과 같은 특정한 날에 자발적으로 모여 이방 세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상호 간에 확인하고 회복의 날이 오기를 격려하는 모임을 통해 회당이 태동하였다고 보는 견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추정이다.”

1세기에 이미 세계 최초로 보편적인 의무교육 체계를 세운 것은 놀라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라반 요하난 벤 자카이의 믿음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혁명적 수준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유대민족의 존폐의 위기 앞에 그의 믿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유대인의 독립, 땅, 성전을 잃은 상태에서 유다이즘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학자들의 아카데미와 학문의 문화를 이어나가는 길뿐임을 알고 성전의 고수(固守)보다 제국의 식민지를 받아들이며 조건적으로 유다이즘을 계승시킬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하였다.<sup>91</sup>

이렇게 성서를 바탕으로 패밀리 스쿨을 이룬 유대인의 성경교육은 디아스포라 약 200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세상에 동화되거나 혼합되지 않고 유대인의 영성을 지켰으며 전체 민족 안에 동일한 영성형성을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조병호의 통성경학교의 근거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의 교육방식으로 이어진 모든 가정마다 성경을 교육하는 패밀리스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성경학교의 성서적 근거 중 구약적 근거는 시대별 다음세대교육과 절기를 통한 교육을 들 수 있다. 시대별 다음세대 교육으로 그 첫 번째는 출애굽세대와 만나세대를 위한 교육이다. 이것은 모세오경 속에 나타난 모세의 로스쿨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교육은 다음세대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명령한 웨마<sup>92</sup>의 가르침에 기본 바탕을 둔다. 웨마로 알려진 대표적인 구약성경은 모세오경의 신명기 6장과 민수기 15장 말씀에 있다.<sup>93</sup>

<sup>91</sup> 랍비 조더선 섹스, 『매주 오경읽기 영성 강론』 김준우 역 (경기: 한국기독교연구원, 2022), 40-41.

<sup>92</sup> 신명기 6장 4-9절, 11장 13-21절, 민수기 15장 37-41절의 3개의 성서 본문으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지침으로 이것은 개인기도와 더불어 유대인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요소이다. 신 6:4 의 첫 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에서 유래한다.

<sup>93</sup> 웨마로 알려진 성경은 신명기 6장 4-9절과 신명기 11장 13-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41절에 해당한다.



모세오경의 분위기 이지만 역사서로 분류되는 여호수아도 성경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출애굽세대를 이어 만나세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성경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하고 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sup>94</sup>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에 해당하는 선지자겸 제사장인 사무엘은 만나세대가 끝나고 미스바세대를 세운다. 그들을 세우고 사무엘은 약 20년 동안 제사장나라 회복을 위해 벤엘, 길갈, 미스바와 라마를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벤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sup>95</sup>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4-9)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신 11:13-21)

<sup>94</sup> 개역개정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인용

<sup>95</sup> 개역개정 성경 사무엘상 7장 15-17절 인용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쉼마 뿐 아니라 역사서와 시가서, 선지서(예언서)를 포함한 구약 성경전체의 메시지 안에는 제사장 나라를 위해 모든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함을 명령하고 있다. 솔로몬 왕 역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데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sup>96</sup> 에스라,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후 돌아온 포로귀환세대들에게 신앙개혁과 영성회복을 위해 에스라관 통성경학교를 실제로 실시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라와 므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니<sup>97</sup>

<sup>96</sup> 개역개정 성경 잠언 22장 6절 인용

<sup>97</sup> 개역개정 성경 느헤미야 8장 1-9절 인용

통성경학교의 구약적 근거 중 세대별 교육 외에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절기를 통한 성경교육을 들 수 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켜야 할 절기이다. 절기는 세리모니(ceremony)차원으로서도 자녀를 교육하기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절기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어우러져 의식을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를 통해서 성경교육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절기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민족이 해마다 지켜야 되는 명절로서의 제사로 7대절기<sup>98</sup>가 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3대절기에 해당하는 유월절(무교절), 칠칠절(오순절), 초막절(장막절)은 이스라엘에 속한 성인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절기였다.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절기를 지키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sup>99</sup>

절기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되 ‘유월절은 출애굽 하기 전 그날

<sup>98</sup> 개역개정 성경 민수기 23장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에 관한 7대절기가 언급되어 있다.

<sup>99</sup> 개역개정 성경 신명기 16장 14-16절 인용

구별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구별되었다는 것과 레위인의 성막 봉사와 속죄함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짐을 알게 하였다.’<sup>100</sup> ‘칠칠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이후 오십일째 되던 날에 주어진 절기로서 유대인들은 이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부여하신 날로 기념하여 말씀에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끝으로 ‘초막절(장막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온 가족이 칠일 동안 초막에 거주함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새기는 절기이다. 이날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게 되었다.’ 이처럼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제사장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을 배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동시에 배우는 현대판 통성경학교를 위한 의무교육과 같았다.

성서적 근거에서 구약에 이어 신약에서도 현대판 통성경학교와 같은 성경교육은 지속되고 있다. 특별히 구약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회당<sup>101</sup>과 서기관<sup>102</sup>은 구약배경의 역사적 근거이지만 이 두 직책에 대한 언급은 신약성경 안에

<sup>100</sup>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민 8:18-19)

<sup>101</sup> 회당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 포로기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점으로 작용하였다. 낫선 이방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유대인들은 회당(synagogue)을 만들었다. synagogue는 syn(함께)과 ago(인도하다. 데려가다)의 합성어다. 회당은 유대성인 가장 10명이 모이면 어느 곳이든 세웠다. 회당은 주로 예배와 교육을 하였고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주로 진행했다. 어린아이들은 주간 회당에서 구약성서를 읽고 성경쓰기를 배운다. 6살에 모세오경, 쓰기, 수학을 배우고 10살에 미취나, 15살에 가마라를 배웠다. 때론 지방 법정으로도 사용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약 480여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한다. 회당의 구조를 보면 성경학교와 함께 기도가 동시에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회당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방은 기도와 설교. 공중예배를 위한 공간이고 다른 한방은 배운 사람들의 모임 종교와 훈련에 관한 질의응답, 교육을 목적으로 한 방이다.

<http://parklanda.tistory.com/> 영성을 위한 기독교 자료 - 회당(Synagogue)의 이해에서 인용

<sup>102</sup> 서기관은 구약시대 때부터 존재하는 직책으로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문명에서도 세분화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기록과 보존이었다. 이스라엘의 서기관은 행정업무와 함께 성경필사도 하였다. 유대인들은 모세, 엘리야도 서기관으로 믿을 정도로 서기관의 직책

들어있는 성서적 근거의 대표 기관과 직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포로기에 세워진 회당은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통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성경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기관들은 매 안식일 마다 이곳에서 가르치며 교육하는 통성경학교의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서기관들은 신구약 중간기를 보낸 유대민족을 제국으로부터 보호하고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쳤다. 이것은 성경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이런 역사적 전통은 복음서에서 발견된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sup>103</sup>

여기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같지않게 회당에서 성경을 정확히 가르치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은 후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

은 중요했다. 서기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었고(대하 34:13, 스 7:12) 유다 가문에도 있었다. 후엔 서기관 직분이 가족을 통하여 ‘서기관 종족’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대상 2:55) 이스라엘 역사에서 서기관은 왕궁과 성전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종교의 전반적 기능에 가담하였다. 열왕기상 12장 10절이 좋은 예이다. 왕의 서기관이 대제사장과 더불어 성전 재산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들을 양성하는 서기관 학교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유는 이스라엘민족이 성전이 불타고 없어진 이후 ‘희생제사’ 대신 ‘율법연구’의 전통이 크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서기관의 삶에 대해 분명해지는 것은 에스라 때이다 BC 458년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에스라가 주도하는데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서기관, 스 7:6),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서기관) 겸 제사장(스 7:12)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서기관의 역할을 볼 때 책의 민족인 이스라엘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 류석관 교수(대한신대 신약신학)의 「이스라엘과 성경 11-2」 서기관(Scribe)은 누구인가? 에서 인용

<sup>103</sup> 개역개정 성경 마가복음 1장 21-22절 인용

하나님의 말씀(복음)을 가르치고 지상명령으로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sup>104</sup>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은 모든 성경(통성경)이 무엇인지 일찍이  
깨우친 사람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 구약성경을 통으로 보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회심하였다. 이후 모든 성경을 통해 제사장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달은 사도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며 모든 성경을  
가르치며 다녔다. 대표적인 예가 3차전도 여행 시에 가졌던 두란노 사역이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2년 이상을 머무른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sup>105</sup>

바울은 옥중에 거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sup>106</sup> 디모데 역시 통성경을 배우며 자란 대표적인 사람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며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묘사한다.

<sup>104</sup> 개역개정 성경 마태복음 28장 18-20절 인용

<sup>105</sup> 개역개정 성경 사도행전 19장 9-10절 인용

<sup>106</sup> 개역개정 성경 빌립보서 4장 9절 인용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sup>107</sup>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듯 부모가 먼저 깨닫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가장 큰 비전으로 교육한다.<sup>108</sup>

신약성경의 유일한 예언서로 알려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요한은 복음  
1세대가 다 죽고 복음 2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편지  
서두와 말미에 기록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sup>109</sup>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sup>110</sup>

이렇듯 성경 전반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 무수히

<sup>107</sup> 개역개정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17절 인용

<sup>108</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142-143.

조병호 박사는 성서에 기반을 둔 유대인의 패밀리 스쿨이 현재에도 탁월한 교육방식임을 아래와 같  
이 천명했습니다. “3,500년 전 모세가 제안했던 <Family School> 은 3,5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에도 가장 윗등한 교육이라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나라들과 제국들은 멸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들은 건강하게 살아 숨 쉬고 있고, 영원히 가정은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up>109</sup> 개역개정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 인용

<sup>110</sup> 개역개정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19장 인용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성경의 성서적 근거는 성경전반에 흐르는 가르침이다. 조병호는 이런 통성경학교의 성서적 근거를 말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신 웨마 교육이 어려서부터 시작될 것을 강조하는데 적어도 5세부터 시작해야 함을 주장했다.<sup>111</sup>

### 3.3.2 통성경학교의 신학적 근거

근대 모더니즘의 사고는 감성과 신비보다는 이성을 따라 사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삼았지만 근대 이후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터부시 되어오던 감성과 신비를 이성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의 부흥은 모더니즘의 철학사조 속에서 정립된 신학을 바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은 교회의 존립을 흔드는 반 기독교적 사조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지탱해온 서구의 이성신학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해 감성과 신비의 영역이 커지면서 기독교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이성과 감성을 둘로 이원화하여 분리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이성과 감성의 상보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병호는 바로 이렇게 나뉜 두 사상을 하나로 균형있게 묶는 것을 ‘통(通)’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성과 감성을 서구의 계약정신과 동양의 관계정신으로 이해하며 두 정신을 통(通)으로 보고 이성적

<sup>111</sup> 어려서(*infancy*)부터라고 기록되는데 흔히 유아기에 해당하는 5세정도의 나이로 본다. 이에 조병호는 이 시기부터 통성경학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신학과 감성적 신학이 서로 상보성을 갖춰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통성경의 신학이다.<sup>112</sup>

이런 신학방법론을 조병호는 “성경통독과 통신학”에서 잘 정리하여 통성경의 신학적 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하였다.<sup>113</sup>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관계성을 파악하여 마침내 여러 관점에서 대상의 여러 상황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사고하는 방식이다. 통(通)의 총체적 결론은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짓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14</sup> 이렇게 형성된 통성경의 신학은 성서에 바탕을 둔 가장 복음주의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통전적 학문으로 종교개혁의 중심 모토(motto)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친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한다. 이렇게 계승된 개혁신학은 통전적 영성형성을 이루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동참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는 실천신학으로 이어진다. 조병호는 말하기를 통성경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 속에서 성경을 이원화하지 않고 통전적이고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통성경의 유일한 신학방법을 통(通)신학이라고 하였다.

성경 66권에 ‘통(通)’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통(通)으로 보다’라는 경전해석의 방법론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성경의 내용을 보되 획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오히려 수용하여 여러 가지 관점과

<sup>112</sup> 조병호, 『통이다 댁츠 통』(서울: 통독원, 2009), 219-220.

<sup>113</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서울: 통독원, 2012), 44-45. “성경통독과 통신학”에서 밝히고 있는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의 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할 때 새로운 사고와 인식의 방식으로 하나의 사유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접근 경로를 섭렵하는 인식의 방식이다.

<sup>114</sup> Ibid.

경로와 방식에 따라 성경의 기록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바로 통신학의 대표적인 방법론으로서 통시적(通時: diachronic)관점 성경읽기와 공시적(共時: synchronic)관점 성경읽기를 들 수 있다. 통신학은 이 두 관점을 통합하여 성경을 보는 새로운 해석방법이다. 조병호가 말하는 통신학의 관점에서 말하는 공시(共時)라는 것은 동일한 시간 영역에 들어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가로축을 의미하고, 통시(通時)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연속된 시간의 흐름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세로축에 해당된다. 이 두 관점을 상보적으로 통합하되 여러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성경의 신학방법론이다. 예를 들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하자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징계하되 마지막 단계인 수탈의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고 예루살렘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때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위해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다.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스바냐, 하박국 등의 선지자가 활동하였다. 이렇게 비슷한 시기의 일과 사건, 그리고 인물들을 동시에 살피는 것을 공시(共時)라고 한다. 반면 무너진 예루살렘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선 BC 1500년 전 모세의 성막으로 시작하여 다윗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건축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 시기 무너진 솔로몬 성전과 또 포로시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준 새성전환상 그리고 바벨론 포로귀환 후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과 느헤미야를 통해 완성된 성벽재건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사장나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사건에 관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더 나아가 미래의 일까지 통으로 보는 시각을 통시적(通時的)관점이라고 한다. 이런 성경해석 방법론을 통해 가장

복음적이고도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신학이 바로 통성경의 신학이다.<sup>115</sup>

성경을 통으로 보지 못하고 권별주의나 요절주의에 묶일 때 그 단편적인 성경해석은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에 큰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에 속한다. 바른 신학은 바른 신앙과 바른 영성을 형성한다. 성경을 가장 바르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이 바로 통성경의 통신학이다.

이처럼 통(通)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써 ‘대상이 지닌 본질적인 속성을 다양한 관점으로 두루 섭렵하여 파악하는 것’, ‘여러 대상 간의 핵심적 상보성을 찾아 총체적인 입장에서 유기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통(通)신학은 서로 다른 방식의 성경읽기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론을 균형적 입장에서 견지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sup>116</sup>

### 3.3.3 통성경학교의 공동체적 근거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그 중 하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개인주의적이라는 사실이다.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한 개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제는 나라의 정책도 기업의 상품도 그리고 심지어 사회 윤리도 개인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시대에 성경은 공동체회복을 담고 살아가야 함을 설파(說破)한다. 21세기 이것을 추구하는 신앙운동이 통성경학교운동이다. 하나님은 개인을 창조하지 않고 공동체를 창조했다. 첫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말하듯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며 아브라함을

<sup>115</sup> Ibid., 48 -49.

<sup>116</sup> Hyeok Jin Kwon, “Tong Bible Program for Young Adult Ministry: *A Study of Saesoon Church, Changwon, Korea,*” 25. (드루대학교 2018, 5)

열방의 아버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민족과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sup>117</sup>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성경은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임을 밝혀주고 구원하기까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경도 공동체적이며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받는 대상들도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통성경학교의 공동체적인 근거는 성경의 교육방식인 패밀리 스쿨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성서적 근거인 쉼교육이 곧 공동체적임을 말한다. 5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움직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40년간의 출애굽 세대와 만나세대들이 대표적이다. 조병호는 이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민족 전체가 배우는 로스쿨의 시간으로 이야기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까지는 이런 공동체성이 유지되었지만 여호수아 사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며 그들은 공동체성을 잃어버린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sup>118</sup>라고 하였다. 이때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 말하며 가정과 민족과 나라가 위기를 맞은 사사시대로 부른다. 사사시대

<sup>117</sup> 개역개정성경 창세기 12장 1-3절 인용

<sup>118</sup> 개역개정 성경 사사기 17장 6절 과 사사기 21장 25절 인용

말기 사무엘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데 등장한 세대가 미스바세대이다. 이들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동력을 얻게 된다. 이처럼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모든 민족을 향한 공동체성은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공동체가 위기를 맞았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꼭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교육이 실패했을 때이다. 이런 패턴은 분열왕국시기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개인과 가정과 모든 민족을 하나로 보며 처음부터 패밀리 스쿨을 명령하였다. 조병호는 패밀리 스쿨의 기원을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20세 이하 청소년들을 가르친 것에서 찾는다. 조병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보자.

모세가 드디어 60만 명의 제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놓고 로스쿨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그 축사는 지난 40년의 교육을 뛰어넘는 또 다른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서 <Family School>을 ‘OPEN’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 약 23,000개의 가정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23,000개의 <Family School>을 열라고 했습니다.<sup>119</sup>

유월절에 살아남은 히브리 장자들의 23,000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이 열렸다는 조병호의 통찰은 참으로 놀랍다. 조병호는 패밀리 스쿨의 구체적인 실체를 성경 안에서 찾아냈는데 이스라엘의 패밀리스쿨은 5권의 이야기 책 곧 모세 5경을 교재로 사용하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암송하여 이야기 식으로 전하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이런 성경 암송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로 알려주듯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는 중세시대에 모든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sup>119</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20), 38.

전달하려고 성경을 암송하여 가르친 적이 있다. 2013년 초연된 작품으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sup>120</sup>을 관람한 적이 있다. 이 뮤지컬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100년 전 중세 암흑기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존 위클리프(John Wyclif)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로 알려진 플라드파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없는 시대였다. 번역 자체가 금지되었고 번역할 경우 극심한 탄압과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카톨릭의 부패와 극심한 탄압분위기 속에서도 개혁자들은 당시 지배계층인 사제들의 전유물로 치부되고 있던 성경을 서민들의 손에 들려주기 위해 서민들의 언어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번역된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카톨릭 교회는 그들을 정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번역된 성경을 인쇄물로 만들어 보급하는 것은 위험했기에 개혁자들은 아예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통(通)째로 암송하여 서민들의 언어로 비밀리에 전했다. 바로 이들을 ‘플라드’라 불렀다. 이들은 14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를 때까지 이 운동을 지속하였다. 이런 역사의 교훈은 성경은 어느 계층의 독점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경전임을 말해준다. 성경은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존재해야 됨을 천명하는 것이다. 조병호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공동체에 적용하기 위해 성경을 통으로 전해야 됨을 주장하며 통성경화를 외쳤다. 조병호는 성경을 통으로 알고 공동체를 교육시키기 위해 성경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대해 5가지<sup>121</sup>로

<sup>120</sup> 2013년 초연된 창작뮤지컬, 극본·연출 - 용광민, 작곡·음악감독- 김정은, 제작- 광야아트미니스트리, 창작- 문화행동아트리, 기획- 문화동행아티스

<sup>121</sup> 조병호, 『성경과 영성』(서울: 통독원, 2015), 12-17. 조병호는 ‘통성경화’를 이렇게 말한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의 두께치고는 무척 얇다.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한

구분하여 통성경화를 주장하였다.

조병호는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부모는 하나의 원 스토리 즉, 성경을 통(通)으로 알아 하나님의 세계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전달하는 공동체적 가르침에 방점을 찍고 모든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이 이루어지는 통성경화를 의미하였다. 레너드 스윗도 가르침에 대한 교육방식 중 통전적 교육은 지식이나 정보전달에 있지 않고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며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적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122</sup>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성은 약화 되었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는 철저히 개인중심적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며 인본주의적인 시대정신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들 역시 이 시대정신의 흐름을 따라갔고 정당화 하였다. 여기에 일부 양극화된 기독교마저 이 시대정신에 편승함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와해 시켰다. 이로 인해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로서의 기능은 약화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주의화가 되고 말았다. 레너드 스윗은 미래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 회복하여야 할 교회의

---

다.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담아낸 책이다. 그래서 문자로 읽고 음성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셋째,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이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1년에 10번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성경은 온 세상을 담고 있으며 각 시대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성경전체를 그 흐름에 따라 통으로 읽어야 한다. 또한 통시적, 공시적 성경읽기를 통으로, 서양의 분석적 동양의 직관적 해석을 통으로 살피가며 성경을 정경적이며 동시에 심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섯째,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적인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해주신 내용부터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이야기까지 통으로 읽어야 한다.

<sup>122</sup> Leonard Sweet, *Postmodern Pilgrim: To Guide the Future Church into the 21' st Century*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씨앗, 2004), 12.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sup>123</sup>에서 스윗은  
 픽(EPIC)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 중 C에 해당하는 부분은 에픽 인생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에픽의 모든 요소(경험, 참여, 이미지)가 결국은 이  
 관계를 이끄는 일종의 서문역할을 한다 하였다.<sup>124</sup> 스윗은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 바로 ‘관계’임을 말한 것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적 조직으로 다양하지만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성경을 바탕으로 가능하다.

---

<sup>123</sup>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69.

<sup>124</sup> Ibid., 171.



## 4.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기도

### 4.1 한국교회 영성 형성의 두 핵: 말씀과 기도

글의 서두에서 한국 개신교의 영성 형성과 부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말씀과 기도라 언급하였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는 것이다.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도 말씀과 기도의 영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한국교회의 침체도 역시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논하였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과제는 다시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영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의 양 날개가 건강해야 한다. 말씀의 건강은 성경을 통(通)으로 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루어진다. 기도의 건강은 자기 감정이나 개인 소원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경영을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말씀과 기도는 양날의 칼과 같다. 양날이 잘 세워진 말씀과 기도는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세워지면 해치는 도구로 오용된다. 이미 본 연구 서두에서 밝혔듯이 초기 한국교회의 영성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영성으로 시작되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작용했지만 일제 침략기 이후부터 말씀과 기도는 괴리가 생겼고 한국전쟁 이후 말씀과 기도는 본 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부터 경제적 부흥을 외칠 때 말씀과 기도는 물질적 축복의 도구로 오용 되었고 군부독재와 정치적 양극화에 의해 기독교 영성의 핵에 해당하는 말씀과 기도 역시 양극 진영의 논리에 따라 편향되어 적용되었다. 결국

영성 형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편향적 선택은 잘못된 영성 형성이라는 결과물을 냈고 맛을 잃은 소금과 빛을 잃은 등불처럼 기독교 영성은 피폐해져 갔다. 한국전쟁 이후 진영논리에 따라 양극화된 상황 속에 기독교 영성도 양극화되어 권별주의나 요절주의, 또는 편향적 설교와 성경읽기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두고 행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공동체를 세움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 또는 인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 이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일어나고 기독교 진영간에도 골이 깊게 패이기 시작했다. 이런 영적 침체기를 겪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 비로서 깨닫게 되어 다시 말씀과 기도의 본래 의미를 추구하는 영성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 4.2 통전적 영성 회복을 위한 도전과 한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한 시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된 영성 형성을 이루기 위해 목회적, 신학적, 선교적으로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본 지면에서는 그 동안 역사적으로 시도되었던 대표적 영성 회복을 위한 사례와 현재 시도되고 있는 영성 회복을 위한 도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초대교회의 기독교 영성에 대해 알아보고 교부시대를 지나면서 기독교 영성 형성을 위한 시도들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도전에 있어서 대표적 영성 훈련으로 알려진 렉시오 디비나와 예수기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조병호가 설립한 성경통독원의 통성경운동과 영성에 대해 나누고 통성경학교 운동이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통전적 영성 회복운동(순회선교단의 말씀기도, 선한목자교회의 말씀기도) 과 기독교 교육과 미래세대의 영성 형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끝으로 개체교회로써 필자가 섬기는

내동교회가 통전적 영성 형성 회복을 위해 적용한 통성경과 성경기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통전적 영성 회복의 도전과 한계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 4.2.1 통전적 영성 형성의 변화: 초대교회와 교부시대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원시 기독교공동체<sup>125</sup>의 영성 형성의 주도적인 요소는 ‘종말론적 전망’에서 찾고 있다.<sup>126</sup> 이것은 곧 임박하게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초대교회 영성 형성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었다. 다시 말해 초기 원시기독교공동체의 영성은 종말론적 영성과 아울러 공동체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종말론적 영성 형성의 핵심은 다시 재림하시겠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것이며 초대교회 공동체는 재림의 그날을 위하여 함께 모여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교부 시대로 넘어가며 교회의 공동체성 보다는 교권적 구조로 제도화 되어 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부시대의 영성은 평신도의 영성에서 성직자의 영성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교부시대로 들어 서면서 영성의 큰 변화는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이다. 따라서 공동체 영성의 대표적인 성례도 교회의 제도화로 인해 공동체개념과 코이노니아 개념이 상실되고 말았다.

#### 4.2.2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도전: 렉티오 디비나

<sup>125</sup> 조은하,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교육」(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0), 26. 에서 존지시오 올라스(John Zizioulas)는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 구분을 사도들의 시대부터 시작하여 초기 기독교교부들의 출현이전까지로 보았다.

<sup>126</sup> Ibid., 26.

중세초기에 접어 들며 영성은 동서로 나뉘어져 수도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수도원 운동의 특징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다. 특히 서방 수도원의 창시자 누르샤의 베네딕트(Benesict Of Nursia)는 〈성 베네딕트의 규칙〉을 제정하여 영성교리와 수도사의 생활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영성 생활의 관상생활목적 달성을 위해 수도사는 매일 3가지 활동을 해야 했다. 바로 전례기도, 독서(Iectio), 노동이다. 이에 대해 조은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통적인 밤 예배(밤 12시 이후) 외에, 수도사들은 낮 동안 성서의 시편 봉송 및 독서로 이루어진 공동기도를 위해 일곱 번 모였다. 게다가 매일 독서 즉 렉티오 디비나(Iectio)에 네 시간을 바쳤는데 여기에는 성서 또는 교부들과 수도사 저술가들의 주석을 경건히 읽고, 개인적인 묵상 기도를 바치면서 성서 구절을 암기하는 것이 포함된다. . . . 수도사들의 생활이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학교’ 생활이었다.<sup>127</sup>

중세초기의 수도원 운동 역시 역시 수도사들의 영성 형성을 이루는 생활의 중심은 바로 기도와 성경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도사들은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며 들은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며 영성을 형성해 갔다.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영적 독서 또는 거룩한 독서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는데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이란 글에서 예수를 새롭게 만나야 됨을 언급하며 그것은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기록된 성경본문과 우리를 향한 역동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한 훈련으로 예로부터 영적인 독서,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

<sup>127</sup> Ibid., 54-55.

설명하였다.

영적인 독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와 주님 간의 친밀한 관계가 자라도록 하는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합쳐놓은 전통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기도 방식으로서, 초기 수도사들이 개발하고 실천했다가 나중에 최초의 카르멜 수도사들이 더욱 발전시킨 방법이다. 이는 성경을 읽되 서서히 우리 자신의 의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경청하면서 기도로 이어지는, 문자 그대로 성경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이다.<sup>128</sup>

중세초기부터 시작하여 근대로 들어오면서 렉티오 디비나를 통한 영성은 지속되었다. 이 전통을 이어받은 근대의 대표적인 영성가는 한 책의 사람으로 알려진 존 웨슬리다.

머홀랜드<sup>129</sup>는 렉티오 디비나를 거룩한 독서로 이야기하며 거룩한 독서가 영성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하였다. 머홀랜드는 이런 영성 형성의 과정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성경을 읽는 거룩한 독서에 두며 우리 인간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말” 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a word: 소문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존재하게 된 말씀입니다. . . .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말’ word이 우리 안에 성육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 정신적·심리적·정서적인 삶, 즉 피조된 우리의 전 존재는 이웃의 삶 속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공표하는 ‘말’ 의 표현입니다.<sup>130</sup>

<sup>128</sup> 마이클 프로스트, 엘런 허쉬, 『Re Jesus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홍병룡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09). 246-247.

<sup>129</sup> DR. Mulholland is Vice President and Chief Academic Officer and Professor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in Wilmore, Kentucky.

<sup>130</sup> M. 로버트 멀홀랜드, 『영성 형성을 위한 거룩한 독서』 최대형 옮김 (서울: 은성, 2015), 43-46.

머홀랜드는 영성 형성의 글에서 영국을 변화시킨 거룩한 독서의 대표적인 사람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를 언급하였다. 한 책의 사람으로 알려진 웨슬리의 성경읽기 지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낮 그것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획득할 것입니다(형성적/관계적). 이 지식이 당신을 인도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줄 것입니다(관계적/ 전재) . . . 그 결과 당신은 이 책에 묘사된 거룩한 기질들을 경험하면서 온갖 종류의 대화를 할 때 당신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존재로부터 흘러 나오는 행동).<sup>131</sup>

거룩한 독서를 통해 웨슬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존재하도록 공표하시는 “말” (word: 소문자)이 될 수 있게 즉 거룩한 영성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신다 말하며 말씀(Word: 대문자)의 양육을 언급하였다. 웨슬리는 영성 형성을 하면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 읽는 시간을 배정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시간이 방해 받지 않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머홀랜드는 웨슬리의 실질적 성경읽기 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것들을 요약하였다.

1. 매일 규모 있게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그 시간은 ①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 . . ②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개방하도록 이끌어주는 환경, ③ 우리 삶의 긴장들과 압박들로부터 분리된 시간이 되어야 한다.

---

<sup>131</sup> Ibid., 166.

2. 규모 있게 규칙적으로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한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을 보장해줄 체계(성구집)를 개발해야 한다.
3.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4.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그 특별한 성상의 원동력을 성경 전체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때에 속한 실존(kairotic existence)과 연결 지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보면서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가장 중요한 지침은 기도의 실천이다. 영적 성경 읽기의 관습 전체에 기도가 주입 되어야 한다. 성경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활기를 부여해주는 기도, 영적독서 훈련을 활성화하는 기도, 살아있는 말씀과의 만남을 받아들이게 해 주는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응답하게 해 주는 기도가 주입되어야 한다.
6. 웨슬리의 마지막 지침은 우리를 영적 성경 읽기에 대한 접근법에서 만남과 응답으로 이동시켜 준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존재와 행위, 마음과 삶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살아서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 . . ”<sup>132</sup>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웨슬리 역시 올바른 영성 형성을 위해서는 성경을 읽되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며 동시에 기도해야 함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특히 살아 있는 성경 말씀과 만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응답하게 해 주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읽기와 기도는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영성 형성의 탁월함을 유지해오던 렉티오 디비나 같은 영적독서와 거룩한 독서는 한국교회에 넘어오면서 한국기독교인들이 쉽게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Quite Time)’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 적용되었다. 이처럼 통전적 영성 형성을 이루기 위한 성경과 기도는 시대마다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sup>132</sup> Ibid., 201-202.

#### 4.2.3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도전: 예수기도

성경과 기도를 통한 영성은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중세시대의 동방교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예수기도’<sup>133</sup>에 잘 나타나 있다. 루마니아의 작가 크레니크(N. crainic)는 예수기도를 “정교회의 심장”이라고 하였다. 이 정도로 표현할 만큼 예수기도는 정교회의 대중적인 대표기도로 자리 잡았으며 동방카톨릭교회도 예수기도를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로마카톨릭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수기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현재 성공회와 개신교회에서도 이 기도방식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 예수기도의 출처는 바로 신구약 성경과 교부 전승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에서 시작된다. 예수기도는 기원후 4-5세기 사막교부들에게서 시작되었다. 특별히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아토스 산에서 처음 생겨난 수도원 제도로 개인의 성화를 강조한 헤시카즘<sup>134</sup>이라는 영성 전통에 속한 기도이다.<sup>135</sup> 시나이 반도 호렙산에 위치한 성 카타리나 수도원은 사막 은수자들의 터전으로 수도승들에게 이상적인 수도처로 알려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지닌 중심지가 되어 가며 시나이 영성을 형성하였다.<sup>136</sup> 그 중심의 내용이 바로 ‘예수기도’다. 아주 짧은 문장의 기도이지만 성경의 핵심내용을 함축하여 기도로 이어진 성경기도라 할 수 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아주 짧은

<sup>133</sup> 동방교회수도승, 『예수기도』 연속진 옮김 (서울: 보누스, 2015), 5. 예수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짧은 기도로 기원후 4-5세기 사막 교부들에게서 시작되었다.

<sup>134</sup> 동방교회수도승, 『예수기도』, 23. “헤시카즘은 14세기 비잔틴 신비주의, 특히 팔라마스파의 전통을 헤시카즘이라 불렀다. 성 고레고리오 팔라마스는 금욕과 신비신학이 뛰어난 이론가로 14세기 그리스 정교회에서 헤시카즘 논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조절하면서 기도문을 되풀이하는 신비주의적인 기도의 금욕적 방법이다.” 예수기도 각주 12번 인용

<sup>135</sup> Ibid., 156.

<sup>136</sup> Ibid., 26.



문장을 호흡을 내쉬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수도사들은 기도의 전반부에 들숨과 함께 고백하고 후반부는 날숨과 함께 고백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오롯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 기도의 내용은 번역상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이런 내용의 기도이다.

“Κύριε Ἰησοῦ Χριστέ, Υἱὲ τοῦ Θεοῦ, ἔλεησόν με τὸν ἁμαρτωλόν.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sup>137</sup> “주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 죄인인 저(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sup>138</sup>

예수기도가 4-5세기 경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의 최종 형태가 형성된 것은 14세기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칼리스토스 1세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때 예수기도의 형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였는데 후대에 와서 ‘죄인’ 이라는 말이 첨가된다.<sup>139</sup> 그 성서적 근거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sup>140</sup>

이처럼 예수기도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기도이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소개할 때 구약전체의 중심내용을 한 구절로 표현하였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 1:1)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sup>137</sup> 다음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C%88%98\\_%EA%B8%B0%EB%8F%84](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C%88%98_%EA%B8%B0%EB%8F%84)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예수기도에서 인용

<sup>138</sup> 동방교회수도승, 『예수기도』, 156.

<sup>139</sup> 다음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C%88%98\\_%EA%B8%B0%EB%8F%84](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C%88%98_%EA%B8%B0%EB%8F%84) 위키백과 예수기도 검색에서 인용

<sup>140</sup> 개역개정 성경 누가복음 18장 13절 인용

게시라 할 수 있다. 아주 짧은 예수기도 역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죄사 함과 하나님의 긍휼이야기를 예수님의 대속사건에 담아 한 구절로 고백한 것이다. 예수기도는 현재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성 기도로서 기독교 영성 형성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

#### 4.2.4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도전: 성경통독원의 통성경과 영성

서두에서 영성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설명하고 장단점에 대해 나눈바 있다. 통성경학교를 통한 통성경의 영성은 일반 영성가들의 가르침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통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말씀 속에서 찾는다. 조병호는 ‘성경과 영성’이라는 저서에서 통성경 영성에 대한 정의를 5가지로 정리 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알고(Knowing)**에서 시작된다.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영성은 시작된다고 보았다. 깊은 명상이나 청빈한 삶이 영성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sup>141</su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sup>142</sup>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계시의 책인 성경은 성령에 의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록된 계시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성이다

두 번째 영성의 단계는 **믿고(Believing)**이다. 기록된 계시의 책에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만든 예수가

<sup>141</sup> 조병호, 『성경과 영성』 (서울: 통독원, 2015), 20-21.

<sup>142</sup> 개역개정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아니라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록된 성경 속에서 기록된 예수를 아는 것이다.<sup>143</sup> 그리고 그 예수를 그대로 믿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sup>144</sup>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모든 성경 안에 들어 있다. 예수님도 당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세대들에게 성경으로 자신을 증언 하였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sup>145</sup>

세 번째 영성의 단계는 **순종(Obeying)**이다. 영성 형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영성은 순종할 때 형성된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삶이 예배가 될 때 진정한 영성을 가질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sup>146</sup>

순종의 영성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레위기에서 명령한 제사법의 효력은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식으로 드리되 명령한 그대로 순종할 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어 왕궁을 짓고 보니 하나님의 궤가 생각이 나서 법궤를 다윗 궁으로 모시고자 했다.

<sup>143</sup> 조병호, 『성경과 영성』 (서울: 통독원, 2015), 23.

<sup>144</sup> 개역개정 성경 요한복음 6장 28-29절.

<sup>145</sup> 개역개정 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

<sup>146</sup> 개역개정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도 귀한 영성이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이유는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다. 법궤를 이동시키는 제사장 나라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단계는 **체험하고(Experiencing)**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으면 네 번째 통성경 영성은 체험하는 영성이다. 말씀대로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체험한다. 예를들어 흉년의 시기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했다. 이삭이 이때 환경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그 해 100배의 결실을 체험 하며 거부가 되었다.<sup>147</sup> 이렇듯 통성경 영성은 체험적 영성을 추구하며 체험을 통해서 영성 형성을 이뤄간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성의 단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Glorifying)**이다. 마지막 단계로 통성경영성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앞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반드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성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영광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당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sup>148</sup>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sup>149</sup>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sup>150</sup>

<sup>147</sup>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개역개정 성경 창26장 12-13절.

<sup>148</sup> 개역개정 성경 이사야 4장 5절.

<sup>149</sup> 개역개정 성경 시편 113편 4절.

<sup>150</sup> 개역개정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특히 영광이라는 용어는 쉬키나(Shekhinah)의 영광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과 관련된 용어이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 이었더라<sup>151</sup>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sup>152</sup>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기에 유다의 헤롯왕<sup>153</sup>이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신의 목소리 같다하며 헤롯을 향해 열광했을 때 헤롯은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챘다. 이때의 사건이 얼마나 중한지 성경은 헤롯의 죽음에 대해 역사가들과 달리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한다.<sup>154</sup>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며 자신을 높이는 자만이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sup>151</sup> 개역개정 성경 열왕기상 8장 10-11절.

<sup>152</sup> 개역개정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17절.

<sup>153</sup> 헤롯 아그립바 1세, 갈리굴라에 의해 왕이 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 통치

<sup>154</sup>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개역 개정 사도행전 12장 23절.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달아야 한다. 성경전체에 기록되어 있듯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의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조병호에 의해 제시된 성경통독원의 성경과 영성은 기존 신학에서 말하는 영성의 틀과 관점이 약간 다르다. 성경통독원의 영성에 대한 가르침은 21세기 바른 영성 회복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영성 안내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병호는 건강한 영성 생활의 안내로써 성경기도라는 기도방법론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제시하였다.

#### 4.2.5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도전: 내동교회 성경기도

최근 한국교회도 통전적 영성 회복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한목자교회<sup>155</sup>의 예수동행운동과 순회선교단<sup>156</sup>의 말씀기도 운동이다. 이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운동으로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검증된 영성운동이다. 바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영성운동은 결을 같이 한다. 복음의 실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선교완성을 이루는 것이 두 기관의 영성운동이다. 이 영성형성 운동은 말씀에 기초하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이다. 이 두 기관에서 진행하는 말씀기도는 서로 유사한 기도로서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는 영성훈련이다. 또 한 개인으로 그리고

<sup>155</sup> 기독교대한 감리회 소속으로 성남에 위치해 있으며 유기성 목사가 담임하며 예수동행운동과 말씀기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다.

<sup>156</sup> “순회선교단”은 1995년 6명의 헌신자로 시작하여 1997년 김용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출범한 복음주의 선교단체이다.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지에서 잘 알려진 사역으로는 “복음학교”와 “중보기도학교”를 들 수 있다. 복음학교는 십자가 ‘복음의 실재’가 과연 ‘내 삶에 실재’하는가를 묻고 복음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갖는다. 중보기도 학교는 ‘기도24·365’와 열방기도센터를 개관하여 하나님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목표로 기도한다.

순회선교단 홈페이지 <http://www.wmm119.co.kr>

학자로서 김영래는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라는 글에서 선교 100년 동안 이루어진 한국교회의 급격한 부흥에 대해 논하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로 세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개인적/사회적 구원의 복음주의(Personal/Social Salvation Evangelism) (1885-1995), (2) 구도자 친화적 목회(Seeker Friendly Ministry) (1995-2005) (3) 선교 재발견 교회(Mission Rediscovery Church) (2005 - ).  
 약술하자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이식되고, 민주화 운동 세력에 의해 주도된 “개인적/사회적 구원의 복음주의” 는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의 성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추진력 중 하나였다. . . .  
 이후 20세기의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는 교인의 감소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sup>157</sup>

김영래는 이런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국교회가 미래를 위해 추구해야 할 것은? ‘대위임(Great Commission)의 사명의 재발견을 말하며 이것을 “재정향” 이라고 하였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선교가 교회를 참되게 만든다는 확신 아래 교회는 “선교 재발견 교회” 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것이 21세기 교회의 살길이라고 말하였다. 김영래는 “선교 재발견 교회” 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다.

“첫째 모이기(Congregation), 둘째 기도하기(Praying), 셋째 성경 읽기(Reading the Bible)” ,

김영래는 이 세 요소의 영문 첫글 자를 따서 “영적 CPR” 이라 명하였다.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라 용어는 의학용어로 응급처치를 위한

<sup>157</sup>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247-248. 기독교교육을 위한 교회의 재정향: “영적 CPR” 의 글에서 인용

심폐소생술을 의미한다. 즉 위급상황가운데 심폐소생을 통해 생명을 구하듯  
 김영래는 한국교회가 영적 CPR을 통해 교회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영적 CPR을 구성하는 3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158</sup>

Congreate(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Pray(통성기도)  
 Reading the Bible(성경통독)

여기에서 김영래가 제시한 교회의 미래의 심장이 건강하게 뛰게 할 3가지  
 영적 CPR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성경과 기도다. 즉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 즉 성경과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말에 시작된 세계적 전염병 코로나 19를 보낸 3년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영성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시기라 볼 수  
 있다. 만약 실존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진 키에르케고르(Seren Kiekegaard)가 지금  
 살아 있다면 그는 기독교의 감시자로서 오늘의 기독교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을  
 것이다.<sup>159</sup> 침체되어 가는 21세기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통전적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경과  
 기도에 대한 목회적 적용이 시급한 것을 깨달아 시도해야 한다.

필자가 속한 내동교회도 이런 영적 갈망을 이루기 위해 영성 형성의 두  
 핵에 해당하는 성경과 기도를 강조하며 목회적 적용을 하고 있다. 내동교회는

<sup>158</sup> Ibid., 248-251.

<sup>159</sup>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이며 신학자로서 제도화된 기독교를 비판하였다. “사도는 진리를 선호하고 감사(監事)는 가짜를 찾아낼 책임이 있다” 라고 하였다. 그는 감사와 같은 시각으로 종교화되고 제도화된 교회를 비판하였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 95-99에서 인용



1950년 6.25전쟁 중 세워진 교회이다. 전쟁 후 폐허를 복구하며 1953년 1대 담임자가 세워진 후 최근 13대가 지나 가고 2007년 3월 1일에 14대 담임자로 현재 천성환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목회를 하고 있다. 천성환목사가 교회부임 후 가장 강조한 사역은 모든 성도를 제자 삼기 위한 말씀과 기도사역 이었다. ‘당시 가장 중요시 여긴 기도는 새벽기도이며 특별히 두란노에서 발간한 영성 생활 안내서인 생명의 삶(Q·T)<sup>160</sup>을 가지고 새벽 경건의 시간을 위해 성도들을 가르치며 기도 인도를 하였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영성을 추구 한 것이다. 이것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생명의 삶은 3년을 단위로 성경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집필된 전문 Q·T지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성경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기본적으로 쌓여 있다가 2015년 순회선교단의 중보기도사역인 느헤미야 52기도<sup>161</sup>를 목회에 적용하게 되었다. 느헤미야 52기도는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조국의 폐허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성벽재건을 52일 만에 회복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어 주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이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쉬지 않고 한 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준비된 기도제목과 말씀을 읽고 릴레이 기도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기도회를 인도할 때 말씀기도라는 기도를 접하게 되었다. 그 시간에 기도할 제목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는

<sup>160</sup> 「생명의 삶」은 한국 교회의 말씀 묵상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QT지다.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뤄지도록 돕는 안내서이다. <https://www.duranno.com/qt/view/about.asp>에서 인용

<sup>161</sup> 무너진 열방을 회복시키고자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순회선교단의 중보기도 사역이다. 느헤미야가 52주만에 성벽을 재건함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사건을 바탕으로 개체 교회들이 연합하여 일주일 동안 매일 매일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소그룹이 합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길 기도하였다. 이렇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선한목자 교회의 예수동행운동과 함께 진행하는 중보기도사역으로 말씀기도학교를 2019년부터 접하며 성경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런 영성이 교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형성되어가며 성경기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경통독운동의 선구자인 조병호에 의해 통성경학교를 경험하고 나서 성경기도를 접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교회는 자연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경기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설교와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성경기도를 언급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요청을 한다. 이런 정서 속에서 필자는 성경기도가 교회 안에서 건강한 영성 형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 안에 성경기도가 잘 세워지고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2년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수요일예배에 성경기도 특강을 진행하였다. 준비과정 중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였다.

통성경학교 성경기도를 교회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고민은 교육 대상의 문제였다. 그 대상을 선정할 때 통성경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을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고민 하였다. 고민 후 결정하기를 교회적 적용이라면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리는 것이 공동체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로 구성해도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고민은 성도들에게 성경기도를 알리고 적용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강의 할 것인가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였다. 이에 대한 고민의 해답은 통성경학교 성경기도 진행과정 속에서 찾았다. 통성경학교 성경기도가 10개의 주제로 이뤄져 있기에 성경기도에 대한 이해와 실제 성경 기도에 대한 실례를 소개하려면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교육기간은 3개월로 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3개월간 진행할 통성경학교 성경기도를 위한 커리큘럼을 세워야 했다. 아래 표는 2022년에 3개월동안 진행한 성경기도 수요특강 주제이다.

주	2022년 수요예배	본 문	주 제
1	7월 6일	딤후 3:14-17	하나님과 통통하는 성경기도
2	7월 13일	창 24:10-15	모든 민족을 향한 엘리에셀의 기도
3	7월 20일	삼상 2:1-10	새 시대를 여는 한나의 기도
4	7월 27일	느 1:4-11	천년을 담은 느헤미야의 기도
5	8월 3일	요 17:1-5	궁핍의 최고봉, 예수님의 기도
6	8월 17일	행 7:54-60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의 기도
7	8월 24일	엡 1:15-19	영혼구원의 전도자, 바울의 기도
8	8월 31일	눅 2: 22-39	기다림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
9	9월 7일	벧전 4:7-11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기도
10	9월 14일	요일 5:13-17	사랑의 사도, 요한의 기도
11	9월 21일	막 10:46-52	여리고 맹인, 바디매오의 기도
12	9월 28일	행 17:10-14	거룩한 독서, 렉티오 디비나

〈표 1〉 내동교회 성경기도 수요특강

성경기도를 위한 기본 뼈대는 통성경학교 성경기도의 내용을 주로 활용하였다. 다만 교회 실정과 목회마인드를 적용하여 제목을 약간 달리했으며 주제도 몇 가지는 새로운 교안을 작성하여 특강자료로 사용하였다. 성경 속 기도

샘플을 찾되 통성경학교의 성경기도는 신약보다 구약의 인물을 더 많이 다루었기에 이번 내동교회 특강에서는 구약보다 신약의 인물을 좀 더 다루어 성경 속 성경기도의 사람을 소개하며 성경기도의 예를 들어 강의 하였다. 이렇게 특강에 관련된 셋팅을 하고 나서 아래와 같은 강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성경기도에 대한 전체 주제특강 제목을 「하나님과 통(通)하는 성경기도」 라고 정하였다. 이 제목을 사용한 이유는 성경기도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서였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불통의 시대, 소통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통通’ 이라는 말은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단어라고 생각된다. 특별히 신앙인들의 관심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답답함일 것이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도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며 ‘통通’ 하는 것이다. 영성의 출발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균형 잡힌 영성 형성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즉 조병호가 주장한 하나님과 ‘통通’ 하는 성경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런 정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통(通)’ 할 수 있다’ 라는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이기에 전체 주제 강의를 「하나님과 통(通)하는 성경기도」 라 정한 이유이다. 3개월간 12번의 강의에 참여한 성도들은 매주 평균 대면예배 80명과 비대면(유튜브)으로 57명이 동시에 참여하며 통성경학교 성경기도를 배워가며 영성형성 훈련을 가졌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강의를 하였다. 다음 내용은 내동교회에서 실시했던 하나님과 통하는 성경기도에 대한 강의 요약이다.

### 제 1 장 ‘하나님과 통通하는 성경기도’ (딤후 3:14-17)

성경기도의 첫 주제 강의의 핵심은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인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실태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가 난무한 현실, 기복적이고 주술적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기도를 드리며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 시켰다.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귄, 영적호흡등 일반적 기도에 대해 전하였고 기도의 유형으로 통성기도(주여 삼창), 침묵기도, 관상기도, 묵상기도, 화살기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가장 바르게 기도하며 응답 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안하며 통성경학교에서 언급한 조병호의 성경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성경기도란 무엇인가? 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3가지로 제시하였다.

성경기도는 ①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내어 하는 기도. (one story)  
 ② 나라, 마음, 성경줄기에 대한 기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기도 -  
 제사장나라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적용 ③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하여 현재  
 나의 상황과 연결시켜 하는 기도<sup>162</sup>

이런 성경기도의 특징에 대해 전하며 하나님과 통(通)하는 성경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성경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수분 가득한 진흙이 되기 위해서라고 전하였다. 노화는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육체의 수분이 줄어들 때 생기는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노화도 영적 수분이 줄어들면 우리 삶이 메말라 진다. 성경을 통한 기도는 이런 영적 노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 수분을 공급하는 영성이 들어 있다고 전하였다. 도공의 손에 붙들린 수분이 가득한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여러 모양으로 빚어진다. 이와 같이 토기장이 되신

<sup>162</sup> 2022년 7월 6일 내동교회 성경기도 수요특강 내용 중 인용(이광렬 목사 강의)

하나님은 영적 수분(성령충만, 성경, 기도, 은혜)이 메마르지 않은 우리 인생들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빛으시어 사용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통통하는 성경기도의 유익함이라 전달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sup>163</sup>

두 번째 특강부터 아홉 번째 특강은 성경기도의 실례를 성경 속 인물에서 찾아내어 성경기도의 방식과 원리에 대해 가르쳤다. 성경기도의 원리 중 대표적 원리는 성경전체를 꿰뚫고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나라의 관점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각 강의를 간략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제 2 장 ‘모든 민족을 향한 엘리에셀의 기도’ (창 24:10-15)

엘리에셀의 기도 라는 문구 앞에 ‘모든 민족을 향한’ 이라는 수식어를 집어 넣었다. 이 수식어는 엘리에셀이 간구했던 성경기도의 주제를 담고 있다.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기초한다. 곧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다. 따라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이삭의 배필 감을 얻기 위해 기도하였다.

## 제 3 장 ‘새 시대를 여는 한나의 기도’ (삼상 2:1-10)

수식어인 ‘새 시대를 여는’ 이란 말에서 한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한나가 어떻게 성경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다. 한나의 성경기도는 단순히 무자했기 때문에 드린 기도이거나 브닌나가 부러워서 기도하거나 브닌나로부터 억압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sup>163</sup> 개역개정 성경 이사야 64장 8절 인용

제사장 나라가 무너져 가는 시대 속에 자신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수 있는 자녀가 출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다.

#### 제 4 장 ‘천년을 담은 느헤미야의 기도’ (느 1:4-11)

느헤미야의 기도를 단순한 무너진 성벽재건의 기도로 이해해선 안 된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며 기도한 기도이다. BC 1500년경 모세로부터 허락 받은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제사가 BC 586년 바벨론 포로가 되며 멈췄고 포로생활 70년 후 두 차례에 걸쳐 귀환하여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 다시 예루살렘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드린 기도가 천년을 품은 느헤미야의 기도이다. 이 기도 역시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기도다.

#### 제 5 장 ‘공홀의 최고봉, 예수님의 기도’ (요 17:1-5)

5장부터는 신약 속에 나타난 성경기도에 대해 강의 하며 가장 먼저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하였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공홀의 마음에 초점이 가 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고백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홀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11:8) 이런 마음이 예수님 때에 최고봉에 이른다. 그 기도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기도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공홀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공홀의 최고봉임을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성경기도로 다 이루셨다.

#### 제 6 장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의 기도’ (행 7:54-60)

신약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스테반이다.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심문 받을 때 스데반은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한 다음 그 구약성경이 예언한 메시야가 당신들(유대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그 분은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증언했다. 스데반의 순교는 성경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다윗의 시편을 이해 했기에 순교의 현장 속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스데반의 기도는 즉흥적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성경을 바탕으로 드린 성경기도다.

### 제 7 장 ‘영혼구원의 전도자, 바울의 기도’ (엡 1:15-19)

신약성경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 바울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유대인중의 유대인으로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주동인물이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한 순간 변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가 알고 있던 구약성경이 통통으로 연결되어 예수님이 메시야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변화되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야가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라고 증언하며 전도자로 살아갔다. 바울은 예수를 안 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최고의 가치를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두고 모든 민족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다. 그의 전도 역시 구약성경전체를 바탕으로 하는 성경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 제 8 장 ‘기다림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 (눅 2: 22-39)

8장은 사실 3개월간의 성경기도 특강 계획에 없는 강의였다. 모\*\* 선교사님이 8장에 해당하는 수요 예배에 선교보고를 하려 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설수 없게 되어 성경기도 특강을 연속하여 강의하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처음



계획에 없던 인물을 소개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신약의 인물 가운데 초기 인물이지만 순서가 늦게 배열되었다. 8장에서 소개한 성경기도의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이다. 이 둘의 특징은 기다림의 사람이었다.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대변하듯 시므온과 안나는 구약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알았고 곧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기에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만난 그들의 기도는 그야 말로 성경의 예언 성취에 대한 감사기도였다. 기다림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는 성경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였다.

#### 제 9 장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기도’ (벧전 4:7-11)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의 기도 역시 그 기반은 성경에 두고 있다. 무식한 것 같은 베드로가 복음 2세대를 향해 설교할 때 그는 결코 무식한 갈릴리 촌뜨기가 아니었다.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기도는 놀랍기만 했다. 베드로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분별할 것을 복음 2세대에게 전하며 기도했다. 특별히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복음 2세대의 할 일을 규정하며 그 일은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주님의 수제자답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든 기도의 사람이다.

#### 제 10 장 ‘사랑의 기도, 요한의 기도’ (요일 5:13-17)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 시작은 우리의 아들로 시작된다. 이 별명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임을 암시한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며 복음 2세대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다. 마지막까지 쓰임 받은 요한의 삶은 성경이 바탕이 되었으며 마지막까지 성경으로

기도하며 성경기도의 삶을 살았다.

### 제 11 장 ‘맹인, 바디매오의 기도’ (막 10:46-52)

성경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신분은 다양하다.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유대관원, 세리, 창기, 부정한자, 장애인 등 신분이 다양하다. 11장에 소개한 성경기도의 사람은 여리고의 맹인, 바디매오다. 그의 기도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성경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 메시아의 사역은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등 근본적인 장애를 치유하는 사역<sup>164</sup>이다. 여리고 맹인, 바디매오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10:47-48)라고 크게 외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간절함이 베어있는 맹인 바디매오의 기도는 AD 4세기 동방정교회 사막교부들이 기적을 체험하며 발전시킨 예수기도의 골격을 만드는데 인용되었다고 한다.

### 제 12 장 ‘거룩한 독서, 렉티오 디비나’ (행 17:10-14)

성경기도 마지막 강의는 ‘거룩한 독서, 렉티오 디비나’ 라는 특강제목을 가지고 강의 하였다. 성경기도의 역사성을 찾으며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개념인 렉티오 디비나를 강의 하며 기독교 영성 형성이 성경과 기도라는 관점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를 렉티오 디비나를 소개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렉티오 디비나는 기독교 영성형성에 있어서 건강한 영성 생활이며 현재 한국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 Q.T라고 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영성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한 12강의를 통해 성경기도란 무엇인지,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sup>164</sup> 이사야 35장 5-6절, 메시아가 임할 때 귀머거리, 맹인, 앓은뱅이 등이 기적처럼 고침 받는 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며 성경기도의 실례를 들어 강의 하였다. 특별히 12개의 성경기도를 강의하고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 성경기도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12개 강의에 흐르고 있는 성경기도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병호가 통성경을 통해 찾아낸 성경기도 방법론을 제시하였다.<sup>165</sup> 특강기간 강의한 내용을 통성경학교 성경기도와 내동교회 성경기도내용을 비교해 보고 특강기간 참여한 성도들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주	통성경학교 성경기도 주제	주	내동교회 성경기도 특강 주제
1	통성경학교 과정이수	1	하나님과 통통하는 성경기도
2	성경을 통한 기도 5단계	2	모든 민족을 향한 엘리에셀의 기도
3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	3	새 시대를 여는 한나의 기도
4	모세의 기도	4	천년을 담은 느헤미야의 기도
5	한나의 기도	5	궁핍의 최고봉, 예수님의 기도
6	다윗의 기도	6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의 기도
7	솔로몬의 기도	7	영혼구원의 전도자, 바울의 기도
8	예레미야의 기도	8	기다림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
9	느헤미야의 기도	9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기도
10	예수님의 기도	10	사랑의 사도, 요한의 기도
11	시므온과 스테반의 기도	11	여리고 맹인, 바디매오의 기도
12	바울의 기도	12	거룩한 독서, 렉티오 디비나

〈표 2〉 통성경학교 성경기도와 내동교회 성경기도 비교

	7월 대면/비대면(유튜브)	8월 대면/비대면(유튜브)	9월 대면/비대면(유튜브)
첫 주	88 / 54	*	63 / 58

<sup>165</sup> 성경기도 12 강의 때마다 강조한 성경기도 5가지 방법론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기록된 성경” 알기 - 아는 만큼 기도한다.
2. 다음으로 기록된 성경 스토리에 나의 현실 대면하기 -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을 대면한다.
3. 성경묵상 후 나의 현실 간구하기
4. 응답받기 - 즉시응답(YES), 노의 응답(NO), 기다림의 응답(Wait)
5.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둘째 주	66 / 73	76 / 68	81 / 58
셋째 주	89 / 59	95 / 54	79 / 53
넷째 주	77 / 48	85 / 62	99 / 58
다섯째 주	74 / 47	*	*

〈표 3〉 성경기도 특강 출석 현황, 월별 통계 (2022년 7월 - 9월)

이렇게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평균 80명의 성도들이 성경기도에 대한 특강에 참여하고 모든 과정을 마쳤다. 교회 내 적용을 위한 고민 끝에 그 동안 교회가 한시적으로<sup>166</sup> 해오던 순회선교단<sup>167</sup>의 말씀기도와 성경기도의 개념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곧바로 10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저녁 2시간씩(오후 7시-9시) 4주간 순회선교단의 말씀기도학교를 운영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통성경학교의 성경기도의 장점과 순회선교단의 말씀기도의 장점을 잘 접목하여 건강한 영성형성을 이룰 수 있는 성경기도(말씀기도)를 하기 위해서였다. 수요일예배에 참석했던 평균 80여명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순회선교단 말씀기도학교에도 참여 하였다.

이렇게 총 일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개월간의 성경(말씀)기도 훈련(순회선교단 말씀기도학교 1달 포함)을 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보기도 사역 안에 성경기도회를 세우기로 하였다. 이하부터 본 연구에서는 말씀기도라는 표현을 성경기도로 표기한다.

먼저 내동교회 중보기도위원회는 그 동안 여러 중보기도를 해왔다. 나라와

<sup>166</sup>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초 매년 1회 느헤미야 52기도를 24시간 릴레이기도 형식으로 한 주간씩 하며 말씀기도를 한 경험이 있다.

<sup>167</sup> “순회선교단”은 1995년 6명의 헌신자로 시작하여 1997년 김용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출범한 복음주의 선교단체이다. 순회선교단의 중보기도학교는 ‘기도 24365’와 열방기도 센터를 개관하여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왔다. 순회선교단은 2010년 ‘복음기도동맹’을 결성하고 그 해 10월에 복음기도동맹 말씀기도예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말씀기도를 붙들고 사역한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자 어르신들로 구성된 에스더 기도회, 젊은 여성으로 구성된 한나 기도회, 주일이면 말씀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조직된 강단 밑 기도회, 매주 1회씩 돌아가며 기도하는 선교회별 릴레이 기도회 등 여러 기도회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던 중 4개월간의 성경기도에 대한 특강과 성경기도 워크숍을 마치고 성경기도의 은혜와 유익함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된 중보기도위원회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명목 하에 여러 기도회를 진행해 왔는데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붙잡지 않고 기도해 왔다는 사실이 그 동안 주객이 전도된 기도를 해온 것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지한 중보기도회는 곧바로 성경기도를 해야겠다고 교회에 건의 하였고 특강 후 이수자를 중심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2022년 11월 첫 주부터 성경기도회를 갖기로 하였다. 처음엔 목요일에 성경기도회로 모여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3년 초에 두 반으로 나누어 화요일반과 목요일반을 구성하여 소그룹으로 성경기도와 함께 여러 사안을 두고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내동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어떻게 성경기도사역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동교회의 통성경과 관련된 사역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는 2007년부터 새벽 Q·T를 통해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받은 것이 가장 기초적인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고, 다음으로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진행한 신년 맞이 성경통독수련회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2015년부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진행한 통성경학교일 것이다. 이런 배경과 정서들이 성도들 안에 있었기에 교회 내 성경기도회가 세워질 때 저항 없이 곧바로 진행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교회 내 성경기도회가 진행되면서 한계점도 드러나고 기도회 운영의 어려움도 생기게 되었다. 진행하며 겪은 한계점과 미래를 보며 예측하는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 한계는 리더의 영향력이다. 성경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경우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체로 소그룹을 만들어 진행할 경우 원만한 진행을 위해 리더가 훈련되어야 하는데 다른 기도회 인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성경기도회에선 성경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에 기도회를 인도할 때 어려움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서로 목상한 성경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도제목을 성경 속에서 찾아나갈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만큼의 실력이 없다면 자칫 성경을 오해 할 수도 있다는 한계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개인의 영성을 해치며 영성이 잘못 형성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두 번째 한계는 공동체적 기도회의 인도이다. 개인적인 성경기도는 자신의 상황을 말씀과 비추어 보며 목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지만 공동체로 모인 기도회에서의 성경기도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이다. 성경기도를 공동체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성경을 목상하여 공동의 기도제목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안목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생긴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 영성을 형성해야 한다. 만약 교회가 성경을 붙들고 공동체적인 성경기도를 하지 못할 경우 교회의 공동체성은 깨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영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동체적 관점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한계는 미래적인 예측 속에서 갖는 한계점으로 지속적인 성경교육의 문제를 들었다. 교회가 통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을 경우

성경기도의 지속성도 한계상황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훈련되어 릴레이 달리기를 하듯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성경교육이 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한계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마치 인구절벽으로 인해 출생한 아이들이 급감하여 학교가 폐교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통성경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이 통성경학교의 목적이고 이를 통해 통전적 영성이 다음세대에 전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때 성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고 바른 영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필자는 한국교회의 통전적 영성을 이끌어갈 대안으로서 성경통독원의 통성경운동과 성경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 4.3 성경통독원의 통성경운동과 성경기도

김영래가 말한 영적 CPR에 해당하는 성경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낸 사람이 조병호다. 조병호는 1988년 학원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알고 싶어 실천한 사역이 ‘한시미션’이다. 이 사역을 통해 조병호는 ‘숲과 나무 성경통독학교’와 ‘뿌리기 사역, 물주기 사역’ 운동을 펼쳤다. 이것이 성경통독운동의 시작이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 온 몸으로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실천하였다. 조병호의 간증에 의하면 초기 이 사역에 함께 할 때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 가운데 하나가 씻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 목욕을 안하고 심지어 이도 닦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위해서는 일원 한 푼이라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1989년부터 한시미션은 사역의 폭을 넓혀갔다. 처음에 청년, 청소년, 평신도,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통독캠프”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성도들이 성경전체를 읽음으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관점훈련을 하게 되었다. 김영래는 이런 통성경운동에 대해 말하며 조병호의 목회철학을 언급하였다. 2004년 조병호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개척하였다고 한다. 바로 “성경, 역사, 실천”이다. 이를 토대로 세워진 교회가 하이기쁨교회<sup>168</sup>다. 조병호는 이렇게 성경을 내적으로 먹는 양식으로만 먹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고 그는 성경대로 기쁨으로 사는 실천운동을 펼쳤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35년간 성경통독운동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조병호의 성경통독운동의 중요점은 항상 말씀과 기도를 수반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sup>169</sup>

조병호는 한국교회에 ‘통通’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 적용하여 ‘통성경’의 창시자가 되었다. ‘전체’를 아우르는 동양적 사고와 ‘부분’을 강조하는 서양적 사고를 이원화 하지 않고 둘을 하나로 묶어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되 전체에 속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통찰 할 수 있는 성경해석방법인 통성경과 이를 바탕으로 통성경학교를 만들어 낸 것이다.<sup>170</sup> 통성경학교는 자녀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형성을 돕는 21세기 영성운동이다. 그 중심 커리큘럼에는 성경을 원 스토리로 이해하며 기도하는 통성경기도가 들어 있다.

<sup>168</sup>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06 킹콩빌딩 B1

<sup>169</sup>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260-261.

<sup>170</sup> 조병호는 통성경운동을 통하여 통성경 세계화를 꿈꾸고 있다. 특별히 조병호는 성경 속 유대인의 패밀리 스쿨의 영향력을 착안하여 21세기 현대판 패밀리 스쿨을 위한 커리큘럼을 포뮬러(formula)화 하여 통성경학교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소개하였다. 이 학교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 부모가 5세에서 20살까지의 자녀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가르치는 패밀리 스쿨을 위한 학교이다.



이런 통성경 영성을 바탕으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통성경학교의 성경기도다.

통성경학교의 커리큘럼은 크게 6가지 주제로 나뉘며 52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십자가 원 스토리(One story)이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그림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 전체를 하나의 원 스토리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제사장나라와 하나님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는 시내산에서 성립된 언약을 바탕으로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제국과 제사장나라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나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제사장 나라가 담긴 것을 바탕으로 제국을 능가한 하나님의 세계경영을 이야기하는 나라이야기이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총 20가지로 정리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주제는 성경기도이다,** 성경기도는 성경 속 사람들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 바른 기도의 모범을 배우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준다. 지금 여기에서 성경 속 사건이야기로 들어가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 후 지금 나의 현실을 파악한 후 간구하여 응답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기독교 영성형성의 중요한 영역이다.

**다섯 번째 주제는 성경전도이다.** 성경전도는 성경이야기를 제국이야기와 함께 풀어내어 전도대상자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영혼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제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는 성경통독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하나의 원 스토리로 이해하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삶을 고백하는 영성을 형성하게 하는 과정으로의 주제이다.

이런 통성경학교의 과정 중 성경기도 과정은 Step 4 과정에서 다루게 된다. 성경기도를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통성경학교 운영이다. 이것은 중요한 단계이다. 왜냐하면 통성경학교를 통해 성경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보고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성경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성경학교의 과정 중 성경기도의 가르침은 성경줄기를 배운 후에 가르쳐야 한다. 그 이유는 성경기도는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원 스토리로 구성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기본 이해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경기도는 성경 속 기도 이야기를 통해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의 현실을 깨닫고 성경 속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나의 현실과 대면시켜 문제를 풀어가는 기도이다.

조병호는 왜 성경기도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토기장이와 진흙비유 이야기를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늙어도 성경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마르지 않은 수분을 간직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음을 말하며 수분 가득한 진흙은 토기장이 손에 올려질 때 끝까지 빚어질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비록 몸은 말랐지만 성경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 영적인 수분이 유지될 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는 나이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으며 모세는 120세를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않을 만큼 수분이 축적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다. 다윗은 70세, 사도 요한은 95세가 되도록 그들은

성경과 기도, 찬양의 삶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였다.<sup>171</sup> 조병호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sup>172</sup>

이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길 원하여 바라고 기도하는 성경기도의 방법론에 대해 조병호는 성경 속 기도의 위인들(구약 7명, 신약 4명)을 뽑아 그들의 기도를 분석하여 성경기도의 원리를 정리하였다. 인간과 인간이 통통하는 것을 대화라 하였고 인간이 하나님과 통통하는 것을 기도라 하였다. 통성경학교의 Step 4에 해당하는 성경을 통한 기도(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공통 특징)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sup>173</sup>

먼저, 지금 여기서 ‘이전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묵상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성경을 묵상했으면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지금, 여기서, 나를 통해 이뤄지도록 바라야 한다. 깊은 기도는 ‘기록된 성경 이야기’와 ‘지금 나의 이야기가’가 만날 때 가능하다.

이제 성경통독원의 통성경운동에 해당하는 통성경학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본 논문의 주제에 대한 성경기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 4.3.1 통성경화를 위한 통성경학교

<sup>171</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209.

<sup>172</sup> Ibid., 209.

<sup>173</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23.

통성경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조병호는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음을 본 논문의 전개과정에서 밝힌바 있다. 통성경은 첫째로 시간 · 공간 · 인간을 통으로 보고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으로 보며 구약의 제사장 나라 · 5대 제국 ·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며, 둘째로 성경을 읽을 때 동양적 사고로 성경의 숲을 보고 서양적 사고로 성경의 나무를 보듯 별개가 아니라 통으로 읽는 것이며 세 번째로 오직 성경(Solar Sripture),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 하였다.<sup>174</sup>

조병호의 통성경 세계화는 모든 성경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가정에서 5세 때 부터라는 큰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한다. 5세 때에 큰 그림 세가지를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가장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민족이다. 이 개념을 5세 때부터 20세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 통성경학교 운동이다. 20세 이전에 성경이야기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도와서 20세 후에는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성경이야기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도록 꿈꾸는 것이 통성경학교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모든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이 이뤄지기 까지 성경을 통으로 가르치는 것이 통성경학교다.<sup>175</sup>

#### 4.3.2 통성경학교 통프레임

통성경학교는 10주간의 기간을 통해 전체 52개 이야기를 배우는 과정이다.

<sup>174</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415.

<sup>175</sup> Ibid., 436. 그림에서 인용

통성경학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병호는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볼 수 있도록 물고기 모양으로 도식화 하였다.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신앙적인 상징성 때문이다. 초대교회 박해시기가운데 기독교인의 표식으로 그려진 물고기 익투스( I X Θ Y Σ)<sup>176</sup>를 착안하여 통트랙을 물고기 모양으로 그린 것이다. 그리고 구약 3개, 신약 3개,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1개의 동그라미를 그려 넣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도식화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성경학교의 큰 주제 7개를 배치하여 성경전체를 한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프레임을 아래 그림과 같이 만들었다.



<그림 1> 통성경학교 통트랙 물고기 모양<sup>177</sup> <그림 2> 통성경학교 주제<sup>178</sup>

그리고 통성경학교의 목차를 살펴보면 이렇다.<sup>179</sup> 가장 기초적인

<sup>176</sup> 익투스는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나타내는 알파벳이다. 초대교회는 이 단어에 신앙과 통합시켜 그리스도인을 알리는 표시로 사용하였다. 물고기에 해당 하는 글자를 신앙적으로 바꿨다. Ιησους(예수), Χριστος(그리스도-크리스토스), Θεου(데우)-하나님의, Υιος(휘오스)- 아들, Σωτηρ(소테르)- 구원자 라는 뜻을 부여하여, 익투스는 "하느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다.

<sup>177</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415.

<sup>178</sup> Ibid.,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걸 표지 그림

<sup>179</sup> 2015년 통성경학교의 목차는 Pre -Step 1 과정으로 The Moment(그 순간), Pre -Step 2 과정으로 성경

통성경길라잡이를 제외하고 나서 큰 주제 6가지를 가장 큰 프레임으로 잡고 그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소주제를 넣었다. 통트랙에서 가장 큰 주제 6개는 이렇다.

1. 십자가 원 스토리 2. 제사장나라 하나님 나라 3. 하나님의 마음 4. 성경기도
5. 성경전도 6. 성경통독으로 구성된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는 다음과 같다.<sup>180</sup>

### 1). 십자가 원 스토리(One Story)

- 1과 십자가 ‘그 순간’
- 2과 움직이는 성막 500년
- 3과 예루살렘 성전 1000년
- 4과 너희 몸이 성전 - 주님의 몸 된 교회
- 5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 통통프레임 ‘그 순간’ 이야기

### 2).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 6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 7과 성경 66권의 7개의 분위기
- 8과 모세 5경
- 9과 왕정 500년
- 10과 페르시아 7권

---

과 영성을 배우고 다음으로 Step 1 과정에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7개 질문)를 배웠다. Step 2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음(66권)을 배웠고, Step 3 는 성경 줄기(52개)를 잡는 과정이었다. Step 4 에서는 성경을 통한 기도였고, Step 5에서 Family School(이야기 전도)로 과정을 마쳤다. 그런데 현재는 성경과 영성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게 된다. 현재 언급한 6가지 커리큘럼은 변동된 커리큘럼에 따른 배열이다.

<sup>180</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9-11. 목차 인용

11과 중간사 400년

12과 4복음서

13과 사도행전 30년

14과 공동서신 9권

통통프레임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 3). 하나님의 마음

15과 하나님의 마음 / 열방을 향한 꿈

16과 만나세대 / 신앙계승

17과 천년모범 / 마음과 지혜

18과 사랑의 줄 사명의 줄 / 절망 앞에 선 희망

19과 징계, 희망의 디딤돌 / 재건 공동체

20과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 기쁨을 위한 탄생

21과 한 영혼 사랑 / 용서를 향한 열정

22과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 열리는 제자 시대

23과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24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 미리 건네 받은 승리의 노래

통통프레임 하나님 마음알기

### 4). 성경기도

25과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

26과 모세의 기도

27과 한나의 기도

28과 다윗의 기도

29과 솔로몬의 기도

30과 예레미야의 기도

31과 느헤미야의 기도

32과 예수님의 기도

33과 시므온과 스테반의 기도

34과 바울의 기도

통통프레임 성경을 통통한 기도

## 5). 성경전도

35과 모세 - 나라세우기

36과 다윗 - 민족 통일하기

37과 선지자와 5대 제국

38과 사마리아인과 앓수르 제국

39과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

40과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

41과 유대인과 헬라 제국

42과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

43과 5대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통통프레임 패밀리 스쿨

## 6). 성경통독

44과 성경은 어떤 책인가?



45과 통통성경이란?

시간, 공간, 인간 / 개인, 가정, 나라 /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

46과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47과 왜 ‘역사순’ 으로 성경을 통통해야 하는가?

48과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49과 왜 5세인가? : 디모데와 사두개파 - 큰 그림 가르치기

50과 영성이란 무엇인가?

통통프레임 성경과 영성

51과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52과 《일년일독 통통성경》으로 1년 10독 성경통독

이와 같이 통성경을 알기 위해선 도식화된 통트랙을 바탕으로 통성경학교의 큰 그림을 이해해야 하며 가장 큰 주제 6가지 핵심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를 통합해야 한다.

#### 4.3.3 통성경학교 이해를 위한 6가지 핵심 주제이해

첫 번째로 십자가 원 스토리(One Story)의 통통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경 최고의 순간은 ‘십자가’ 사건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한 ‘그 순간’ 의 십자가이다. 그 순간 사건은 제사장 나라의 완성과 함께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수렴되는 사건이다.

그 순간 성전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500년을 유지하여 오던 제사장 나라가 마침내 ‘완성’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라는 선언으로)됨으로 끝나고,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인(sign)이었습니다.<sup>181</sup>

율법(모세오경)과 선지자(이사야-말라기)의 모든 내용이 “다 이루었다 ‘라는 십자가를 통한 완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전체의 원 스토리 복음이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알아야 한다. 구약성경의 키워드는 제사장 나라이다. 반면 신약성경의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이다. 조병호는 두 나라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두 나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sup>182</sup>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유지될 수 있다. 다섯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며 세 가지 조건은 제물 준비,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장의 도움으로만 드려야 한다.<sup>183</sup>

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조병호는 제사장나라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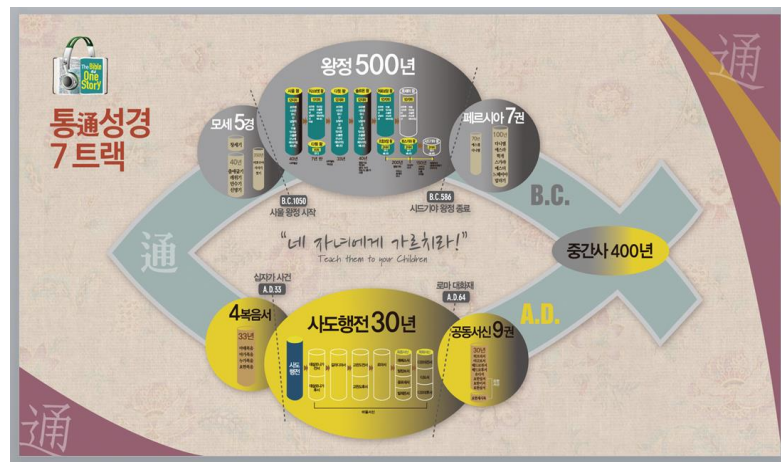
<sup>181</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13.

<sup>182</sup> Ibid., 54-57.

<sup>183</sup> Ibid., 58.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sup>184</sup>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아래 그림에 배치된 통통성경 7트랙을 이해 해야 한다.



〈그림 3〉 통통성경 7트랙<sup>185</sup>

먼저 통통성경 7트랙에 속한 성경의 분위기를 통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신학계에서는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성경은 크게 4가지<sup>186</sup>로 분류하여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로 나눈다. 신약성경도 크게 4가지<sup>187</sup>로 분류하여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으로

<sup>184</sup> Ibid., 63-65.

<sup>185</sup> Ibid., 69.

<sup>186</sup> 율법서 5권(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12권(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5권(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언서 17권(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오바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sup>187</sup> 복음서 4권(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 1권(사도행전), 서신서 21권 (바울서신 13권: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구분한다. 하지만 조병호는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 배열하여 큰 틀에서 구약을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신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관점으로 구약을 3가지 트랙(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구분하였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3가지 트랙(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으로 나누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기에 해당하는 신구약 중간기를 중간사 400년이라는 트랙 이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7개의 트랙 안에는 성경 66권을 일반신학에서 분류한 방법과 달리 비슷한 분위기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묶어 트랙 안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통성경 7트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의 분류에 대해 선 이해를 갖고 있어야 오해가 없고 통성경에서의 통通的 의미를 알 수 있다. 조병호가 나눈 통성경 7개의 트랙으로 구분한 성경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통성경 트랙 구분	통성경 성경 분류(분위기에 따라 분류)
1 트랙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2 트랙	왕정500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열왕기상 역대하 시가서 열왕기하 호세아 요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오바다
3 트랙	페르시아 7권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4 트랙	중간사 400년	없음
5 트랙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6 트랙	사도행전 30년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7 트랙	공동서신 9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표 4〉 통성경 7트랙 구분

먼저 통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통성경 전체의 분위기를 트랙 별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분위기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될 항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7개의 트랙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를

빌레몬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공동서신 8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2,3서, 유다서), 예언서 1권(요한계시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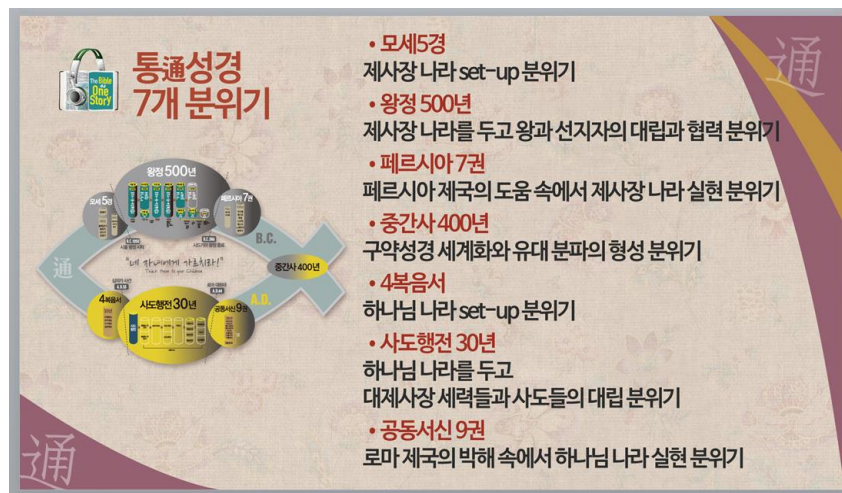
파악하는 것은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 받는 것이다. 성경은 거의 2000년의 시간을 품으며 5대제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국의 분위기와 그에 맞서는 제사장나라와 하나님나라의 분위기를 통으로 이해 하고 있어야 한다. 통성경 7개 트랙에 대한 분위기는 다음과 같다.

**모세오경**은 모세에 의하여 제사장 나라가 set-up(셋업)되는 분위기다.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가 대립과 협력하는 분위기다.

**페르시아 7권**은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는 분위기다.

**중간사 400년**은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의 형성 분위기다. **4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set up(셋업)되는 분위기다. **사도행전 30년**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대제사장 세력들과 사도들의 대립분위기다. **공동서신 9권**은 로마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하는 분위기다.<sup>188</sup>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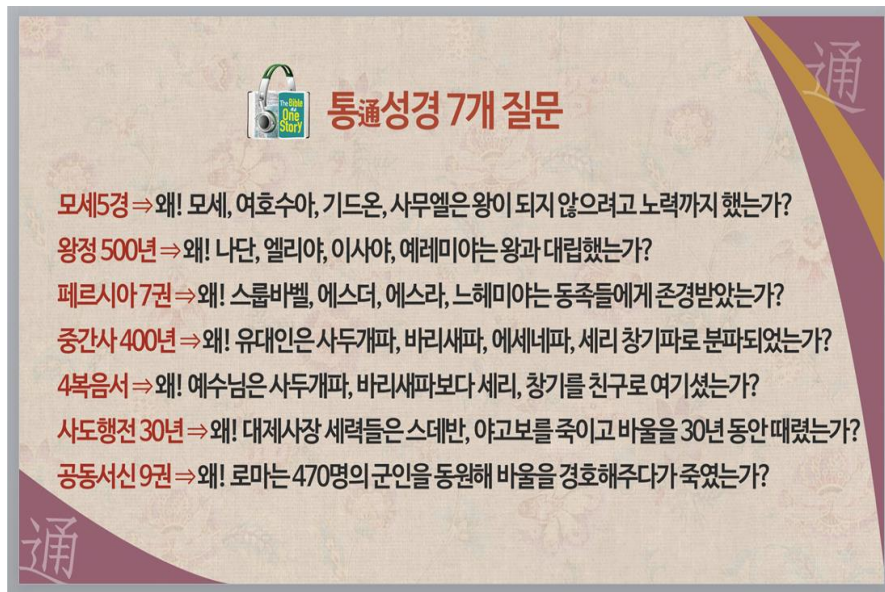
〈그림 4〉 통통성경 7개 분위기<sup>189</sup>

다음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랙 별로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를 이해하고 답을 해야 한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수준이 달라 진다. 통성경

<sup>188</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69.

<sup>189</sup> Ibid., 69.

7가지 질문은 통성경학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크게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해 하고 던진 질문이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도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답을 찾아야 한다. 통성경 7가지 질문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sup>190</sup> 질문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5〉 통성경 7개 질문<sup>191</sup>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마음 20가지와 성경 즐기 54가지를 알아야 한다.

<sup>190</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138-139.

모세오경의 질문?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이다. 왕정 500년의 질문?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왜냐하면,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침을 알았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7권의 질문?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제국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게 존경 받았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사장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중간사 400년의 질문?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4복음서의 질문?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겼는가? 왜냐하면 세리,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30년의 질문?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테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왜냐하면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공동서신 9권의 질문?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바울을 경호해주다가 죽였는가? 왜냐하면 로마 대 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sup>191</sup> Ibid., 70.

하나님이 마음은 크게 두 가지다. 기뻐하는 마음과 한탄하시는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다. 조병호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1단계는 하나님의 직접적, 간접적, 역설적 표현을 말한다.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이, 3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꿈과 눈물, 지혜와 노래, 용기와 하나 됨, 온유와 겸손, 기다림 등 구체적인 마음의 표현을 말한다. 이런 전체를 바탕으로 조병호는 성경 전체를 모두 20개 마당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sup>192</sup>

조병호가 나눈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전체를 관통하는 각각의 성경 주제와 같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약을 10가지 주제로, 신약은 9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요약했으며 중간사 400년은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조병호가 나눈 통성경의 전체 20가지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과 같다.<sup>193</sup>

**하나님의 마음 20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마음 2. 열방을 향한 꿈 3. 만나세대 4. 신앙계승 5. 천년모범, 6. 마음과 지혜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8. 절망 앞에선 희망 9. 징계, 희망의 디딤돌 10. 재건 공동체 11.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12. 기쁨을 위한 탄생 13. 한 영혼 사랑 14. 용서를 향한 열정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16. 열리는 제자시대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20. 미리 건네 받은 승리의 노래”

<sup>192</sup> 조병호, 『마음훈련』(서울: 통독원, 2015), 6-111. 하진영, “지역교회에서 통통성경학교의 목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강화베다니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드루대학교, 2018, 34-35. 에서 재인용

<sup>193</sup> 조병호, 『통통성경학교 STEP 2 마음 훈련』(서울: 통독원, 2015), 1-111. 에서 인용

조병호는 통성경 전체 속에 들어 있는 20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성경 노래를 만들어 통성경 전체 스토리를 암송하게 하였다. 그 노래는 아래 그림처럼 부른다.

**The Song of TongBible**  
통通성경 노래

Lyrics Byounggho Zoh (작사: 조병호)  
Composition Tong Orchestra (작곡: 통오케스트라)

joy - ful - bir - th Love for - one - soul Pa - ssion to - wards for give - ness  
기쁨 위 한 탄 생 한 영 혼 사 랑 용 서 를 향 한 열 정

In - vi - ta - tion to glo - ry and pea - ce The dis - ci - ple e - ra  
영 광 과 평 화 로 의 초 대 열 리 는 제 자 사 대

Extension of the gos - pel with no - boun - da - ries E - ter - nal - crown and - han - ded down re - quest  
경 계 를 넘 어 선 복 음 의 확 장 준 비 된 면 류 관 남 겨 진 부 탁

Le - tters for the - righ - teous fight and Song of vic - to - ry - pre - re - ceived  
선 한 싸 움 을 위 한 편 지 미 리 받 은 승 리 의 노 래

God ex - pre - sses his heart Dream for all na - tions Manna gene - ra - tion Suc - ce - ssion of - faith  
하 나 님 의 마 음 열 방 을 향 한 꿈 만 나 세 대 신 앙 계 승

Model for a thousand years Mind and - wis - dom Line of love line of mi - ssion  
천 년 모 범 마 음 과 지 혜 사 랑 의 줄 사 명 의 줄

Hope - stan - ding be - fore des - pair Punishment a ste - pping - stone of hope  
절 망 앞 에 선 회 망 징 계 회 망 의 디 딤 돌

A co - mmuni - ty of re - cons - truc - tion A blank page - full of his - to - ry  
재 건 공 동 체 어 땀 게 와 이 렇 게 사 이

〈그림 6〉 통통성경 노래<sup>194</sup>

<sup>194</sup> Ibid., 469.



조병호는 이렇게 20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류한 다음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더 세분화 하여 54가지 성경 줄기로 분류하였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통성경길라잡이에 잘 나타나 있다.

**성경줄기 54가지<sup>195</sup> 다음과 같다.**

1. 성경 66권이 1권으로, 2. 원역사, 3. 족장사, 4. 입(入)애굽과 민족,
5. 출(出)애굽과 제국, 6.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7.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8. 만나세대, 9. 만나학교 졸업, 10. 약속의 땅 입성, 11. 사사들이 가르치던 시기, 12. 교육의 성공사례, 13. 미스바세대, 14. 왕정의 시작, 15. 세 번의 기름부음: 다윗의 길, 16. 하나님이 중 다윗, 17. 솔로몬과 시가서,
18. 하늘보석, 19. 남북분열 200년, 20. 요나의 기적, 21. 북이스라엘 멸망, 22. 베들레헴의 목동들, 23. 남유다 멸망, 24. 잠깐의 징계, 25. 역대기 숲,
26.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27. 제국 변동의 밑그림, 28. 성전재건, 29. 에스더의 파티, 30. 에스라의 권한, 31. 성벽재건, 32. 고백과 침묵,
33. 헬라제국과 중간사 1: 모세5경의 세계화, 34. 헬라제국과 중간사 2: 마카비 혁명, 35.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36. 로마제국과 중간사, 37. 예수님의 탄생,
38. 공생애 3년: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39. 공생애 3년: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40. 공생애 3년: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41. 마지막 일주일: 산헤드린 재판과 빌라도 재판, 42. 십자가 승리 - 하나님 나라, 43. 열리는 제자시대: 그리스도인 탄생, 44. 바울의 1차 전도여행,
45. 바울의 2차 전도여행, 46. 바울의 3차 전도여행, 47.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48.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49.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50.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51.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52. 요한의 사랑의 선언편지, 53.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54. 역사순 통독

**네 번째로 성경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세부적인 성경줄기를 알고 난 다음에는 실제 영성형성을 위한 성경기도를 알아야 한다.** 통성경학교

교육커리큘럼에서 보듯이 성경기도의 배치는 통성경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경교육을 기본적으로 다 마친 후 할 수 있는 단계에 위치해 있다. 이제 본 논문의 주제인

<sup>195</sup>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2, 어드밴스드 북』(서울: 통독원, 2019), 6-11. 통성경학교 초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52가지로 분류했다가 후에 54가지로 확대하였다. 본 자료는 확대된 54가지 주제를 인용하였다.

성경기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조병호는 기도에 대해 말하길 기도는 순종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며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넘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이라고 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라고 했다.<sup>196</sup> 조병호는 성경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고 보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로 성경 안에서 찾고 성경적으로 기도함으로 응답 받는 것이 성경기도라고 하였다. 조병호는 성경기도가 무엇인지 예를 들기 위해 성경 속에서 기도의 사람 10명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기도를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조병호가 소개한 성경 속 성경기도의 사람은 아래와 같다.

1.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 2. 모세의 기도, 3. 한나의 기도, 4. 다윗의 기도, 5. 솔로몬의 기도, 6. 예레미야의 기도, 7. 느헤미야의 기도, 8. 예수님의 기도, 9. 시므온과 스테반의 기도, 10. 바울의 기도<sup>197</sup>

본 논문에서는 성경기도의 대표자 10명 중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1명씩 선택해 2명만 예를 들어 성경기도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구약의 인물 중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사람 엘리에셀의 기도를 예를 들면 이렇다.

**다메섹사람 엘리에셀의 성경기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될 이삭의 부인을 선택하기 위해 그와 함께 살고 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그의 친족들과 함께 거주했던 하란에 보내며 그 곳에서 며느리 감을

<sup>196</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서울: 통독원, 2020), 210.

<sup>197</sup> Ibid., 207.

구해오라고 하였다.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그냥 보낸 것이다. 제 3자가 볼 때 아브라함과 사래의 독자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는데 그의 종을 대책 없이 그냥 보낸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엘리에셀의 믿음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정할 만큼 그의 종 엘리에셀은 제사장나라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야만 믿고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800km 가 되는 험한 길을 불평 없이 가서 하란에 도착한 후 그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감을 찾기 위해 먼저 기도를 한다. 엘리에셀이 청한 기도의 밑바탕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몸으로 경험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야습하여 연합군으로부터 승리한 일(창 14:14-16)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사실을 알았고, 또 상속의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을 때 그의 상속자를 바로 자기 자신인 다메섹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목하였다. 이때 하나님은 아니라 말하며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신 일(창 15:2-4)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삼겠다고 하며 이삭을 기적처럼 낳게 하시며 언약을 체결하신 일(창 17:16-19)에 대해 알았고 이삭을 낳은 지 팔일 만에 어린 이삭의 몸에 칼을 댄 할례의 일(창 21:4)도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번제로 바친 모리아 산의 일(창 22:2)을 알고 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며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에셀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먼 거리로 떠나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이삭의 아내를 놓고 기도한 것이다.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과 모든 민족을 향한 ‘환대’ 와 관련이 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sup>198</sup>

엘리에셀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기도했다. 엘리에셀의 기도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의 아내 역시 천만인의 어머니로서의 마음크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기도는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있는 여인을 찾는데 집중되었다. 그 위대한 기도가 바로 하란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바라보며 기도한 기도이다.

우물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또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큰 사람으로 여기며 기도한 것이다. 당시 목마른 낙타는 100리터이상 마셨다고 한다. 10마리 일 경우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엘리에셀의 기도가 드러지자 마자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이 엘리에셀의 기도내용과 같이 응답하였다. 이것은 당시 여인으로서 큰 수고를 해야만 줄 수 있는 물이다. 이삭의 아내 감을 찾은 것이다. 이 기도가 응답 되고 나서 엘리에셀은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sup>198</sup> 개역개정 성경 창세기 24장 12-14절 인용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창 24:27)

그리고 엘리에셀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길을 늦추지 않고 다음날 그 먼 길로 향하여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것은 엘리에셀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7> 엘리에셀의 성경기도 패턴<sup>199</sup>

<그림 8> 엘리에셀의 성경기도<sup>200</sup>

그림에서 보듯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엘리에셀은 가장 먼저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림 7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때 5가지 사건과의 만남을 기억해 내며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리고 현재 이삭의 배필이 될 아내를 찾아야 하는 자신의 현실을 대면하고 과거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이삭의 아내 감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sup>199</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215.

<sup>200</sup> Ibid., 218.

모든 민족을 위한 천만인의 어머니 감에 대한 기도를 한다. 그리고 기도 후 바로 응답 받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바울의 성경기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성경기도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 성경기도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바울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잡이에 서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공부를 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였다.” (행 22:3) 그런 열심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했고 증오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가두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산헤드린이 허락해준 공문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다. 바울은 살기등등하여 기독교인을 색출하려 가던 중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며 땅으로 거꾸러진다. 이때 들린 음성이 “...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행 26:14) 는 음성을 듣는다. 이때 사울이 묻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한 후 바울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됨을 깨닫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sup>201</sup>

엘리에셀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성경기도를 분석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 할 수 있다.



〈그림 9〉 바울의 성경기도 패턴<sup>202</sup>



〈그림 10〉 바울의 성경기도<sup>203</sup>

바울의 기도 역시 그림에서 보듯이 엘리에셀과 같이 5가지 패턴 속에서 그때(모세 5경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통으로 이해)와 현재 상황을 대비시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난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성경기도 샘플에서 보듯이 성경기도에는 일정한 패턴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성경기도 안에는 5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조병호는 이 부분을 성경기도의 5단계로 명하며 성경기도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sup>201</sup> 개역개정 성경 로마서 8장 17-18절 인용

<sup>202</sup> 조병호, 『통성정학교 지도자지침서』(서울: 통독원, 2020), 298.

<sup>203</sup> Ibid., 304.

1.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
  - 이전의 하나님이야기들을 묵상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2. ‘나의 현실’ 대면하기
3. 성경묵상 후 나의 현실 간구하기
  - 기록된 성경이야기와 지금 나의 이야기가 만나야 된다
4. 응답받기
  -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 받는 사람들이다.
5.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sup>204</sup>

이 성경기도 5단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 통통성경 성경기도 5단계<sup>205</sup>

다섯 번째로 성경기도를 배우고 나면 다음단계로 성경전도를 배운다.

성경전도는 통성경학교에서 추구하는 패밀리 스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더 확대된 가족에게 가르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특별히 성경을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5대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로 풀어내어 성경으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음을 배운다. .

<sup>204</sup> Ibid., 210.

<sup>205</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210.



여섯 번째로 성경전도에 이어 통성경학교의 마지막 단계는 성경통독으로 이어진다. 조병호는 성경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밝히고 성경 66권을 부분이 아닌 전체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됨을 말했다. 그리고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함을 가르쳐야 된다고 언급하였다. 조병호는 기독교 영성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기록된 성경 속에서 영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언급하였다.

#### 4.3.4 통성경학교의 성경기도의 도전과 한계

이렇게 통성경학교와 성경기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성경 속에 나타난 성경기도의 실례를 들어 성경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기도의 탁월함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미 언급한 대로 최근 타 기관에서도 한국교회의 부흥과 영성회복을 위해 기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갖고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기관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경기도의 특징은 주로 정해진 본문을 일정시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이 이뤄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성경으로 기도한다는 점에서 통성경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정과 적용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말씀을 통(通)으로 보면서 기도하는가? 라는 통전의 문제이다. 타 기관의 성경기도는 정해진 본문을 주 텍스트로 삼아 기도하지만 통성경학교의 성경기도는 성경전체를 하나로 꿰어 오늘 나의 현실과 대비시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하는 기도 방식이다. 이런 면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기도를 목회적으로 적용할 때

약간의 한계점을 겪게 된다.

먼저는 성경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자’의 문제이다. 주로 통성경학교는 어린아이와 젊은 층을 중점 대상으로 삼고 학교를 운영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고령화된 사회이며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 고령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고령화된 교회에서 어르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학교를 열어 성경을 교육한다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통성경학교의 성경기도는 다음세대를 준비시키는 영성을 포함하는데 다음세대를 준비시키지 못하면 교회의 영성은 쇠퇴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성경기도가 지속적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마다 먼저 부모들이 패밀리스쿨을 할 수 있도록 통성경학교를 통해 성경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과거에 성경을 필요에 따라 읽으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신비주의에 빠진 것처럼 치우친 영성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성경적인 기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꾸준히 통성경 세대를 세워나가야 한다.

두 번째 한계상황은 ‘공동체성’의 문제이다. 기도는 개인중심의 골방기도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목회적 상황에 따라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것처럼 공동체성을 유지시키는 기도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훈련 받은 통성경학교의 성경기도는 개인 기도를 적용하기에는 쉽지만 공동체 기도로 이끌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타 기관의 성경기도는 그룹으로 함께 모여 큰 주제를 제시하고 정해진 본문 안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공동체 기도로 연합하여 기도한다. 하지만 통성경학교의 성경기도는 과거 성경 속의 사건을 기반으로 개인의 상황과 연결시켜 현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 이런 면에서 건강한 개인의 영성형성을 이루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교회라는 목회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가이드 라인을 온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성경기도를 위해서는 개인기도와 함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공동체적 성경기도의 사례를 찾아내고 목회상황에 맞는 공동체성을 세우기 위해 목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 메뉴얼’ 과 관련된 사항이다. 타 기관의 성경기도는 기도 운영 메뉴얼이 정해져 있다. 정해진 운영 메뉴얼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리더들에게 기도 인도 법을 가르친다. 이런 기도운영 메뉴얼은 교회 내에 성경기도가 일관성 있게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반면 통성경학교의 성경기도는 성경기도를 잘 하기 위한 기도 메뉴얼은 있지만 기도회를 운영하는 시스템 차원에서의 운영 메뉴얼은 제시하지 않았다. 통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통성경 길라잡이를 만들고, 통성경학교를 운영 하기 위해 통성경학교 길라잡이를 만들어 인도자를 교육한 것처럼 성경기도에 대한 이론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기도운영 메뉴얼인 가치 성경기도 길라잡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교회가 어느 곳에서든지 통일적으로 성경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기도를 진행하며 발생되고 예견된 한계점을 더 세부적으로 진단하여 대안을 세워야만 21세기 대안으로서 건강한 영성 형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발생되고 예견된 한계를 극복해 나갈 때 우리 삶과 공동체의 영역 안에 자연스럽게 통전적 영성이 형성되어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 될 것이다.

## 5. 통전적 영성 회복을 위한 적용

### 5.1 통성경학교(TBS)를 통한 통전적 영성형성

통성경학교는 21세기 성경회복운동과 동시에 영성 회복 운동이라고 말하였다. 통성경학교 과정 중 성경기도를 통해 영성 형성을 이뤄가는데 먼저 조병호가 말하는 성경적인 영성이 무엇인지 알고 영성 형성에 대한 도전을 해야 한다. 성경과 영성과의 관계를 먼저 알고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기도를 해야 한다.

조병호는 ‘성경과 영성’<sup>206</sup>이라는 저서에서 영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였다. ‘기록된 성경’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형성됨을 말하였다. 조병호는 성경과 영성에서 통성경학교의 통전으로서의 영성 형성을 위해 5가지 영성의 단계를 주장하였다.<sup>207</sup>

첫 단계, 기록된 성경을 아는 것이다. 조병호가 말하는 영성 형성의 출발은 기록된 성경에서 시작된다.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환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를 필요에 따라 만들어 예수를 형상화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조병호가 제시하는 영성의 출발은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음을 제시해

<sup>206</sup> 조병호는 통성경학교 커리큘럼안에 ‘성경과 영성’을 Pre-Step 2 과정을 집어넣어 통성경학교가 단순히 지성만을 키우는 학교가 아니라 먼저 영성이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병호가 말하는 영성의 중심축엔 ‘기록된 성경’이 자리 잡는다.

<sup>207</sup> 조병호, 『성경과 영성』 (서울: 통독원, 2015), 20-87,.

준다.

조병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담이나 예화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sup>208</sup>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조병호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말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처럼 사는 것이며, 예수를 닮는 것이라고 하였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sup>209</sup>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기록된 성경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다. 조병호는 순종과 기적의 관계를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순종 없이 기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기적’(miracle)은 ‘문명’(civilization)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발생한다<sup>210</sup>’ 고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이처럼 순종하여 살아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곧

<sup>208</sup> 개역개정 에베소서 1장 17절 인용

<sup>209</sup> 개역개정 히브리서 11장 6절 인용

<sup>210</sup> 조병호, 『성경과 영성』(서울: 통독원, 2015), 45.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다. 조병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로 이렇게 체험된 사실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결코 올바른 영성은 형성될 수 없다. 이것이 통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영성이다. 바로 이런 영성은 통성경학교 교육을 통해 통전적 사고형성을 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 5.1.1 통성경학교 교육을 통한 통전적 사고 형성

‘아는 만큼 누린다’ 말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통합시키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에 불과함을 말한다. 곧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통합해야 됨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격언이라 할 수 있다. 통성경학교 교육은 파편화된 교육이 아니라 통합된 통전적 사고 교육이다. 통성경학교 교육은 가장 성경적인 교육으로 실력자를 세워나가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통성경학교 커리큘럼을 가지고 부모가 5세부터 20세까지 자녀들에게 패밀리 스쿨을 했을 경우 이 아이들이 자라나 20세가 되었을 때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를 고백할 수 있는 실력자를 키우는 것이다. 이런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사업을 하고, 법을 연구하고,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월등한 삶을 살아낸다.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 이것은 통성경학교의 교육을 통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라는 통전적 사고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글로컬(Glocal)<sup>211</sup> 사도로 알려진 밥 로버츠(Bob Roberts)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 울타리 안으로 제안시키면 안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종교, 과학, 정치, 예술, 경제, 교육, 농업, 안보, 가정)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말하며 하나님 나라는 인간과 인간사회, 우주전체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활동이라 했다. 그리고 ‘교회의 과업 중 하나는 세계를 변혁하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는 법을 배우는 일’ 이라고 하였다.<sup>212</sup> 조병호가 바라는 통성경운동 역시 밥 로버츠가 말하듯 교회는 성경을 배운 자들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도록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런 마음으로 조병호는 통성경학교의 비전을 꿈꾸며 통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통성경학교를 시작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시’ 한편을 고백한 후 통성경을 배우게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꿈도 눈물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 됨도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sup>213</sup>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라는 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sup>214</sup>

이런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통성경학교 교육이다. 통성경학교의 통전적 교육은 어린 나이인 5세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sup>211</sup> 글로컬(Glocal)은 global + local의 합성어이다. 로버츠는 글로컬넷이라는 훈련조직을 통해 영적지도 를 이용하여 교회 개척자들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사회 참여하는 법을 가르쳤다.

<sup>212</sup>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 『ReJesus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 홍병룡옮김 (서울: 포이에마, 2009). 208.

<sup>213</sup>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12.

<sup>214</sup> Ibid., 12.

조병호는 주장한다. 그 이유는 5세부터 3가지 큰 그림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으로 본다. 3가지 큰 그림은 바로 **나라와 마음과 민족**에 대한 가르침이다. 나라 이야기를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가르치고 마음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민족을 가르치되 국소적인 배타적인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가르쳐서 모든 민족을 품고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병호는 작은 그림 천 개를 모아도 큰 그림 하나가 되지 않음을 역설하며 큰 그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큰 그림을 먼저 그리면 그 안에 작은 그림 천 개를 그려 넣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215</sup> 바로 이런 사고를 통전적 사고라 할 수 있다. 통성경학교의 패밀리스쿨의 통전적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지 구약성경의 대표적 두 인물 모세와 다니엘을 들어 설명해 본다. 두 인물의 공통점은 자유를 잃은 포로민의 상황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살았다는 점이다.

먼저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의 통전적 사고와 영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모세에게 있어서 큰 그림 교육은 어머니 품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어머니 품에 안겨 젖떼기까지 배운 것이 전체 교육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짧은 시간의 교육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끌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린 시간이 되었다. 모세는 성장해 가며 나라와 마음과 민족이 무엇인지 알아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제국에 의한 왕의 통치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 하여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도록 모세를 통해 일하셨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몇 번이나 민족 전체가 불순종하여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바로 언약에 근거한

<sup>215</sup>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15.



중보기도(성경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어 그 백성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광야 40년 마지막까지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가나안 문턱까지 그 백성을 인도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젓먹이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짧은 성경교육이 그 안에 통전적 영성으로 형성되었고 그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어도 모세는 어린 시절 형성된 영성으로 통전적 사고를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 시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 대해 통전적 영성, 통전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눠본다.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국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미 어린 시절 다니엘의 마음에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가 월등함을 알았기에 그는 왕의 명을 거역하며 뜻을 정했던 것이다. 후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 왕의 총애를 입었을 때 이를 시기한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몄다. 왕으로부터 삼십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으라는 조서를 받아내어 바벨론 전역에 금령을 내린 것이다.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나라에서 총리직을 맡고 있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단 6:4-10).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 시절 다니엘이 통성경 패밀리교육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때 드렸던 기도를 다니엘은 부모로부터 배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sup>216</sup>

이것이 바로 통성경학교의 패밀리 스쿨의 위대함이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제국을 능가하는 제사장 나라의 통치법을 기억하고 성경기도하는 모세와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통전적 성경교육을 통한 통전적 영성의 위대함을 보게 된다. 모세와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교육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며 통전적 사고를 통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낸 것이다. 이런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성경기도하는 자녀들은 통전적 영성형성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통전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함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통전적 영성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

### 5.1.2 통성경학교의 운영과 실제

통성경학교의 운영 준비는 다음과 같다. 통성경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독원에서 진행하는 통성경학교 렉처러 코스를 이수해야 한다. 성경 통독원에서는 주기적으로 통성경강사교육으로 통통성경 렉처러코스(Lecturer Course)를 통해 통성경 전문 강사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2023년 2월 기준으로 렉처러코스는 53차가 진행되었다. 필자도 2014년 가평 성경통독원에 가서 2주간의

<sup>216</sup> 개역개정 성경 열왕기상 8장 47-49절 인용

렉처리코스 19기를 이수하여 성경통독원으로부터 통성경학교를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았다. 렉처리 코스 이수 후 『통통성경길라잡이』 52과를 익혀서 성경의 큰 그림인 숲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통통성경학교』 52과를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야 통성경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통성경학교의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렉처리코스를 이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통성경학교를 배우기 위해 포스트로 참석하여 통성경학교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통성경학교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통성경학교 운영은 권역별 센터(Center TBS)운영과 지역교회(Local TBS)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하 통성경학교에 대한 호칭은 TBS로 표기 한다.

먼저 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는 TBS 권역별 운영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통독원에서 통성경학교의 세계화를 위해 먼저 국내 렉처리코스 이수교회를 중심으로 서울, 경기, 중부, 호남, 영남지역교회를 권역별로 묶어 센터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센터는 본부기능을 하는 성경통독원의 안내에 따라 통성경학교를 개강한다. 성경통독원에서는 센터별 운영이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증된 강사진<sup>217</sup>을 구성하여 각 센터에 강사진을 파송한다. 권역별 통성경학교는 코로나19 이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통독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엔 대면교육이 어려웠기에 줌을 통하여 통성경학교를 진행하기도 하였다(2021년). 권역별 운영의 장점은 규모가 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참여 할 수 있고 또 검증된 강사진을 통해 풍성한 통성경학교가 진행 될 수 있다는

<sup>217</sup> 통독원에서는 검증된 강사진을 준비하기 위해 렉처리코스 이수자들로 하여금 통성경학교의 한 부분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통독원에 보낼 것을 제안하고 강의할 원고를 받으며 실제 통독원에 와서 렉처리코스 이수자들 앞에 서서 통성경 강의를 짧게 구연해 보도록 테스트 한다.

장점을 가진다. 센터별로 센터장과 센터지기가 세워져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기까지 학사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출석관리, 과제관리, 보충학습관리, 수료증 등). 반면 단점은 센터별 운영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 가장 큰 단점은 참여인원의 문제와 예산이다. 외부 강사진을 위한 예산과 진행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데 참여인원이 적어지면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 센터운영은 지역교회와 통성경을 하는 교회가 연합할 때 가능하며 지속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센터중심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소그룹 중심으로 통성경학교를 하기 원하는 교회는 개체교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체교회 운영의 장점은 개체교회 상황에 맞춰 커리큘럼을 짜고 다양한 소그룹을 형성하여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이다(여러 반을 만들어 운영). 또한 통성경학교를 이미 수료하신 분들의 아쉬움은 다음 단계과정이 필요한데 그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인 통성경 어드밴스드 과정을 소그룹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통성경 기초반과 어드밴스드 과정반 모두 개체교회는 요일을 달리하여 진행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통성경학교 진행을 센터별 진행처럼 여러 강사가 하지 않고 개체교회 교역자가 주로 맡아 진행하기에 성도들과의 친밀감을 더 형성할 수 있고 그룹별 수준에 맞는 교육도 가능하여 가르침을 극대화 할 수고 결석자 관리차원에서 보강이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도와 줄 주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최소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다. 단점으로는 외부 강사의 도움이 덜 하기에 개체 교회 목회자 혼자 하기에는 시간적 부담감이 있고 또 통성경 전문성이 잘 갖춰지지 않은 목회자가 혼자 할

경우엔 학습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목회상황이 발생할 경우 커리큘럼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 또한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체에서 진행하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긴장감 없이 참여하게 된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려면 통성경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도우미를 세우고, 보다 더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통성경전문성을 키워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다면 모든 사역자들이 렉처리코스를 이수하고 통성경학교 강사자격을 획득하여 서로 협력하여 통성경학교를 개설한다면 개체교회 운영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우선 2015년부터 진행해온 권역별 통성경학교 운영의 실제에 대해 언급해 본다. 필자가 속한 교회는 경기 부천시역을 통합하는 센터교회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보다 통성경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다른 교회보다 높은 편으로 운영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 ①. 홍보 및 준비

가정 먼저 성경통독원은 권역별로 통성경학교에 대한 개강 일정을 논의하고 센터장, 센터지기, 강사진을 준비한다. 다음으로 통독원에서는 통성경학교 홍보를 위해 권역별 통성경학교 일정에 대한 공지를 렉처리코스를 이수한 모든 목회자에게 알리며 통독원 홈페이지(<http://tongdok.net>)를 통해 게시한다. 그리고 권역별에 속한 교회는 교회적으로 광고하여 참여할 학생들을 사전에 준비시킨다.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파악하여 통성경학교 예산과 전체 진행계획을 세우며 학습할 교재를 확보한다. 센터교회는 성경통독원 본부로부터 통성경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 문서와 통성경학교가 통일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된 운영 큐시트를 사전에 받아서 홍보와 진행을 미리 준비 한다. 특별히 TBS강사는 검증된 강사로 준비되기

위해 본인 강의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여 강의 원고를 만들고 그 원고를 바탕으로 10분 영상을 촬영하여 강의 원고와 함께 통독원에 보내어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강사로서 부담되는 일이지만 TBS의 질을 최대한 높이고 TBS의 평가와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통성경학교 운영은 철저하게 권역별 센터 TBS운영 행정리스트에 준하여 진행한다. 행정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별 준비현황 2. 센터별 입학생명단 3. 출석, 과제, 통독성경읽기 확인표 4. 진행 시나리오 5. 입학식&오리엔테이션 시나리오 6.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PPT, 7. 수업진행보고서 8. 과제 리스트(주차별) 9. 수료식 시나리오 10. 수료식 PPT 11. 재정보고서 12. 최종보고서<sup>218</sup>

## ②. 등록

센터별 TBS를 위해 통독원과 권역별 교회로부터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동시에 받고 TBS에 필요한 이름표, 교제와 자료들을 현장에서 제공한다.

## ③.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TBS 개강하는 날 통독원에서 제공한 입학식 시나리오에 따라 센터지기의 입학식 시작선언과 함께 센터장의 환영인사를 통하여 입학식이 시작된다. 그 후 입학식 중 사전에 반장 부반장으로 세워진 도우미 2인으로 하여금 입학식 서약서를 낭독하게 하며 모두 함께 서약하게 한다. 마지막 순서로 통성경 노래를 부르고 센터지기가 나와 오리엔테이션을 가짐으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친다.

## ④. 강의 및 과제

강의는 10강으로 진행하며 센터장이 처음과 끝부분을 강의하고 센터지기도

<sup>218</sup> 부록에 통성경운영 행정문서 12가지 이미지를 첨부함

한 강의로 맡고 나머지 강의는 통독원에서 검증된 강사로 세운다. TBS 강의 역시 통독원에서 제공된 강의 계획에 따라 준비하며 철저히 시간을 지키며 강의한다. 또한 부득이 결석한 학생들을 위해 다음 주 TBS 시작 한 시간 전에 센터지기를 통해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 책임감을 부여해 준다. 이 부분은 센터의 재량에 맡긴다. 그리고 모든 강의를 끝나면 학생들에게 다음 강의를 듣기 위해 매 주차마다 통독원에서 제공한 과제물을 부여해 주어 TBS가 센터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개인생활 속에서 계속 학습하여 TBS 효과를 높이게 한다. 또한 모든 과제물을 제출해야 수료자격이 주어짐을 명시하며 진행한다.

#### ⑤. 매 주차 센터별 TBS 보고

매주 강의를 끝나면 센터지기는 수업진행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날 참여한 학생들의 정보와 각 강사들이 메뉴얼대로 강의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시간은 잘 지켜졌는지 등 기본사항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작성된 보고서는 그 주 통독원으로 이메일 발송한다. 또한 센터지기는 매 주차마다 변동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통독원에 요청하고 마지막 주차에서는 수료식 준비를 위해 수료대상자를 조사하여 수료증을 통독원에 요청한다.

#### ⑥. 수료식 및 최종보고서

수료식을 위해 10주 과정의 마지막 강의는 45분 강의로 마치고 약 15분 동안 수료식을 갖는다. 수료식 역시 입학식과 같이 통독원에서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한다. 센터지기의 수료식 선언과 함께 통성경 노래를 부르고 모범학생을 선발하여 시상한다(센터장 수여), 수료자 서약서낭독을 위해 학생대표를 뽑아 낭독하게 하며 수료자 전원이 함께 서약하게 한다. 서약식이 끝나면 센터장이 수료증 수여를 하고 결단과 파송의 시간을 갖고 센터장의 축도로 TBS 수료식을 마친다. 그리고 센터지기는 그 주에 TBS 최종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독원에 보낸다.

### ⑦. 평가 및 센터 연합컨퍼런스

모든 TBS 과정이 끝나면 권역별 센터에서는 TBS 평가를 하고 다음 기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TBS 수료자로 부터 TBS를 추천하고 싶은 명단을 확보한다. 그리고 통독원에서는 권역별 모임이 끝나면 후에 연합 컨퍼런스를 통독원에서 시행해 권역별 TBS 보고 시간을 갖고 통독원 대표 조병호로부터 통성경 강의를 듣는 것으로 권역별 TBS 연합 컨퍼런스를 마친다.

다음으로 개체교회 중심의 TBS운영에 대해 살펴본다. 개체교회 운영은 권역별 센터 운영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된다. 센터처럼 40명이상 의 학급분위기로 진행되지 않고 25명 미만 소그룹으로 진행되기에 운영면에 있어서 개체교회 형편에 맞추어 진행한다. 필자의 교회는 경기부천시 지역 센터교회로 TBS를 3회 진행했기에 통성경학교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재수강으로 참여하며 공부한 분들도 여러 명이 있기에 통성경학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았다. 권역별 센터교회의 기수가 3기를 넘기면서부터 입학생들의 수가 현저히 줄게 되었기에 센터교회 TBS를 내려놓고 개체교회 자체적으로 TBS를 운영을 하였다. 필자가 속한 내동교회는 그동안 교회적으로 내동바이블칼리지(Bible College)라고 하는 성경연구 과정이 있다. 그래서 내동바이블칼리지 시간을 통성경학교로 이용해 3월과 9월 전 후반기로 2회 진행하였다. 한번 운영하면 약 3개월의 시간을 진행하였다.

필자가 속한 개체교회 TBS운영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다.

### ①. TBS 도입 준비과정 - 통성경길라잡이 강의

TBS를 운영하기 앞서서 교회 안에 TBS를 소개하고 기본적인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운영 전 단계로 2015년 3월 ~ 5월까지 봄학기 12주과정으로 담임목사가 주강사가 되어 통성경길라잡이를 진행 하였다.



## ②. 제 4기 개체교회 TBS 개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센터 TBS 3기를 배출하고 나서 그 후 센터별 운영이 어려워 2017년 4기부터는 개체 교회 TBS로 전환하여 교회적으로 실시하였다. 내동바이블 칼리지 가을학기인 9월에 교회적으로 통성경학교를 개설 광고를 내며 신청을 받았다. 주일반과 목요반을 개설하여 신청을 받았고 각 한 반에 20명 미만으로 모집되어 소그룹으로 진행하였다.

## ③. 등록 및 운영

시기는 3월과 9월 전후반기로 하되 각각 12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요일은 주일과 목요일로 하되 주일반은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 까지 하였고 목요반은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진행하였다. 등록은 내동바이블 칼리지 신청을 통해 자율적으로 받았으며 그 동안 기초 통성경학교반을 마치신 분들을 중심으로 TBS 심화과정으로 어드밴스드 과정을 안내하였다. 처음 신규로 TBS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 예산으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였고 일부는 자부담하였다. 그리고 운영비로 약간의 등록비를 받았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반마다 반장과 부반장을 세워 출석관리와 행정관리를 맡겼다. 그렇다고 권역별 센터처럼 행정문서를 정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운영은 목회상황에 맞추어 약간 유동적으로 TBS를 진행하였다.

## ④. 과정 및 강의

TBS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기초반인 통성경학교반과 심화과정인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 가을학기에 시작한 TBS 4기부터는 어드밴스드 과정만 진행하였다. 어드밴스드 과정은 교재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로 나누어 전·후반기로 가르쳤다. 이유는 권역별 센터처럼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2시간씩 짧은 시간을 강의 했기

때문이다. 어드밴스드 과정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체 과정을 반으로 나눠 강의 하였다. 강의는 커리큘럼 범위에 따라 하되 강사의 자율에 두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는 센터에서 할 때보다는 많이 완화시켜서 그 다음 주 강의할 주 교재와 부교재 부분을 읽어오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결석자는 따로 시간을 내어 보강을 해주고 보강이 어려울 경우엔 강의 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지난 강의를 복습하였다.

#### ⑥. 수료 및 평가

모든 과정을 마친 분들에게 따로 수료식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교회적으로 수료자 명부를 관리하여 당회시 직분자를 세울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개체교회 TBS는 통독원과 무관하기에 따로 보고서를 올리거나 재정보고를 하지 않았다. 수료하는 날 친교의 시간으로 공동식사를 하며 식사 후 평가의 시간을 가지며 다음 기수 TBS를 소개하며 TBS 종강을 하였다.

#### 5.1.3 통전적 영성형성을 위한 성경기도의 실례: 내동교회 사례

필자가 섬기는 내동교회는 TBS운영을 위한 경기부천지역센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TBS를 여러 차례 운영하였다. 제 1기를 2015년 9-11월 기간 동안 진행하였고 제 2기를 2016년 3-5월 기간 동안 진행했으며 제 3기를 2016년 9-11월까지 진행하였다. 2017년부터는 TBS 이수자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어드밴스드 과정을 2019년까지 총 7기까지 이어왔다. 내동교회는 적어도 TBS 이수자와 어드밴스드 과정 포함하여 193명정도가 된다.

통성경학교 과정	통성경학교운영 일정	등록 및 수료
제 1 기 기본과정	2015년 9-11월	60명(내동교회 52명)
제 2 기 기본과정	2016년 3-5월	54명(내동교회 45명)
제 3 기 기본과정	2016년 9-11월	34명(내동교회 32명)
제 4 기 어드밴스드 과정	2017년 9-11월	14명
제 5 기 어드밴스드 과정	2018년 9-11월	14명
제 6 기 어드밴스드 과정	2019년 3 -5월	17명
제 7 기 어드밴스드 과정	2019년 9-11월	19명

〈표 5〉 내동교회 통성경학교(TBS) 운영결과

이후 코로나 19가 발생하여 교회 내 소그룹 활동은 방역법에 의해 모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TBS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코로나 19 방역법이 어느 정도 완화된 2022년 여름을 이용하여 그 동안 TBS를 해운 성도들이 대다수 수요예배에 참석하기에 수요예배를 이용하여 하나님과 통통하는 성경기도라는 주제로 7월부터 9월까지 11회에 걸쳐 TBS를 바탕으로 한 성경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주	2022년 수요예배	본 문	주 제
1	7월 6일	딤후 3:14-17	하나님과 통통하는 성경기도
2	7월 13일	창 24:10-15	모든 민족을 향한 엘리에셀의 기도
3	7월 20일	삼상 2:1-10	새 시대를 여는 한나의 기도
4	7월 27일	느 1:4-11	천년을 담은 느헤미야의 기도
5	8월 3일	요 17:1-5	궁핍의 최고봉, 예수님의 기도
6	8월 17일	행 7:54-60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의 기도
7	8월 24일	엡 1:15-19	영혼구원의 전도자, 바울의 기도
8	8월 31일	눅 2:22-39	기다림의 사람, 시몬과 안나의 기도
9	9월 7일	벧전 4:7-11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기도
10	9월 14일	요일 5:13-17	사랑의 사도, 요한의 기도
11	9월 21일	막 10:46-52	맹인, 바디매오의 기도

〈표 6〉 내동교회 성경기도 특강운영

조병호는 성경기도의 사람을 실례를 찾아 소개하되 구약에서 7명의 대표자(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기도의 여인 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지혜와 성전건축을 이룬 솔로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성벽재건을 통해 예루살렘에 기쁨을 회복한 느헤미야)와 신약에서 4명(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린 시므온,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대표자를 찾아 예로 들어 성경기도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였다. 필자는 성경기도를 준비하며 조병호가 언급한 기도의 사람 외에 사랑의 사도 요한과 맹인 바디매오를 성경기도의 사람으로 뽑아 말씀을 새롭게 구성하여 전했다.

이미 본 논문 본문에서 내동교회의 TBS와 성경기도에 대한 실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런 시도의 결론은 균형잡힌 영성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검증되었듯이 기독교 영성 형성의 두 핵은 성경과 기도라고 이미 밝혔다. 어떻게 하면 성경과 기도를 분리하지 않고 통으로 묶어 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의 해답은 지금으로선 한가지 밖에 없다. 바로 TBS를 통한 성경기도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기도할 때 통전적 영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 6. 통성경학교(TBS)의 성경기도가 영성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지금까지 TBS를 통한 성경기도와 통전적 영성 형성에 대한 기본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신학적, 성서적, 역사적 근거들을 제시함으로 균형 잡힌 신학과 신앙의 표준을 통통으로 해석해 왔다. 이제 구체적으로 TBS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별히 TBS의 성경기도가 미치는 통전적 영성 형성에 대해 기본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분석하여 그 영향력을 평가해 보았다.

### 6.1 설문조사 및 인터뷰

통성경학교의 영향력 평가를 위해 그 동안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성경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영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한 이유는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조 평가를 위해서 두 가지 영향력 평가를 함께 진행하였다. 먼저 설문지 조사를 위한 대상자 선정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 통성경학교(TBS)와 성경기도강의와 워샵에 참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인터뷰는 모든 교육을 마치고 실제 성경기도를 하고 있는 두 그룹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에 대한 목적과 방법론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은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성도들이 성경기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차원은 TBS(통성경학교)가 개인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TBS(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기도가 영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차원은 주관식 개념으로 TBS의 성경기도와 통전적 영성 형성에 대한 한계와 극복을 위한 제언? 을 해 달라 이렇게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공정성 평가를 위해 먼저 설문지의 취지와 용도를 밝혔고 다음으로 설문응답자의 성별과 나이에 대한 기본 물음을 통해 설문지의 주된 응답자의 기본 신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본 질문에 들어갔다. 설문방식은 언제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는 구글 설문지<sup>219</sup>를 일차적으로 이용했으며 구글 설문조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면 설문지<sup>220</sup>를 작성하여 개인별로 나눠드림으로 설문지를 받았다. 설문기간은 일주일(2023, 2월 22일부터 - 29일까지)의 시간을 두고 개별적으로 전달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내용의 수는 신상에 관한 질문 2개와 본 질문에 해당하는 객관식 10가지와 한계와 극복을 위한 제언으로 주관식 3가지 질문을 던져 총 15가지 설문내용을 작성하게 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 설문지에 참여한 사람은 총 63명으로 집계되었다. 온라인 구글 설문지에 약 40명정도가 참여하였고 나머지 20여명은 지면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 6.2 조사 결과보고

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기도와 통전적 영성 형성에 대한 설문지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지면 설문답변도 구글 설문지로 옮겨 통계를 냄)

<sup>219</sup> 구글 설문지 링크연결주소  
20<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6pUTMn3bXyqiOwR1uDe2R6zMXLn-9eyvowVfXTXLtqKLlw/viewform?fbzx=9150313366001792803>(2023년 2월 28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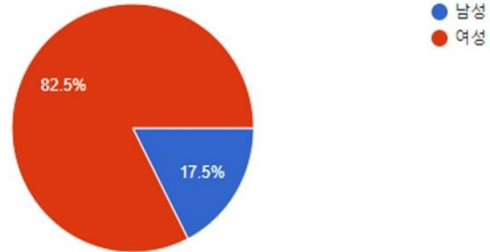
<sup>220</sup> 부록 - 설문지 내용 참고

## 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기도(말씀기도)와 통전적 영성 형성에 관한 설문조사

1. 자신의 성별에 V표 해 주세요.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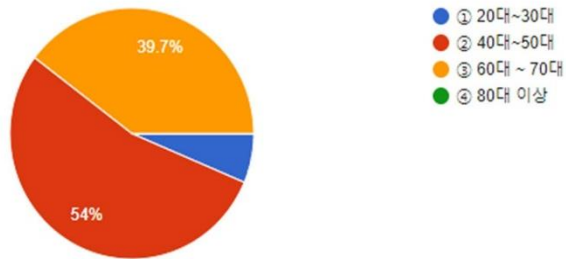
응답 63개



2. 현재 자신의 연령에 V표 해 주세요

 복사

응답 6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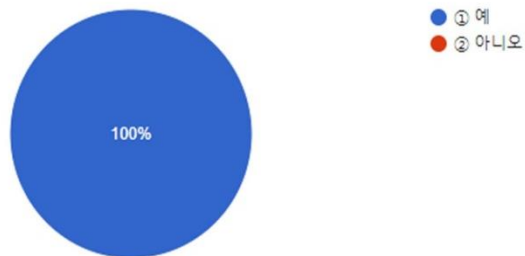


3. 당신은 신앙생활하며 영성(靈性) 또는 영성형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복사

해당 번호에 V표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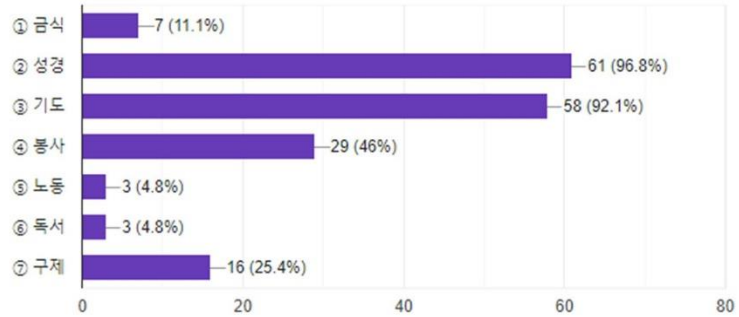
응답 63개



4. 당신은 아래 보기 항목에서 기독교의 영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  
는지 해당되는 요소 중 세가지만 골라 번호로 적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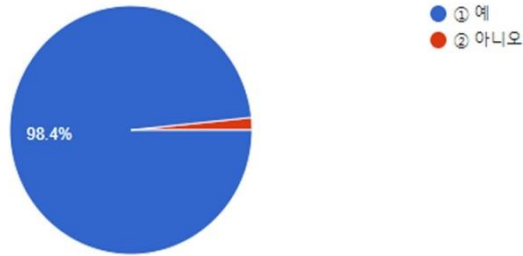
응답 63개



5. 당신은 성경기도(말씀기도)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해당번호에 V표 해 주세  
요.)



응답 62개



6. 당신이 생각할 때 성경기도(말씀기도)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  
요.



응답 6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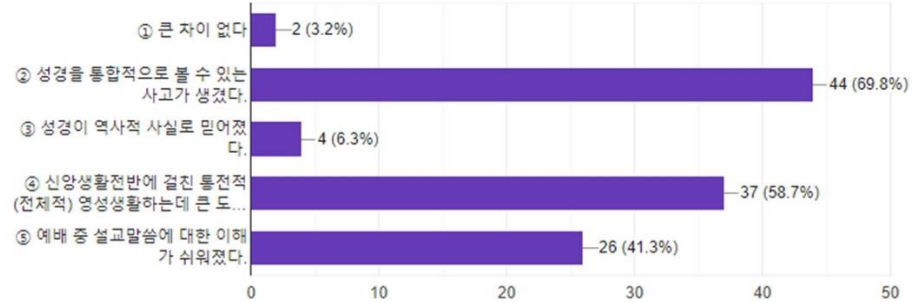




7. 통성경학교(내동바이블 칼리지 포함)를 수료하고 나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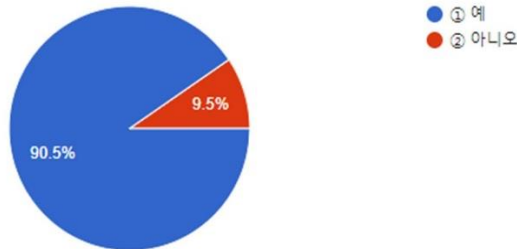
응답 63개



8. 통성경학교(내동바이블칼리지)와 성경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기도(말씀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 6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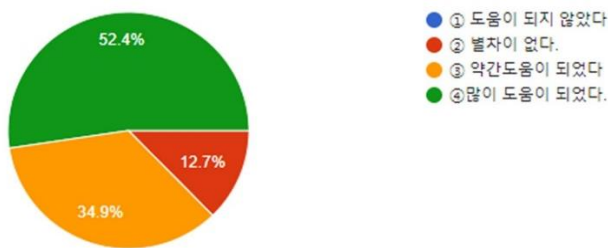


9. ※ 성경기도(말씀기도)를 해보신 분들만 응답해 주세요. 당신은 성경기도(말씀기도)가 당신의 통전적(전체적)영성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번호에 V표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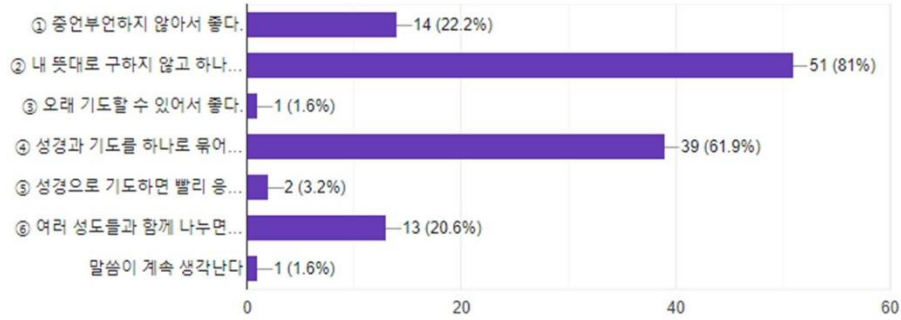
응답 63개



10. 성경기도(말씀기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해당번호에 V표 해 주세요? (기타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적어 주세요)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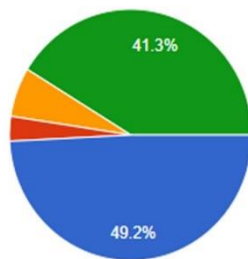
응답 63개



11. 통성경학교의 훈련과정 없이 성경기도(말씀기도)를 할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사

응답 6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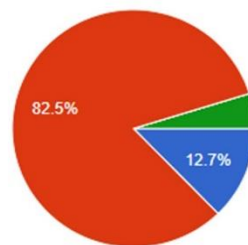


- ①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영성이 형성될 수 있다.
- ② 깊고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없다.
- ③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
- ④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구하기 쉽다.

12. 성경기도(말씀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해당번호에 V표 해 주세요

복사

응답 63개



- ① 주요 성경구절 성경암송
- ② 성경전체를 통(通)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교육
- ③ 다양한 중보기도 제목과 정보
- ④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13. 성경기도(말씀기도)와 일반적인 기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되는지 간략히 적어주세요.	
1	성경으로 기도 할수 있다는 점
2	성경기도는 내생각이 아니라 성경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는 점
3	성경말씀을 기반으로 기도(요구)할 수 있는 것
4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
5	말씀기도는 이미주신 약속의말씀으로 하나님뜻대로 하는 기도이다
6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므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확히 아릴 수 있다.
7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를 기도함
8	간략하게기도하더라도말씀에입각해기도하니기도의깊이가달라진듯
9	어렵고 힘든 상황이올때그상황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말씀에.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마음이 있는데 그냥나홀로 중언부언 하는 기도 내생각과 내뜻대로 구하는 기도와는 큰차이점이 있는것같다
10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삶을 보는지 인간인 내 관점으로 세상과 삶을 보는지의 차이
11	말씀에 근거한 기도 vs 나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기도
12	말씀이 각인이 되어 삶의 지표로 삼고 깊은 영성을 느낄수 있다
13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하는 기도는 내가 바라는것들에 대한 기도만 하게 되었는데 성경기도를 하게 되면서 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4	말씀에순종하는삶 성령님의 인도하심과회개를통한주님의삶을 닮아가는것
15	일반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기도/성경기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기도
16	구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할수있다.
17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
18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기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할수 있는 기회가 좁혀지고 기도할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수 있는점이 좋다
19	기도의 깊고 풍성함의 없는것 같음
20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21	일반적인기도는 기복이거나 안전을 위한 기도가 많을수 있지만 성경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차이가 있다
22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23	하나님의 관점과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
24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함
25	성경기도 말씀 자체가 기도다
26	말씀위주로 기도하는것이 은혜롭다

13. 성경기도(말씀기도)와 일반적인 기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되는지 간략히 적어주세요.	
27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므로 내생각이 아닌 주님을 뜻으로구하며 나갈수있어서 좋다
28	하나님의뜻 보다 내뜻이 앞선 기도를 하게된다.
29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
30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할수 있다.(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31	기도의 주체
32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힘쓰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된다
33	혼자는 어려워요
34	성경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된다
35	확신에 의한간구
36	말씀에 의지하여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더 생긴다
37	말씀기도는 오래 기도 할 수 없다
38	말씀을 내맘대로 해석하고 문자대로 기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39	성경기도(말씀기도)->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음 일반적인기도: 내 생각대로 기도
40	좀 더 확신 속에서도 기도
41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위로를 알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도는 내 중심(육신욕구)의 기도를 하기쉽다
42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체험
43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깨닫게 됨
44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점
45	말씀기도는 내뜻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때문이다 일반기도는 중언부언하고 내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46	일반 기도는 자칫 자기 중심의 기도로 할 수 있지만 말씀기도는 말씀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47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과 혼자하는 것
48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 진다
49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50	말씀에서 떠난 기도가 아닌 말씀의 기도가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51	일반 기도는 기도훈련이 되지 않아서 깊이 기도하기 힘들고 말씀기도는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가 되어 기도를 깊이함
52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상황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 앞에 문제의 답을 찾게 된다.
53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54	말씀이 일하시도록 간구한다
55	사변적인 기도, 말씀적인 기도
56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린다

14. 성경기도(말씀기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니까? 간략히 적어주세요.	
1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으면 성경기도의 방향이 어렵게 되는점
2	어느 성경 구절인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함
3	기다림(주님의 뜻을 분별하는것)
4	혼자 지속하는게 쉽지 않다
5	말씀이 충분히 묵상되어야 하므로 묵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6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될 때
7	말씀 암송이 필요 한 듯 합니다
8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 없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기 어렵다 생각함
9	꾸준함
10	말씀 배경 지식
11	성경을 많이 읽고 읽은 만큼 이해가 되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말씀은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12	성령세례와 말씀 기도가없으면 힘들것같다
13	성경적인 지식부족
14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때
15	전체적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마음)을 먼저 알고 기도해야 한다.
16	말씀을 잘못해석할수 있고 다른사람이 잘못해석을 하게되어도 말하기가 쉽지 않다
17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지 못해서
18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기에 집중해야 하는점이 어렵습니다
19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가 좀 어렵다
20	주님 마음을 잘 모를때~
21	난해한 성경구절로 잘못된 해석
22	말씀을 잘 외울수없어서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
23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것
24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
25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거~

14. 성경기도(말씀기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니까? 간략히 적어주세요.	
26	말씀 암송이 잘 안된다.
27	말씀암송
28	말씀을 충분히 묵상할 시간이 필요함
29	말씀해독
30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깨달음과 적용
31	아이들과의 잠
32	묵상하여 말씀의 뜻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
33	성경말씀을 더 잘 알고 부지런해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4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35	전체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36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할 때
37	성경에 대한 부족함
38	말씀을 찾아서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대충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 즉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을때 어렵다
39	말씀기도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40	인식하지 않으면 내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된다
41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말씀하시는 것(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함
42	말씀기도할때 암송을 해야하는데 잘 암송이 안되어서
43	말씀을 충분히 읽고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	내 의미의 뜻으로 파악한 말씀일까? 두려울때가 있음
45	성경을 섬세하게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알고있어서 어렵습니다.
46	말씀을 많이 외우지 못하고 있는 것
47	나이가 들어서 빨리빨리 생각이 나지 않는 것
48	성령 충만치 않으면 깊은 기도를 오래 하기가 힘들다
49	성경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배경이해)
50	말씀 배경 지식
51	성경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배경이해)
52	말씀의 적용
53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
54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작업

15. 성경기도(말씀기도)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간략히 적어보세요.	
1	체계적으로 성경을 볼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성경기도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 하는 점
2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해야 한다
3	말씀을 가까이하는것(읽고.듣고 묵상 순종)
4	소그룹을 통한 지속성
5	성경 많이 읽기
6	깊히 묵상기도
7	말씀암송
8	통성경학교 와 같은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말씀 공부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와 같은 영성 훈련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함
9	동역자, 함께 하는 공동체 또는 지체
10	사역자와 함께하는 기도 훈련
11	성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이블칼리지 너무 좋았는데 못하게 되서 아쉽습니다.
12	신앙적 훈련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13	성경공부
14	말씀해석과 말씀기도 예시
15	통성경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된다.
16	말씀에대해 깊이 공부하는 기회를 갖기
17	말씀 카드 와 매일 성경말씀을 보는것
18	깊은 묵상의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하는 점입니다
19	말씀묵상과 성령님께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20	기도로 아뢰입니다
21	영적 멘토의 도움
22	말씀을 외우는것
23	말씀에 담긴 뜻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24	말씀이 나에게 와다야야 말씀 기도영역이 된다
25	하루를 주님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활 하는 것

15. 성경기도(말씀기도)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간략히 적어보세요.	
26	말씀읽기 목상
27	말씀 읽고 목상하기
28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룹으로 실천함
29	생활중에 틈틈히 말씀 목상하는것
30	말씀이해
31	예배와 QT 기도에 힘쓰는것.
32	혼자하기보다 같이 해야 그나마
33	성경을 통으로 배우는 것
34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35	말씀목상
36	말씀연구와 통성경공부
37	말씀을 목상하여 기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기도해야함
38	통성경 공부도 한번으로는부족한 것 같습니다.
39	평소에 성경을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읽어야 한다.
40	늘 말씀(큐티)와 기도의 영성이 꾸준하고 주님과 사귀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수 없다고 본다
41	① 예배드리기 ②말씀보기 ③ 기도하기 ④나눔하기 ⑤연합만남
42	성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야 함을 느낍니다.
43	그동안 말씀기도 훈련이 잘 안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44	말씀을 깊이 있게 읽게 됨 / 자주 기도학교 할 수 있기 바람
45	먼저 말씀을 충분히 읽어야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6	성경을 배워야 함
47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함
48	말씀 외우기
49	말씀을 많이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50	말씀 기도와 은혜 받은 구절 나눌때 시간이 너무 길고 피곤해서 힘들고 어려웠다
51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52	훈련
53	말씀을 깊이 목상하고 암송한다
54	성경에 대한 연구모임, 강론의 자리가 꾸준히 있어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55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통성경학교의 훈련과정의 필요하다고 본다



설문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에 참여하여 응답한 사람은 총 63명이며 나이는 주로 40-50대(54%)와 60-70대(40%)분들이 다수로 참여 하였고 대부분 여성(여성83%, 남성17%)분들이 응답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영성과 영성 형성에 대해 100% 들어왔고 기독교 영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경이 1위(63명중 61명응답), 기도가 2위(63명중 58명응답)라고 응답하므로 다른 요인에 비해 두 요소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경기도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서 응답자의 98%는 성경기도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성경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응답에서 59%가 삶의 문제를 성경전체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 문제 해결하는 기도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 질문에 25%는 성경본문을 읽어가며 선포하는 기도로 알고 있었고 11%정도는 현재 상황에 맞는 성구를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성경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성경학교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로 통성경학교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1위는 성경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가 생겼다는 응답이었고(63명중 44명응답), 2위는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통전적 영성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었다(63명중 37명응답). 그리고 3위는 예배 중 설교말씀에 대한 이해가 쉬워졌다고 응답하였다(63명중 26명). 종합해보면 통성경학교의 영향력은 통합적 사고와 통전적 영성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약 70%로 확인되었다. 통합적 사고와 통전적 영성형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두 영성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통성경학교는 신앙 생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이 평가에서 드러났다.

다음질문은 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기도에 대한 평가로 90% 정도의 성도들이 성경기도를 접해보았고 그 결과 53%정도가 통전적 영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34%정도는 약간의 유익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 항목의 결과를 분석하면 성경기도가 영성 형성에 미친 영향력의 효과는 생각만큼 높게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약 53%는 좋았지만 34%는 약간의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음이 평가된 것이다. 그렇다고 성경기도가 통전적 영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라고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설문 결과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원인은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주관식 문항 중 성경기도의 어려운 점과 이를 극복해야 하는 항목의 전체 응답을 조사해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26명으로 가장 많이 대답했고 또 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라는 응답에 26명이 성경교육이라 하였다. 결론적으로 분석해보면 내동교회 성도들 역시 아직 통성경 교육이 잘 안된 것이 증명된 셈이다. 이런 원인이 있었기에 영성 형성에 대한 평가가 약간 낮은 결과를 도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질문으로 성경기도의 장점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서 1위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었고(63명중 52명응답), 2위는 성경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응답되었다(63명중 39명응답). 다음으로 통성경학교의 훈련 없이 성경기도를 할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1위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구한다라는 결과가 49%정도 되었고 2위는 성경을 잘못 알면 잘못된 영성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항목에 응답하였다(41%). 객관식 마지막 질문 중 성경기도를 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82% 정도가 성경전체를 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1위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2위는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13%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식 3문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63명중 약 56명이 응답했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성경기도와 일반기도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본 결과 1위는 성경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다 라고 하였고(56명중 31명 응답) 2위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다 라고 응답하였다(56명중 12명), 두 번째 주관식 질문으로 성경기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1위는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56명중 26명). 그리고 2위는 성경구절이나 암송구절이 떠오르지 않는다고(56명중 9명). 그리고 3위가 묵상이 잘 안 된다(56명중 8명 응답), 그리고 마지막 주관식 문제로 성경기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물으니 그에 대한 응답으로 1위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56명중 26명 응답). 그리고 2위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것이다(56명중 23명)라고 응답하였다.

#### 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기도와 통전적영성형성에 관한 설문조사

주관식 설문조사 내용정리(13- 15번 설문지 답변을 큰 항목으로 정리)

주관식 설문조사	순위	주관식 답변 분류	응답자 수 응답자/전체수
성경기도와 일반기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31명/56명
	2위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 기도	7명/56명
	3위	성경으로 하는 기도	7명/56명
	4위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기도	5명/56명
	기타	기타	*
성경기도할 때 어려운 점은?	1위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될때	26명/56명
	2위	성경구절이 떠오르지 않거나 암송된 말씀이 없어서	9명/56명
	3위	묵상기도의 시간이 길어질때	8명/56명
	4위	묵상하고 기다릴때	4명/56명
	기타	기타	*
성경기도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1위	성경을 통으로 볼수 있는 훈련과 교육	26명/56명
	2위	성경읽기와 묵상	23명/56명
	3위	성경기도 소그룹 모임의 지속성문제	4명/56명
	기타	기타	*

#### <표 7> 주관식 설문응답 항목별 결과분석

설문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렇다. 통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성경기도를 배운 내동교회 성도들은 통전적 영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경과

기도이며 이를 바탕으로 성경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통전적 영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으로 보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내동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통성경학교와 같은 교육과 훈련이 교회 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통전적 영성 형성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더 실제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설문에 이어 실제 성경기도를 하고 있는 두 소그룹 성경기도회 성도들을 찾아가 두 차례의 인터뷰를 하였다.<sup>221</sup>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먼저 1차 인터뷰를 아래와 같이 진행 하였다.

당일 5명이 모여 성경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질문하였다. 질문 1) 통성경학교가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질문 2)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와 통성경의 성경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차이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질문 3) 통전적 영성 형성을 위해 성경기도를 할 때 통성경학교가 주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인터뷰 사례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사례 1, 60대여성, 권사, 중보기도위원장

첫 번째 인터뷰대상자는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은 분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시다. 게다가 중보기도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이시다.

<sup>221</sup> 1차는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제 2비전센터 중보기도실에서 저녁 7시 30분에 가졌고 2차는 2월 28일 화요일 오후 1시에 본당 지하 중보기도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첫 번째 질문으로 통성경학교를 통한 통성경 교육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물었다. 말씀하시기를 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공부는 자신이 교회 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여러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 가장 기억이 남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였다. 코로나 3년간 교회 내 소그룹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기에 통성경공부를 할 수 없어서 자신은 가장 속상했다 말하며 지금이라도 통성경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말미에 비록 아는 만큼 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아는 기쁨이 컸다고 고백하였다. 그분에게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큰 것이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통성경을 알고 나서 성경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다른지 일반기도와 비교해서 물어 보았다. 대답하시길 일반기도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미리 정하고 생각해서 기도하였는데 성경기도는 내가 미리 정하거나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기에 더욱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 좋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기도함으로 일반기도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성경으로 기도하는 성경기도의 유익이라 하였다.

세 번째 질문을 던졌다. 성경기도를 하면서 유익한 점도 있지만 실제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대답하시길 우리는 평신도로서 큐티 수준의 말씀을 알고 나누기 때문에 성경을 깊게 알지 못하거나 어려운 성경사건에 대해 이해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서 그런 때가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역자 분이 지금처럼 와서 성경기도를 인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 사례 2, 60대 여성. 권사

두 번째 사례 대상으로 인터뷰에 응하신 분은 통성경학교를 열심히 하신

분으로 교사와 속장 등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분이시다. 최근 희귀질환이 생겨 다른 일들은 다 내려놓았지만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시는 권사님이시다.

이 분에게는 한가지 질문을 던졌다. 통성경학교를 통해 통성경을 알면 삶 속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대답하시기를 성경을 아는 것은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한다. 통성경을 몰랐을 때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통성경을 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 성경전체가 하나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기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현재 권사님은 희귀병 판정을 받아 모든 것이 부자유한 상태이지만 항상 감사하며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바탕을 두고 기도하는 영성이 있었기에 비록 몸은 불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도 흔들림 없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매주 목요일 성경기도 하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

### 사례 3, 60대 여성, 권사

세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평소에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분으로서 현재 목요성경기도회 리더로 섬기고 계신 분이시다. 이 분은 체계적으로 통성경학교를 배우지는 않으셨다. 대신 교회 내에서 부분적으로 통성경을 접하신 분이시다. 인터뷰 질문을 던졌다. 통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성경을 통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보았다.

답하시기를 본인은 통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교회 안에서 접하게 된 부분적 성경공부는 성경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마인드를 주었고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과 성경을 나누었던 간증을 하셨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1950년대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성경을 배웠다며 성경을 말하지만 많은 성경을 하나 하나

가져와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성경이 하나가 되지 않고 필요한 것만 말하더라 말하며 특별히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땐 여화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하며 성령을 인격이 아닌 힘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였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알고 있으면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을 텐데 성경을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구나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기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설교하듯 성경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범위와 또 그 말씀 그 자체를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말씀하시며 간혹 어려운 본문이나 난해구절 같은 것을 대할 때는 가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약간 한계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현실에 대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깊은 단계까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다.

2차 인터뷰는 2023년 2월 28일(화) 오후 1시 본당지하 소망실에서 실시하였다. 방문시에 3명의 성도들이 성경기도를 하기 위해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1차 성경기도 팀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면 2차 성경기도팀은 50-60대로 구성된 약간 젊은 중보기도팀이다. 다음과 같이 2명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사례 4, 50대 여성, 권사

2차 인터뷰 첫 번째 대상자는 평소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시다. 다만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기에 신앙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성경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에 오신 것이다. 첫 번째 질문으로 성경기도할 때 가장 좋은 점에 대해 물으니 권사님은 성경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아가며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한다며 짧게 응답하여 주셨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서 너무 좋다고 하였다.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성경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나고 물으니 이 또한 짧게 대답하셨다. 답은 단순했다. 성경을 모를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답답하고 때론 그냥 넘어갈 때도 있다고 하였다. 이런 때가 아쉽지만 대체로 좋다고 하였다. 세 번째 질문으로 통성경학교를 이수 하셨는데 통성경학교의 유익함은 무엇인가? 라고 묻자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또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대체로 설문내용에 언급된 종합적인 결과와 1차 인터뷰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는 평가를 해 주셨다.

#### 사례 5, 60대 여성, 권사

2차 인터뷰 두 번째 분에게도 첫 번째 분과 똑 같은 질문을 요약해서 던졌다. 이분은 평소 은혜를 사모하는 분으로 무슨 일을 하든 열심으로 하는 분이시다. 인터뷰에 응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좋되 성경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더 좋다고 하였다. 그 동안은 개인생각이나 일반적인 기도제목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성경기도를 하다 보니 가장 명확한 기도제목을 붙들고 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역시 한계는 말씀의 이해라고 하였다. 평신도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였다. 역시 성경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터뷰를 마무리 하셨다.

이렇게 인터뷰를 가지며 성경기도가 지속되고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뜻)을 알 때 가능하다고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됨을 요청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성경기도에 대해서는 사역자가 한 달에 한번쯤



성경기도에 대한 기본 이해와 내용전달을 위해 배움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모든 인터뷰를 마치면서 소망이 드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경기도가 두 그룹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의 움직임이지만 큰 영향력을 드러내어 한국교회 부흥의 대안이 되길 소망한다.

### 6.3 종합평가

이렇게 내동교회 통성경학교를 이수한 분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또 현장에서 실제 성경기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종합평가를 내린다.

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기도와 영성 형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 어떤 부분도 분리해서 다루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성경과 기도가 일치되어 성경기도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 자연스럽게 바른 영성이 형성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다만 설문결과와 인터뷰에서 반영하고 있듯이 성경기도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갖는 것은 성경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에 성경기도에 대해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기도를 하기 위해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안목이 없을 경우 오히려 성경기도가 그릇된 영성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성경기도를 통한 통전적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본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바로 조병호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통성경학교가 교회 내에 뿌리내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영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통성경학교라는 교육커리큘럼을 가지고 통합된 사고와 통전적 영성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근본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현실과 연결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기도가 이루어져 통전적 영성을 형성해야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세대를 세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 7. 결론

### 7.1 연구의 요약과 의의

지금까지 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기도와 통전적 영성 형성에 대해 논하였다. 영성이라는 화두는 기독교에만 국한된 용어가 아니다. 21세기 과학만능주의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은 구태가 아니라 제 5의 물결로 간주할 만큼 영성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한때 영성은 카톨릭교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영성에 대해 갈망을 갖고 있다. 개신교 역시 그 어느 때 보다 영성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목회적으로 적용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어떤 영성이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은 달라진다. 초기 기독교 영성은 균형 잡힌 영성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교회가 제도화, 조직화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정치와 연을 맺으며 기독교 영성은 변질되었다. 한국기독교의 영성 형성도 마찬가지로 초기 한국교회의 영성은 사경회를 중심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부흥의 불씨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 나라가 위기를 맞고 전쟁으로 난관에 봉착하면서 기독교 영성은 변질되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정책과 이념과 사상은 자연적으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되었고 교회 역시 그 시대 정신을 따라 말씀과 비전을 선포되며 한국교회의 영성은 자연적으로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것 마냥 기독교 영성도 지극히 개인주의화 되고

주관적, 기복적,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갔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변질되고 잘못된 영성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이켜 건강한 영성으로 회복시키고자 영성 형성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전적 영성 형성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소개하며 대표적 두 요소인 성경과 기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성경과 기도는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가장 소중한 원천이다. 교회의 생명력은 이 둘이 이원화 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우리 삶에 균형 잡힌 영성으로 형성될 때 이루어진다. 이처럼 성경과 기도는 양면의 동전과 같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반면 기독교의 쇠퇴도 성경과 기도에서 기인됨이 역사의 증언이다. 성경과 기도가 세상의 시대정신에 치우쳐 이원화되고 통합되지 못할 때 개인의 삶과 공동체 역시 위기를 맞으며 영향력을 잃어 갔다. 한국교회의 쇠퇴원인 중 하나는 성경을 편식한 데에서 기인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잘못 적용된 성경과 기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통전적 영성을 형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경기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교회사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필자가 섬기는 내동교회에서 실시한 성경기도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균형 잡힌 통전적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과 기도가 일치될 때 가능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오직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됨을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제시로 조병호가 시도하고 있는 통성경학교를 소개하였다. 통성경학교는 다음세대를 키우는 신앙운동이며 영성운동이다. 이것은 부모를 통해 5세부터 20세까지 패밀리스쿨이 이루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는 영성 형성훈련이다. 이를 통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기도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는 21세기 신앙운동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기도가 개인과 공동체 안에 시행 된다면 우리 교회와 사회는 건강하게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기도를 통해 형성된 영성은 통전적 영성으로 모든 분야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길은 통전적 영성을 형성하는 길 밖에 없다. 본 연구가 그 길을 앞당기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

## 7.2 연구의 적용의 영향력과 한계 제언

포스트모더니티가 시작되면서 사회와 문화의 전반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이런 현상 속에 교회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은 새로운 변동의 물결에 대해 사교의 혁명적 전환과 변화를 요청하였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중적 앎을 통해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며 미래교회를 위한 에픽(EPIC) 모델을<sup>222</sup> 제시하였다. 레너드 스윗은 에픽 이론을 교회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교회의 유형을 언급하였다. 첫째로 경험적 교회(Experiential Church), 둘째로 참여적 교회(Participatory Church), 셋째로 이미지추구/상호작용적 교회(Image-driven/Interactive Church),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적/공동체적교회(Connected/Communal Church)로 분류하였다.<sup>223</sup> 포스트모던

<sup>222</sup> 김영래, 『김영래 교수의 기독교교육과 앎』(서울: 통독원, 2017), 228. 글에 김영래 교수는 다음과 같이 EPIC 교회 모델을 설명하였다. “레너드 스윗은(Leonard Sweet)은 1999년 발표된 SoulTsunami에서 EPIC 모델을 경험적(Experiential), 참여적(Participatory), 상호작용적(Interactive), 공동체적(Communal)모델로 설명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출판된 Postmodern Pilgrims 에서는 I를 이미지 추구적(Image-driven)으로 C를 연결적(Connected)로 재해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Leonard Sweet, *Post-Modren Pilgrims: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up>st</sup> Century World*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을 보라

<sup>223</sup> Ibid, 229-236.

시대가 준비해야 할 에픽의 요소는 곧 기독교인의 영성 형성을 위한 요소이기도 하다. 스윗이 주장한 에픽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동안 한국교회의 영성 형성이 그릇된 이유는 에픽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영성이 경험적이고 참여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공동체적인 것으로 형성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미래가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에픽이 적용된 통전적 영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기준의 원천자료는 바로 성경이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성경이 대중화 되었다면 이제는 통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대중화 시켜야 한다.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전적 사고가 생길 때 세상의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에픽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통전적 영성 형성의 힘이다.

Covid-19 이후 교회는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 필자가 속한 교회 역시 코로나 19이전과 이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사고가 달라졌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졌으며 개인주의 중심으로 영성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상호작용에 대해 거부하고 공동체에 소속되기 보다는 무엇으로부터 구속 받지 않고 개인의 활동을 추구한다. 공적 공간과 시간보다는 사적 공간과 자율성이 보장된 시간을 더 추구하는 세대가 되었다. 21세기 사사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마다 영성에 대한 목마름은 있었다. 오히려 이런 시대정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기독교 진리를 통해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실추된 교회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 교회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것이다. 고난의 시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기독교가 발흥되어 로마제국을 능가하며 제국을 주도했던 것처럼 다시 교회는 깨어나야 한다. 교회가 미래를 제시하며 참된 공동체를 세워 나가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지금 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그리스도인의 영성회복에 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경영을 볼 수 있는 통전적 영성을 깨우쳐 줘야 한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통전적 영성을 회복시킬 세대를 만들어 갔다.<sup>224</sup> 그리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정신을 이끌어갈 세대를 만드시어 일하셨다.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고 시대정신이 바뀌어 새로운 세대를 세워 나갈 때마다 변치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나라의 관점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성경으로 기도하는 세대를 세웠다는 점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 전 세계교회는 다시 부흥을 소망하며 개혁을 외쳤다. 또 코로나 19 이후 교회는 다시 부흥을 외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문화의 흐름을 역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야 하는 교회는 코로나 이전을 추억하며 살수 없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기독교의 부흥을 이뤄 나가야 한다. 그 방법은 이미 역사 속에서 검증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통전적 영성을 형성하는 길 밖에 없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기도하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통성경세대를 길러 내는 길 밖에 없다.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sup>224</sup> 하나님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시킨 다음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 출애굽세대를 만드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광야 40년간 만나세대를 세워나갔다. 그 영향력은 가히 놀라웠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사사시대에 다음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장했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스바세대를 세우셨다.

한계점들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한계는 성경을 통으로 알기 위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그것은 교회와 가정이 하나되어 준비해야 한다. 먼저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육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 조병호에 알려진 통성경학교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일차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통성경학교를 통하여 통전적 영성이 형성되어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의 준비는 다음세대들을 위해 양육하고 헌신 할 수 있는 부모와 교사들의 준비이다.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200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도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고 한 민족으로 살아남아 후에 나라가 재건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패밀리 스쿨이었다. 부모와 랍비의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헌신된 교사와 부모들이 준비되기까지 어려운 한계가 있겠지만 준비된다면 다시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결론 내리는 것은 통성경학교를 통하여 ‘성경 한 권이면 충분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음세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통전적 영성이 형성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계획하고, 성경으로 사랑하고, 성경으로 일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서적

- 김민웅 외 4인, 헤아려본 세월, 서울: 포이에마, 2015.
- 김영봉, 예수의 영성, 서울: 은성, 1997.
-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 김영래, 김영래 교수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통독원, 2017.
- 김정훈,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통전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2005.
- 류기중, 기독교 영성, 서울: 은성, 1997.
- 이강학, “영성 형성과 영성지도: 이그나티우스 로올라와 에반 하워드를 중심으로,” 예수동행일기, 성남: 위드지저스 미니스트리, 2020.
-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서울: 이레서원, 2001.
- 이정석, 현대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8.
- 정용석 외 5인, 기독교영성의 역사, 서울: 은성출판사, 2007.
-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통통바이블, 서울: 통독원, 2017.
-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 조병호, 성경과 영성,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통통성경학교 STEP 2 마음 훈련,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2, 어드밴스드 북, 서울: 통독원, 2019.

박영호, 조병호, 기적을 만나는 기도, 서울: 통독원, 2022.

조은하,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0.

최창국, 기독교 영성 신학, 서울: 대서, 2010.

협성신학 연구소, 기독교 신학과 영성, 서울: 솔로몬, 1995.

## 2. 외국어 서적

Sweet, Leonard. The Gospel a According To STARBUCKS. Colorado: WaterBrook Press  
2007.

## 3. 번역서적

M. Robert Mulholland/최대형 역. 『영성 형성을 위한 거룩한 독서』. 서울: 은성출판사, 2015.

리처드 포스터, 게일비비/김명희 역. 『영성을 살다』. 서울: IVP, 2009.

Leonard Sweet/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씨앗, 2004.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홍병룡 옮김. 『Re Jesus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서울: 포이에마, 2009.

제람 바즈/한국라브리번역위원회. 『현대문화 속의 전도』.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2.

랍비 조더선 섹스/김준우 역. 『매주 오경읽기 영성 강론』. 경기: 국기독교연구소, 2022.

레너드 스윗/이지혜 옮김.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로드니 스타크/손현선 역.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씨앗, 2016.

로이스 티어베르그/손현선 역. 『랍비 예수』.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8.

동방교회수도승/연숙진 옮김. 『예수기도』. 서울: 보누스, 2015.

#### 4.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하진영, “통통성경학교의 목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목회학박사논문. 메디슨, 뉴저지: 드루대학교, 2018.

Hyeok Jin Kweon, “Tong Bible Program for Young Adult Ministry: A Study of Saesoon Church,” 목회학박사논문, 메디슨, 뉴저지: 드루대학교, 2018.

이동철, “통전적 교육이 새 가족 정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회학박사논문, 메디슨, 뉴저지: 드루대학교, 2018.

이성희, “혼탁한 영성시대, 올바른 영성의 길,” 목회와 신학 177, 2004년 3월호

송재근, “혼탁한 영성시대, 올바른 영성의 길,” 목회와 신학 177, 2004년 3월호

정용석, “기독교 영성과 영성학(1),” 기독교 사상, 1993년 2월호

그리핀, 데이빗,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성과 사회,” 세계의 신학, (97가을);

(97겨울); (98봄)

정용석, “기독교 영성 연구,” 대학과 선교 제15집, 한국대학선교학회, 2008년 12월

유재경, “기독교 영성 형성 관점에서 본 영성일기,” 성남: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2016년 7월

김경재, “종교적 갈등 사회와 종교 다원주의,” 사회이론 13, 한국사회이론학회, 1995

윤철호, “통전적 신학방법론 - 춘계 이종성의 신학 방법론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7 No.1, 2015.

최재건, “LID(Leadership is Discipleship),” 「리더십 저널」 6, 2020년

## 5. 웹사이트

다음검색

<http://www.chemic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4> “미래교회부흥, 교사  
신실한 사역에 달려” 김영래, 기독교헤럴드신문 3월기사

<http://www.seungdong.or.k> 승동교회 홈페이지에서 ‘곤당골 교회’ 역사 검색

<https://blog.naver.com/shallom2778/222989535740> 에서 글로벌처치네트워크

아시아대회 조병호 성경전체 “10 minutes Movement” 선언 기사 인용

<http://parklanda.tistory.com/> 영성을 위한 기독교 자료 - 회당(Synagogue)의  
이해에서 인용

<https://www.christiantoday.co.k> 류석관 교수(대한신대 신약신학)의 「이스라엘과  
성경 11-2」 서기관(Scribe)은 누구인가? 에서 인용

<https://www.duranno.com/qt/view/about.asp> 에서 생명의 삶 QT지에 관해 인용

## 부 록

### 부록 1. 통성경학교 행정리스트(12가지)

#### 1. 센터별 준비현황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TBS)  
2기 센터별 준비 현황



제출일 : 2016년      월      일

센터명		센터장		센터지기		
<b>구분</b>	<b>세부내용</b>					
<b>홍보 현황</b>	구분	포스터	전단지	기타		
	홍보물 수량					
	홍보 현황					
	홍보물 요청					
<b>지원자 현황</b>	<b>주간 지원자 인원</b>		<b>명</b>	<b>누적 인원</b>		<b>명</b>
	No	성명	직분	교회	성별	출생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특이사항 (제안사항)</b>						





## 4. 진행 시나리오

##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TBS) 2기 진행 시나리오



### 진행 1주일 - 하루 전

구분	내용	담당자	세부 내용 & 준비물
장소	70명 수용 공간	센터장 센터지기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테이블, 의자, 음향(마이크, 가스펠음악, 통통성노래 음원)</li> <li>영상(촬영카메라), 빔프로젝트(스크린), 화이트보드</li> <li>냉/난방기, 현수막(본부지원), 장소 안내 표지판</li> </ul>
등록 & 접수	등록자 명부 준비 접수 공간 & 테이블	센터장 센터지기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자 명부 &amp; 등록비 입금표</li> <li>최종 등록자 지원서 마무리 정리</li> <li>최종명단 본부 발송, 본부지원비 본부 송금</li> <li>출석부(과제 확인표), 접수용 테이블 2-3개</li> </ul>
교재	10권 준비 확인	센터장 센터지기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통통성경학교&gt; 메인교재, Step별 7권, 일년일독 통통독성경</li> <li>통통성경길라잡이</li> </ul>
물품	진행물품 확인	센터장 센터지기 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름표 케이스</li> <li>이름표 속지(센터장, 센터지기, 강사, 반장, 부반장, 학생)</li> <li>센터장과 센터지기, 강사, 섬김이, 반장, 부반장 이름표는 본부에서 보내줌</li> <li>학생 이름표는 본부에서 제공한 용지에 각 센터에서 출력함</li> </ul>
강사	강사 확인 & 의전 준비	센터장 센터지기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사 센터별 배정표, 강사연락처</li> <li>강사 확인 연락(시간&amp;장소 공지)</li> <li>강사휴게실(강사 간식, 냉/난방기), 강사 동선 확인</li> <li>강사용 물컵 &amp; 물수건</li> </ul>
간식	간식 매뉴얼 & 간식 준비	센터장 센터지기 부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식 매뉴얼 짜기, 간식 테이블, 간식 준비 (센터별 상황에 맞게 진행)</li> </ul>
자료	진행 자료 확인	센터장 센터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행 시나리오, 입학식.수료식 시나리오 &amp; ppt 자료</li> <li>오리엔테이션 ppt 자료, 수업진행보고서 양식</li> <li>재정보고서 양식, 30강 ppt 자료, 기수별 연락망 양식</li> <li>'출석 &amp; 과제 &amp; 통통독성경 읽기' 확인표 양식</li> </ul>

※ 진행시나리오는 통통성경학교 1기 진행과정에서 센터장, 센터지기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10주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는 폐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5. 입학식 시나리오 및 오리엔테이션

##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TBS) 2기 입학식 시나리오 및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시나리오** / 시간은 오후 2:00~5:00 진행을 기준으로 제시함.

☞ 사회 : 센터지기

시간	내용	담당자	세부 내용
2:00 ~ 2:01	입학식 시작 선언	센터지기	• “지금부터 통통성경학교 2기 ( ) 센터 입학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환영인사 및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2:01 ~ 2:04	환영인사	센터장	• “통통성경학교 2기 ( ) 센터에 입학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통통성경학교는 성경의 7트랙을 7스텝으로 30시간 강의를 듣고, 170시간 예복습을 통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살려냅니다”
	기도		• 센터장의 대표기도
2:04 ~ 2:09	입학생 서약서 낭독	학생대표 2인 - 반장, 부반장	• 반장과 부반장이 대표로 나와서 서약서 내용 6가지를 차례대로 낭독한다. • 마지막 부분인 ‘본인은 Family School을 위한 ~~~’ 부터는 모든 입학학생이 다 함께 한다.
2:09 ~ 2:11	통통성경 노래	다같이	• <통통성경학교> 메인교재 맨 앞장에 있는 악보를 보며 함께 부른다. (ppt에 악보를 띄운다) • 피아노 반주 또는 MR 음악에 맞춰서 함께 부른다.
2:11 ~ 2:15	오리엔테이션	센터지기	•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아래 참조.

### 오리엔테이션 내용

#### 1. 환영

통통성경학교 2기에 입학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통통성경학교를 통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2. 강의 & 강사

통통성경학교는 오늘부터 10주간, 매주 3강의(3시간)씩 총 30강의로 진행됩니다.

30시간의 강의는 ‘통통성경 렉처러코스’를 이수한 전문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며 최고의 강의가 될 것입니다.

#### 3. 이름표

접수 시 받으신 이름표를 꼭 착용해주시고, 매주 강의를 끝나면 안내데스크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출석 & 과제

매주 출석 및 과제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10주간 수업 가운데 3주 이상 결석하시면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매주 10분 이상 늦으면 지각, 지각 3번이면 1번 결석이 됩니다. 매주 과제는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3회 이상 제출 안 하실 경우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 5. 주의사항

강의 시작 전, 휴대 전화는 무음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 녹음 및 녹화는 금합니다. 강의와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6. 기도

통통성경학교 기간 동안 강의를 맡은 강사들과 센터를 섬기는 센터장, 센터지기, 스태프,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통성경학교를 잘 수료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열심 있는 마음과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6. 센터별수업진행 보고서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TBS)  
2기 센터별 수업진행 보고서



제출일 : 2016년 \_\_\_\_\_ 월 \_\_\_\_\_ 일

센터명			센터장			센터지기		
주차		날짜		시간		장소		
강의 진행 현황								
강의구분	강사	강의 제목			시작시간	종료시간		
1강								
2강								
3강								
학생현황								
재적	명		출석	명		결석	명	
NO	결석자 이름		결석 사유			비고		
1								
2								
3								
4								
5								
특이사항								
NO	세부 내용							
1								
2								
3								
4								
5								

## 7. 과제 리스트(주차별)

##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TBS) 2기 수료식 시나리오



**수료식 시나리오** / 시간은 오후 4:45~5:00 진행을 기준으로 제시함.

- 15분 동안 진행함.
- 수료식 진행을 위해 10주차 3강은 45분 강의로 진행함.

❖ 사회 : 센터지기

시간	내용	담당자	세부 내용
4:45 ~ 4:46	수료식 시작 선언	센터지기	• “지금부터 통통성경학교 2기 ( ) 센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4:46 ~ 4:48	통통성경 노래	다 같이	• 피아노 반주 또는 MR 음악에 맞춰서 함께 부른다. (ppt에 악보를 띄운다)
4:48 ~ 4:50	모범학생 시상	센터장	• “통통성경학교 2기 ( ) 센터 10주 동안 모든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공부하신 2분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모범학생 2명을 호명한 이후에 센터장이 시상한다.
4:50 ~ 4:52	수료자 서약서 낭독	학생대표 2인	• 대표 2명이 나와서 서약서 내용 4가지를 차례대로 낭독한다. • 마지막 부분인 ‘본인은 Family School을 위한 ~~~’ 부터는 모든 수료생이 다 함께 한다.
4:52 ~ 4:54	수료증 수여	센터장	• 수료자 서약서를 낭독한 대표 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수료증 내용을 사회자인 센터지기가 읽고 수료증은 센터장이 수여한다.
4:54 ~ 4:59	결단과 파송의 시간	센터장	• 모든 학생들이 함께 결단의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한다. • 센터장이 마무리 기도한다.
4:59 ~ 5:00	축도	센터장	• 센터장이 마무리 기도한 후, 축도로 수료식을 마친다.

## 8. 수료식 시나리오

##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TBS) 2기 수료식 시나리오



**수료식 시나리오** / 시간은 오후 4:45~5:00 진행을 기준으로 제시함.

- 15분 동안 진행함.
- 수료식 진행을 위해 10주차 3강은 45분 강의로 진행함.

☞ 사회 : 센터지기

시간	내용	담당자	세부 내용
4:45 ~ 4:46	수료식 시작 선언	센터지기	• “지금부터 통통성경학교 2기 ( ) 센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4:46 ~ 4:48	통통성경 노래	다 같이	• 피아노 반주 또는 MR 음악에 맞춰서 함께 부른다. (ppt에 악보를 띄운다)
4:48 ~ 4:50	모범학생 시상	센터장	• “통통성경학교 2기 ( ) 센터 10주 동안 모든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공부하신 2분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모범학생 2명을 호명한 이후에 센터장이 시상한다.
4:50 ~ 4:52	수료자 서약서 낭독	학생대표 2인	• 대표 2명이 나와서 서약서 내용 4가지를 차례대로 낭독한다. • 마지막 부분인 ‘본인은 Family School을 위한 ~~~’ 부터는 모든 수료생이 다 함께 한다.
4:52 ~ 4:54	수료증 수여	센터장	• 수료자 서약서를 낭독한 대표 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수료증 내용을 사회자인 센터지기가 읽고 수료증은 센터장이 수여한다.
4:54 ~ 4:59	결단과 파송의 시간	센터장	• 모든 학생들이 함께 결단의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한다. • 센터장이 마무리 기도한다.
4:59 ~ 5:00	축도	센터장	• 센터장이 마무리 기도한 후, 축도로 수료식을 마친다.

9. 재정 보고서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TBS)  
2기 센터별 재정 보고서



제출일 : 2016년      월      일

센터명		센터장		센터지기	
재정 현황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내역	항목	금액	내역
등록비			본부운영비		
기타			강사비		
			간식비		
			차량대여비		
			도시락비		
			기타진행비		
합계					

10. 최종보고서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TBS)  
2기 센터별 운영 최종 보고서



제출일 : 2016년            월            일

센터명		센터장		센터지기						
<b>수료자 현황</b>										
No	이름/직분	No	이름/직분	No	이름/직분	No	이름/직분			
1		21		41		61				
2		22		42		62				
3		23		43		63				
4		24		44		64				
5		25		45		65				
6		26		46		66				
7		27		47		67				
8		28		48		68				
9		29		49		69				
10		30		50		70				
11		31		51		71				
12		32		52		72				
13		33		53		73				
14		34		54		74				
15		35		55		75				
16		36		56		76				
17		37		57		77				
18		38		58		78				
19		39		59		79				
20		40		60		80				
<b>강사 현황</b>										
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강사										
<b>반장 &amp; 부반장 &amp; 모범학생</b>										
구분	반장		부반장		모범학생 (2~3인)					
이름										
<b>특이사항 및 제언</b>										

## 부록 2. 설문조사내용

**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기도(말씀기도)와 통전적영성형성에 관한 설문조사**  
(구글 설문지 / 지면 설문지 나눔)

본 설문은 미국 드루대학교 목회학박사과정 논문에 인용될 설문으로서 성경통독원 조병호박사를 통해 지역교회에 실시된 통성경학교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특별히 본 설문의 주요 내용은 통성경학교 과정 중 성경기도(말씀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영성형성에 대한 조사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목회현장이 다시 부흥의 시기를 준비하는데 좋은 대안의 자료가 되도록 진심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설문주제</b>	<b>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기도와 통전적영성형성에 관하여</b>
설문 기간	2023년 2월 15일(수) - 2월 26일(주) 까지

※ 해당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번호에 V표 해 주세요.

1. 자신의 성별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세요.

- ① 남성      ② 여성

2. 현재 자신의 연령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세요.

- ① 20대-30대   ② 40대-50대   ③ 60-70대   ④ 80대 이상

3. 당신은 신앙생활하며 영성(靈性) 또는 영성형성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V표 해 주세요.

- ① 예      ② 아니요.

4. 당신은 아래 보기 항목에서 기독교의 영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요소 중 세 가지만 골라 번호로 적어 주세요.(     ,     ,     )

보기 : ① 금식    ② 성경    ③ 기도    ④ 봉사    ⑤ 노동    ⑥ 독서    ⑦ 구제
---

5. 당신은 성경기도(말씀기도)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해당번호에 V표 해 주세요.

- ① 예      ② 아니요

6. 당신이 생각할 때 성경기도(말씀기도)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현재 삶의 문제를 성경전체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 문제 해결하는 기도
- ② 현재 상황에 맞는 성구를 찾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 ③ 성경본문을 읽어가며 선포하는 기도
- ④ 내가 원하는 성경구절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구하는 기도

7. 통성경학교(내동바이블 칼리지 포함)를 수료하고 나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큰 차이 없다
- ② 성경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가 생겼다.
- ③ 성경이 역사적 사실로 믿어졌다.
- ④ 신앙생활전반에 걸친 통전적(전체적) 영성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⑤ 예배 중 설교말씀에 대한 이해가 쉬워졌다.

8. 통성경학교(내동바이블칼리지)와 성경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기도(말씀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9. \* 성경기도(말씀기도)를 해보신 분들만 응답해 주세요.

당신은 성경기도(말씀기도)가 당신의 통전적(전체적)영성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번호에 V표 해 주세요

- ①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차이 없다. ③ 약간도움이 되었다. ④ 많이 도움이 되었다.

10. 성경기도(말씀기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해당번호에 V표 해 주세요? (기타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적어 주세요)

- ① 중언부언하지 않아서 좋다.
- ②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
- ③ 오래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
- ④ 성경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 통전적(전체적) 영성형성을 이룰 수 있어서 좋다.
- ⑤ 성경으로 기도하면 빨리 응답될 것 같아서 좋다.
- ⑥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
- ⑦ 기타( )



11. 통성경학교의 훈련과정 없이 성경기도(말씀기도)를 할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영성이 형성될 수 있다.
- ② 깊고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없다.
- ③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
- ④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구하기 쉽다.

12. 성경기도(말씀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해당번호에 V표 해 주세요

- ① 주요 성경구절 성경암송
- ② 성경전체를 통(通)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교육
- ③ 다양한 중보기도 제목과 정보
- ④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13. 성경기도(말씀기도)와 일반적인 기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되는지 간략히 적어주세요.

-----

14. 성경기도(말씀기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간략히 적어주세요.

-----

15. ※14번에 답하신분 만 기록해 주세요

성경기도(말씀기도)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간략히 적어보세요.

-----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응답한 내용은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한국교회의 목회현장에 적용하여 다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소중한 자료로 쓰여 집니다.

Thank You !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Kwanglyel Lee

Place and Date of Birth: Nonsan, South Korea, March 30, 1971

Parent`s Names: Wonjin Lee / Sunlae Kim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Nonsandaeyeon High School</b> 119, Nonsan-daero, Nons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09, 1990
Collegiate: <b>Hannam University</b> 70, Hannam-ro, Daedeok-gu, Daejeon, Republic of Korea	B.S	Feb 17, 1995
Graduate: <b>Hyupsung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b> 72, Choerubaek-ro,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M.div	Feb 19, 200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Kwanglyel Lee

Name typed

March 15, 2023

Date